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6. 12.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Q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가 2006년 11월 3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본 보고서를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30일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 대표 안 영 노

연구진

연구기관

기분좋은 트렌드 하우스 QX

책임연구원

안 영 노 ||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QX 대표

김 소 연 ||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공동연구원

이 진 아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안 태 호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 활동가

정 은 희 ||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활동가

보조연구원

신 민 경 || 예술경영지원센터

텔파이조사 연구원

김 종 민 ||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QX 리서치팀장

이 한 호 ||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QX 기획실장

안 혜 정 ||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QX 연구원

고 지 연 ||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QX 연구원

다원예술소위원회

전 효 관 || 위원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 원 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김 소 연 || 컬처뉴스 편집장

이 규 석 || 예술경영지원센터 센터장

박 준 홈 || 광명음악벨리축제 예술감독

김 준 기 || 경희대 겸임교수, 미술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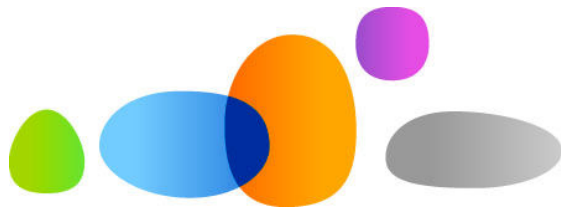
원 영 오 || 극단노뜰 대표

목 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과 방법	13
II. 다원예술의 전개와 담론	17
1. 현대예술의 지형변화와 다원예술	17
2. 국내 다원예술의 담론	18
III. 다원예술 현황	27
1. 국내 다원예술 현황과 지원제도	27
2. 해외 다원예술 현황과 지원제도	31
IV. 다원예술 쟁점과 과제	39
1. 쟁점과 과제	39
2. 지원제도 개선안	45
V. 다원예술 정책 발전방안	55
1.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비전과 목표	55
2. 다원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61

VI. 결 론	71
1. 지원전략 및 사업제안	71
2. 후속 연구과제	77
부 록	83

1. 새로운 예술의 전개	83
2. 국내 다원예술 현황분석	93
-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및 선정사례를 중심으로	
3. 국내 다원예술 지원제도	11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4. 해외 다원예술정책 현황	133
- 호주, 캐나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5. 다원예술분야 활동가들이 바라는 지원제도 개선의 모습	153
- 지원영역과 개선사항을 묻는 델파이 조사	
6. 지원제도의 주요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177
7. 지원제도 운영모델	197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 서론

서론

1. 연구배경

예술지원 기구인 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위원회로 전환 문화예술위원회가 2005년 8월 출범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지원이 기금의 분배를 넘어 예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을 천명하고 예술창조성 제고를 위한 예술지원정책의 구현을 표방하였다.(□□ARKO 비전 2010□□)

이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하기 위해 11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장르소위원회와 지역문화, 남북및국제문화교류 등 기능소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예술지원사업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되어있던 다원예술 분야가 장르소위원회로 구성된 것은 ‘예술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예술’에 주목하는 예술지원정책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원예술 분야는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예술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예술활동과 예술주체, 예술가치를 발굴하고 이의 진작을 통해 우리 예술계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예술계의 창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 예술계를 살펴보면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창작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창작주체의 진입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회 가치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 ‘다원예술’이 예술지원영역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적 대응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다원예술’은 지원대상과 지원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용어라기보다는 기존 예술정책의 지원과정에서 소외된 영역-실험, 인디, 대안, 복합, 대중예술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집합적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원적 예술지원 관련 정

책 경과는 소위별 혁신방안 p127-129 참조.) 즉 기존 예술개념과 장르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영역을 그때 그때 포착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다원예술을 기존의 구조화된 장르와 정책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불명확한 실체”로 필요에 따라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완하는 데에서 나아가 예술현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능동적인 정책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다원예술 현장을 기반으로 명확한 정책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다원예술 영역의 구체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편 문화예술지원정책에서 다원예술은 기존의 장르체계와 예술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창작활동이다. 그러나 현행 문화예술정책은 고착화 관성화된 장르체계 및 배타적인 장르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기존 개념과 장르체계를 가로지르는 다원예술 정책과 지원정책은 공백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다양성, 실험성, 잠재성 등을 주요한 특성으로 내재하고 있는 다원예술에 대한 정책은 기존 정책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지원체계)의 전문성, 구체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예술 전반의 발전, 문화예술 장르별 교류와 진화 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연구목적과 방법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2006년도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논의 및 월례포럼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

1) 다원예술정책 관련 중장기 비전 및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다원예술은 순수/응용/대중 등 전통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창작 활동이며 현재의 주류 예술이 아니라 잠재적 예술, 부상하는 예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의 변화와 예술의 변화 그것이 예비하는 미래의 예술에 대한 검토와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원예술에 대한 범주화 및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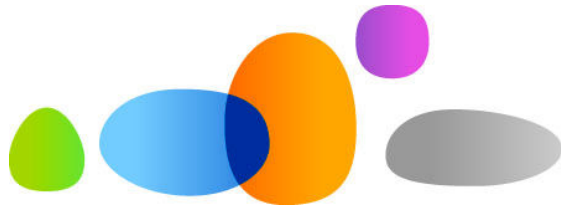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존의 장르에 범주화될 수 없는 예술활동, 기존 장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실험, 근대적 예술의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예술 등에 대한 국내외 흐름을 살피고 이를 범주화 체계화함으로써 다원예술정책의 합리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다원예술 아카이브 등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다원예술의 특징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 연구

본 연구는 생성 중인 예술, 부상하는 예술, 기존의 관습과 관행을 넘어서는 예술로서 다원예술의 특징에 기반한 지원방식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그룹인터뷰 및 델파이조사, 연구자 및 다원예술소위원회와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작업이 이루어졌다. 각 연구자들이 나눠 맡은 조사내용은 7개의 부록으로 놓았다.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I. 다원예술의 전개와 담론

II. 다원예술의 전개와 담론

1. 현대예술의 지형변화와 다원예술¹⁾

- 현대예술의 세 가지 큰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쟁점이 도출됨

예술환경 변화	문제의 제기	지원정책의 쟁점
예술의 탈물질화 경향(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대두) ➡ 매체, 장르, 소통과정의 실험성	작품의 탈물질성 경향이 증가함. 작품을 평가할 수 없음	결과물에 대한 개념수정을 통해 작품이 아니라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창작과정 및 아티스트의 기획을 통한 예술활동 추구가 증가	과정을 지원하거나 기획을 지원해야 함
예술의 다문화주의(중심에서 주변으로, 대안문화 운동) ➡ 예술의 다양성	작품 창조와 향유의 민주화. 예술의 공공성, 삶의 밀착성 강조, 전문예술인의 개념 확장 및 변화	새로운 개념의 대중(공공, public) 예술, 예술이 대중의 삶을 논하는 장이 되는 다양한 활동의 지원기준이 필요해짐
	소수자 문화 및 이질적인 문화요소에 대한 욕구 증가	독립예술, 소수자문화운동 등 현상의 나열을 넘어 주변부 문화, 지역운동, 사회참여의 예술 실천을 수용하는 예술지원정책의 철학 필요함
공동체기반의 예술 추구(삶과 예술 미분리, 문화행동, 소수문화) ➡ 예술의 공공성	향유와 소통의 쌍방향성 증가. 유통구조의 변화 및 소통방식의 다양한 실험에 대처해야 함	매체의 실험이나 장르의 융합과 마찬가지로 소통방식에 대한 실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시공간 개념의 확장. 기존공간(미술관 전시, 극장 등)에서 벗어나는 작업, 기존의 시간개념에서 벗어나는 작업 활성화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수용자와 함께 만드는 작업, 생활공동체 및 아티스트공동체 속에서 지속되는 작업과정 등 기존의 시간과 공간개념에서 벗어나는 프로젝트를 수용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해짐

1) 부록1. 「새로운 예술의 전개」를 요약한 내용임

2. 다원예술의 담론 발전

1) 다원예술 성장과정

- 문화예술위원회(전 문예진흥원) 다원예술 지원사업 변모
 - 1997년 실험예술지원사업 : 개설되었으나 지원저조로 폐지
 - 1997년 대중예술활동지원 : 비상업적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지원
 - 2001년 독립예술지원사업 : 홍대앞 문화 등 기성예술 벗어난 예술관심
 - 2002년 다원적예술지원 : 독립예술 외 탈장르, 복합장르 실험 등 포괄
 - 2006년 다원예술지원 : 다원적예술 → 다원예술로 명칭 변경
 - 다원예술 소위원회 설치와 함께 다원예술의 개념과 지원영역 연구시작

○ 주요담론들

구분	요지	단계
독립예술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이후 언더그라운드, 인디문화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주류문화, 저항예술, 반상업성, 소수문화 등 번성 ◦ 홍대앞문화를 중심으로 발생, 자생적 문화공간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문화 담론에서 출발, 지역문화 담론으로 변화 ◦ 1998년 이후 문화의 다양성, 예술의 공공성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네트워크, 페스티벌 등 독립적, 자발적 모색 	자 생 적 단 계
새로운 예술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문화관광부문화예술의해, 새로운예술의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퓨전아트, 정보예술, 장르복합예술, 매체실험 등이 지배적(소수자문화, 아마추어문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활동 등은 미래형 예술로서 소수의 관심을 끌었음) ◦ 2001년 이후 다원예술지원사업 형성되면서 독립예술, 대안문화, 실험예술 등에 제도적 관심과 지원시작 ◦ 정책 및 지원제도에서 독립예술 및 다원예술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전환의 기로에 선 독립예술’ 문예연감2004(이규석), ‘독립예술창작활성화의 전환점을 기대하며: 예술위 출범에 따른 독립예술지원정책의 방향과 전략’(이규석), 새예술정책독립예술분야(2004) 	제 도 화 모 색 단 계
다원예술 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문화연대 문화행동기획단 등 만들어지며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관심 ◦ 다원예술지원사업 활성화 ◦ 지원사업 내 문화행동 소수, 독립예술 주류화 ◦ 실험예술 부각, 예술가치 내 활동 경향 ◦ 2006년 다양성, 공공성 지원 대상 구분, 부각 필요성 	개 념 화 연 구 단 계

○ 다원예술의 기본범주 형성

- 기성 예술장르에서 수용하지 못 하는 다양하고 이질적 활동의 집합²⁾
- 다원예술 지원제도 안에서 삼원구조로 기본범주를 구성(2004년)
- ①실험성- 매체장르 실험, 프린지의 실험
- ②공공성- 문화행동, 사회적 의제에 직접 소통하는 예술
- ③다양성- 문화다원주의 -비주류문화, 소수문화, 인디문화 등

○ 다원예술의 가치체계 마련

- ‘다원적 예술지원’에서 다원예술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성
- 다원예술 소위원회에서 지원정책상 다원예술의 기준을 마련(2006)
- 가치(다양성·공공성)와 형식(매체·장르 실험)의 두 가지 척도로 구성

○ 심의 및 평가체제

- 현재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의 세 범주로 모집 중(세 가지 평가항목)

실험성	A
공공성	B
다양성	C

- 가치적, 매체적 차원 교차하는 지원요건을 제시(두 가지 평가항목)

가치 \ 형식	실험성
공공성	A-B
다양성	A-C

- 가치와 형식의 두 기준을 교차한 평가기준 제시(네 가지 평가항목)

가치 \ 형식	실험성	
	장르, 매체	과정, 소통
공공성	A1-B	A2-B
다양성	A1-C	A2-C

2) 다원예술이라는 말과 개념이 연상시키는 단어들. ①예술형식의 실험(탈장르/장르해체/복합장르/매체융합/ 다매체예술/ 실험/다른 소통매개방식 등) ②가치의 다원성(다양한 가치/지역성/다중성/종다양성/다문화주의/문화다양성/문화다원주의 등) ③개방성과 소통(일방적이지 않은/소통적/참여적/ 열린/과정 중인 등) ④새로운 예술(새로운 형식/신개념/자유로운/진보적인/미래지향성 등) ⑤삶과 밀착된(일상예술/생활 속 예술) ⑥무규정성(정해지지 않은/유동적/부유하는 등) ⑦젊은(부상하는/젊은/성장 중인/잠재적인) ⑧저항(저항성/언더그라운드/게릴라/반주류) ⑨탈제도(비주류/주변부/소수자 문화) ⑩독립성(비상업적/저예산주의 /자생적/자발성/독립적) ⑪대중성(대중적/반엘리트적) ⑫상대적(상대적/대안적) 등. 이는 다원예술 내의 담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고 하겠음

2) 2006 다원예술 소위원회

○ 월레포럼 요지⁴⁾

구분	요지
심의기준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공모에서 세부화된 심의기준으로 재제 필요 ◦기존 지원정책이 주목하지 않고 배제시켰던 창작주체의 발굴과 활동 과정에 대한 지원을 심의해야 함
다원예술 명칭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명칭 사용 필요 ◦시간이 가면 장르화, 관습화하므로 주기적 전환 필요
다원예술 지원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예술 기획자양성, 문화축매자 교육 필요 ◦현장 움직임이 계속되도록, 토론과 교류기회 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획 발굴사업에 사업비 할당 ◦중장기 차원에서 지속 연구사업과 인프라 구축 필요 ◦구체적 평가체제와 이의 피드백 필요 ◦변화속도 빠르므로 시스템이 현장 따라가고 변화해야 ◦원주민과 지역예술가 가치 인정
다원예술 현장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예산 구조가 실험예술을 만들어 왔음 ◦예술가는 작업에 제한 안 두므로 당연히 크로스오버 됨 ◦다원예술지원은 비상업적이면서 신진예술, 실험예술, 독립예술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스템 되어야 함
지원방식에 대한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미안 가진 스카우터 양성 필요 ◦해마다 분명한 지원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할 것 ◦소통하고 발표할 수 있는 대안공간 마련 ◦독립예술 특징인 자생구조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다액소건제로 실질적인 작품활동 할 수 있어야 함 ◦지원금 소액이므로 여러프로젝트 하나로 한 가지 작업 ◦아마추어 감수성을 갖고 실험 중인 20대 지원프로그램 ◦스튜디오 레지던스 등 예술가간 공동작업 장려 ◦장르가 아니라 프로젝트 지원 장려 ◦작품주제 부여하고 예술가들이 가치에 대한 고민을 이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신청서 개선³⁾
전문가비평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예술 소양 가진 비평가 길러 예술가치 검증받도록 ◦출판사업 및 비평공모
현장과의 소통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의와 쟁점 형성하는 공개적 창구 ◦아지트, 카바레 등 다원화된 자생적 공간들로 대중소통 및 젊은 예술가들의 교류

다원예술소위원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 추진하는 실행력 ◦로드맵 따라 사업을 관리하는 능력 필요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을 객관적으로 잘 대변할 것 ◦최신성 예술성격을 가지므로 새로운 예술경향을 계속 현장에서 찾고 그러한 현장을 반영하는 예술정책추구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소위원회 혁신방안 (2006년 1월)

개념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확한 지칭보다는 기존 예술정책에서 소외된 영역-실험, 인디, 대안, 복합, 대중예술 등의 집합적 용어였음 ◦기존예술지원정책이 장르 및 수월성 중심의 일원적 보편주의를 고수하는 데 따른 문제점 발생 ◦장르에 대한 실험적 시도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을 정책대상으로 능동적 포섭 필요
개념정의	<p>‘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p>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정의 및 지원체계 마련 ◦관습적, 장르적 이해 및 접근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의미축제와 배제를 극복하는, 다원예술 가치보급 ◦다원예술을 둘러싼 의제 및 주체간 통합적 네트워킹이 부족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원예술을 둘러싼 전문성과 구체성 부족을 극복하는 연구, 토의, 장르별 장르간 교류학습 ◦다원예술 정책관련 주무부서, 조직편제, 법제도적 근거 미비를 개선하는 노력 ◦중앙단위 지원정책과 지역단위 지원정책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설치하도록 설득
통합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 ◦이를 통해 예술의 창조적 종다양성 확보가 궁극의 비전

- 3) 2006년 경기문화재단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억’ 사업공고사례처럼 분명한 주제의식, 목표의식을 가진 지원공모. 예술가들이 지원영역을 장르처럼 규정하지 않고 일사, 참여, 소통, 아마추어, 자생력, 지역성, 소수자, 실천 등 고민을 표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모양식을 발굴해야 함
- 4) 2006년도 다원예술 소위원회 활동으로 추진된 5차에 걸친 월례포럼 내용 요약. 1차<현장예술인과의 만남1 : 다원예술 낙선 포럼>, 2차<현장예술인과의 만남2 : 예술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3차<지역예술인과의 만남 : 지역은 또 다른 비상구>(다원-지역소위 합동포럼), 4차<현장예술인과의 만남3 : 탈장르예술 비평을 비평한다>, 5차<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중간보고>

3) 다원예술분야 활동가 대상 델파이 조사결과

○ 다원예술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소통부재	·매체를 활용한 소통 및 지역 및 해외사례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다원예술 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킴
심사선정 기준의 불분명성	·다원예술을 잘 이해하는 전문 비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 사업 사례에 대한 사후평가 과정을 거치고, 보편타당성을 지닌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를 마련함 ·장기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가치와 예술적 성취도 등에 대한 평가가 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함
인프라 부재 및 열악한 작업환경	·다원예술분야 활동가들이 작업실을 싸게 임대할 수 있는 예술센터 개념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함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영향을 주고받거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들까지도 아우르는 등의 기능을 하는 거점공간이 필요함
사업의 지속성 부재	·예술가 컨설팅 및 재교육시스템, 평가에 따른 실연기회 선별 제공, 작가들의 공동 프로젝트 촉진, 연금지급 등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제도 개발을 통해서 다원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킴 ·다원예술분야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기획, 축제, 컨퍼런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사회 환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예술가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

○ ‘다원예술’ 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의견

기존 명칭 사용 동의	·다원예술이 충분한 표현은 아닌 반면, 우리의 다원예술분야 현실을 총칭할 적절한 개념을 찾기 또한 이름 ·다원이란, 사전적 의미로 '요소나 근원이 여러 갈래, 또는 많은 근원'을 뜻함. 다원예술 역시 실험적이라든가 대안적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 ·예술적 실험에는 내용 및 형식적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원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체계와 형식체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게 열려 있음
다른 명칭 사용 제안	·‘실험예술’: 기존 예술형식을 새롭게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확장작업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은 세월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재생산 될 것임 ·‘독립예술’: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 이후 컨템퍼러리 예술이 당위화 되어 주류예술가들도 다원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

	<p>예술이 지원받아야 하는 환경이 되었음</p> <p>◦ ‘뉴장르 공공예술’: 낙후된 지역을 찾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밀어 붙이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의 진정성과 당위성은 다양한 소수의 문화예술이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p> <p>◦ ‘새개념 예술’의 사용 제안과, 다원예술 분야 활동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바탕으로 명칭에 대한 ‘의미화 과정’ 및 ‘새롭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조사되었음</p>
--	---

○ 다원예술의 개념정의(형식과 가치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형식요소와 가치요소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항목이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과정으로써의 예술’과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 치 \ 형 식	창작·결과 중심의 매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C (3 × 6)	A (6 × 7)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D (3 × 3)	B (3 × 7)

○ 다원예술의 지원영역과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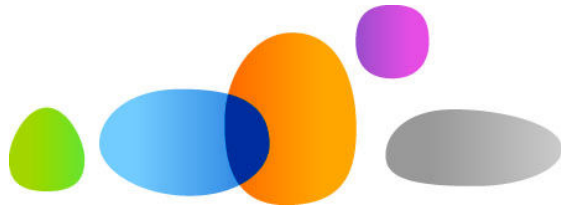
- 7명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형식의 실험, 독립예술 및 언더그라운드 예술,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등의 항목을 선택함
- 매체의 실험,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등은 6명이 응답함

○ 다원예술 지원방식

- 10명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다년간(장기적) 지원 사업, 자생성과 재생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항목을 선택함
- 연구사업 및 전문가 육성과 네트워킹 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특화분야 할당, 집중 지원, 예술가 및 지역사업 중심 지원 등에 7명이 응답함

○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

- 10명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속적인 지원책 개발 항목을 선택함
-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 개발, 공공성의 의미와 정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탕으로 ‘착한 것’만이 공공성인지 제고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 8명이 응답함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II. 다원예술 현황

III. 다원예술 현황

1. 국내 다원예술 현황과 지원제도

1) 2005, 2006 문예진흥기금 다원예술 지원양상 분석⁵⁾

- 다원예술 양상을 매체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으로 나눔. 매체적 특성의 경우 실험장르, 복합장르, 대중예술, 종합예술제, 일반적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가치적 특성의 경우 공동체예술, 문화행동, 사회참여, 시민문화지원, 예술가치 중심으로 유형화하였음

기준	양상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장르- 특정 장르에 대한 실험적 예술창작 ○ 복합장르-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에서 탈피한 탈장르적, 복합장르적 예술창작(Multi-disciplinary arts) ○ 대중예술- 대중음악, 만화, 영화, 서커스 대중예술 및 대중문화, 공간 환경 등을 활용한 예술 ○ 종합예술제- 예술복합, 축제, 발표회 등의 형태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실천 ○ 장르중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장르중심의 예술 형태를 보이는 창작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예술- 기성예술의 제도적·전통적 미학규범과 자본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자생적 창작활동을 지향, '저예산 독립제작'의 방식 ○ 공동체예술-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 예술(Community arts) ○ 문화행동- 현장성을 기초로 사회현실에 대해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실천으로서의 예술 ○ 사회참여-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한 예술창작 활동 ○ 시민문화체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등 시민의 문화체험을 주요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 예술가치중심-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으며, 예술내적 창작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

5) 부록 2. 「국내 다원예술 현황-2005,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지원 분석」을 요약한 내용

- 정기공모 다원예술분야 지원신청사업과 지원선정사업을 대상으로, 매체적 특성과 가치적 특성의 양 기준으로 신청사업을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음⁶⁾ 7)

매체 가치	장르실험	복합장르	대중예술	종합예술제	장르중심
독립예술					
공동체예술					
문화행동					
사회참여					
시민문화체험					
예술가치중심					

-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다원예술 신청자 및 선정 사업에서 실험예술 비중이 높음
- ② 그러나 선정에 있어서는 공동체예술, 사회참여 등 가치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이 주목받는 경향 증가
- ③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문화체험 예술활동이 증가하고, 그 안에서 실험적 방식 및 장르 복합 양상이 두드러짐
- ④ 사회참여적 예술실천이 증가하고 주목 받음
- ⑤ 예술가치중심 유형의 약화 실험성 가진 매체형식도 줄어들음
- ⑥ 본격적 다원예술적 실천보다는, 기존 지원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 유형이 대거 신청하고 있음

형식 가치	실험성	
	장르, 매체	과정, 소통
공공성		
다양성		

- 6) 현대예술의 경향, 다원예술 담론의 전개와 다원예술의 쟁점을 바탕으로 유형을 나누어 분석함
- 7) 다원예술 사례들을 파악하는 가치와 형식의 두 기준은, 다양성, 공공성, 실험성이라는 세 가지 다원예술지원제도의 자치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임. 다음과 같은 2X2 기본형의 척도를 발전시켜 가치적 측면과 매체적 측면의 다양한 유형들을 적용하게 됨. 실험성, 공공성, 다양성 각각의 세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치와 형식으로 교차시켜 네 가지 모형을 얻게 됨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문예진흥원) 다원예술 지원사업 변화⁸⁾

- 1990년대 후반 문예진흥원의 비상업적 대중예술 지원
 - 독립영화, 비주류 대중음악 등 일부 사업에 지원. 지원규모는 저조
 - 1997년 실험예술지원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나 지원신청 저조로 폐지
- 2001년 ‘독립예술지원사업’ 등장
 - 1998년 독립예술제의 성공적 개최에 영향
 - 대중예술지원 예산의 일부 분리(1억 원)를 통해 시작
- 2002년 ‘다원적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
 - 2001년 이후 ‘독립예술’로 구획되지 않는 활동의 등장
 - 인디, 실험, 대안문화 등 새로운 경향들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으로 재편
- 2006년 다원예술소위원회 구성
 - 민간위원회 출범과 함께 다원예술소위원회 구성, 지원정책 논의 구심
 - 프로그램 명칭 다원예술지원사업으로 변경
 - 타 장르 동등하게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 내 창작프로그램지원으로 편제
 -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신진예술가뉴스타트및지속프로그램지원사업 추가
- 2007년 기획사업 도입
 - 해마다 집중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지정하는 기획사업 도입. 2007년 집중사업으로 새장르 공공예술프로젝트 지정
 - 신진예술가뉴스타트및지속프로그램 지원사업 명칭이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으로 변경
 -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항목이 일반지원 내에 포함

3) 국내 다원예술지원정책의 양상 및 이의 비교⁹⁾

- 현재 다원예술이 집합적 명칭과 상대적 개념을 갖는다 할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분야가 포괄하고 있는 지원대상, 지원목표와 비교될 수 있는 국내 여타 지원제도를 검토함¹⁰⁾

8) 부록3. 「국내 다원예술 지원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요약한 내용임

9) 국내 예술지원기관의 지원제도 중 다원예술 분야와 겹치는 지원제도 영역에 대해 살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10) 2006년 현재,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중 문예위 다원예술 분야와 비교되는 지원사업을 검토

구분	내용
경기문화재단	<p>○2004년 실험예술지원, 기존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예술지원으로 출발하여 공공·실험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가치적 차원과 매체적 차원의 다원예술활동을 지원해옴</p> <p>○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을 구분지원하여 다양성과 공동체지향의 가치적 차원 강조</p> <p>○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안에서 아마추어 순수문화예술 활동, 자발적 공동체문화운동 및 마을축제, 동호인단체의 창작활동 지원(도민의 직접예술 참여와 아마추어동호회를 예술진흥의 저변으로 판단하는 관점 형성)</p>
서울문화재단	<p>○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차별화 위해, 시민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에 초점을 둔 지원사업. 다원예술 지원이 별도로 없으며,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내에서 공공미술(가치적차원), 복합미술(매체적 차원) 등 주제 구하여 부분적 지원</p> <p>○2005, 2006년 중점지원 방향 중 전문예술인단체 및 아마추어 동호회가 시민문화예술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아마추어문화예술 지원 명문화</p> <p>○응용예술 분야에서 어느 장르에도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예술사업 지원함</p>
인천문화재단	<p>○공연예술, 전시예술 등과 구분하여 다원예술 분야를 명시적으로 지원함. 타장르에서 담지 못 하는 사업을 수용하는 차원</p> <p>○생활문화활동지원 분야에서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원</p>

- 독립영화는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함. 영진위 독립예술지원사업은 초기 제작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배급지원까지 확대되어 유통 및 매개활동 지원의 선례가 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디레이블 육성 사업은 비상업적 순수예술지원이 아니며, 문화콘텐츠산업의 기층을 형성하는 가치 때문에 지원함

2. 해외 다원예술 현황과 지원제도¹¹⁾¹²⁾

1) 국제적 동향

- ‘새로운 예술 활동’ 지원제도에서 이 지원영역(대상, 정의)에 대한 접근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으로 대별됨. ‘예술의 새로운 표현양식’로서의 형식적 실험으로 볼 것인가, ‘소통을 위한 매체’로서의 다문화주의, 사회적 실천 등을 포함하는 가치적 양상으로 볼 것인가
- 이를 비롯해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다원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 개념정의와 해석은 각 사회마다 다름
- 각각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원예술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 호주, 캐나다, 영국의 사례

- 기존 장르예술이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에 비해 비유럽권인 캐나다와 호주에서 두드러진 다원예술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제도에서도 새로운 예술의 개척에 주력함
- 최근 들어 이민자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문화의 중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예술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영국도 유럽 권역의 다원예술 분야를 견인 중임

(1) 호주

지원영역(지원대상, 지원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이브리드 예술(Hybrid Arts)- 장르 간, 학제 간 공동창작 과정이 이루어지는 실험적 활동 ② 복합장르 예술(Multidisciplinary Arts)- 여러 장르가 한 작품 안에 교차하는 유형의 실험적 예술 ③ 뉴미디어 아트(New Media Arts)- 기존 장르예술에 동시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예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 예술은 미디어에 기반을 둔 실험성이 두드러지거나 과학 등 예술 이외의 분야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작업이 많음 - 지역공동체와 원주민 예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문화다원주의와

11) 호주, 캐나다, 영국의 지원제도 중 다원예술 영역과 겹치는 지원제도와 정책을 살핌.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12) 부록4. 「해외 다원예술정책 현황 - 호주, 캐나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를 중심으로」를 요약한 내용

공공성을 중요한 지원목표로 삼음
정책 경향 및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은 하이브리드 예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함 - 복합장르와 뉴미디어 아트가 창작 결과물(product)인 반면, 하이브리드 예술은 창작 전 과정(production)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뉴미디어 아트(new media art)의 경우, 시각과 청각 프로젝트로 나누어 시각 예술위원회와 음악 예술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 - 특정 기획안이나 프로젝트가 가진 고유성을 적합하게 심사해줄 장르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때, 다원예술 사무국은 호주예술위원회에 등록된 동료집단(peer group)과 위원회 멤버들을 소집해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여러 장르의 교차와 형식적 실험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예술 장르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예술 사무국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여과하는 장치를 만들어 장르위원회에서 심의케 함

(2) 캐나다

지원영역(지원대상, 지원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일시적 시공간에서 사회에 개입하는 다양한 표현양식과 층위의 예술적 소통과정 ② 복합장르(Multi-Arts)- 정형적 장르규범을 벗어난 장르융합적, 탈장르적 예술 ③ 새로운 예술 접근양식(New Artistic approach)- 전통적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아티스트와 대중이 만나는 프로젝트 및 주제의식을 가진 과학, 인문학과의 만남, 사회적 주제를 위한 예술의 쓰임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와 비교하여 광의적으로 다원예술을 정의함 - 호주가 다원예술의 형식 실험적,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캐나다는 사회 참여적이고, 예술과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 과정중심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
정책 경향 및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아티스트와 다원예술 종사자 그룹의 다양한 관점과 시점에 따라 진행정보와 요구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설계 - 복합장르와 신진예술가들의 창작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 장르 예술위원회와 협력 - 퍼포먼스 아트, 복합장르, 새로운 예술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담론 형성에 주력함 - 캐나다예술위원회 내 다원예술 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에 힘씀

- 국내외 다원예술 아티스트,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메커니즘을 개발
- 도시 외곽, 원주민 거주지 등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다원예술 확장에 힘씀
- 다원예술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새로운 관객개발에 대한 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

(3) 영국

지원영역(지원대상, 지원범주)
① 혼성예술(Combined Arts)- 예술 장르 간의 접합, 실험, 교류를 통해 예술적 성취 높이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총체적 예술활동 ② 학제 간 협력예술(Interdisciplinary arts)- 예술과 다른 분야와의 만남과 실험을 통해 표현양식 측면과 사회와 접점을 늘리는 공공의 가치 측면에서 예술의 영역을 확대시킨 예술활동
특징
- 영국예술위원회의 경우, 호주와 캐나다처럼 다원예술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성(Diversity)이라는 큰 주제 아래 혼성예술(Combined arts)과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s)을 기존 장르들과 구분해 별도로 지원 정책을 수행
정책 경향 및 지원방식
- 혼성예술의 경우 신진예술가 육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최선과제로 삼음 - 혼성예술의 경우 지역 공동체에 속한 작은 예술단체들이 예술을 통해 이루어낸 변화들을 사례 모음집으로 발간하기도 하며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예술단체의 지방 순회공연을 적극적으로 지원 - 학제간 협력 예술의 경우 새로운 예술 양식에 대한 적합한 정의와 리서치, 정책 개발, 논의와 비평, 지식 교환 공간 등을 이 장르의 지원 범위로 설정 - ‘Live Art’는 비영리 민간문화예술단체로 활동영역은 리서치, 아티스트의 전문성과 커리어 개발, 목적형 프로젝트로 나뉘는데, 영국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관련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함 - 다원예술의 복합적인 장르 특성 상,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Live Art’뿐 아니라, 여러 외부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3) 아시아 다원예술 활동장 비교

- 아시아는 한국을 제외하고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정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현재 정부 지원정책보다 아티스트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소수의 축제와 민간운영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다원예술의 성장과 네트

워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두, 일찍이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의 성장배경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력,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다원예술 성장의 추동력이 됨

싱가포르	<p>○에스플라네이드(Esplana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최대 복합 문화 예술 공간. 축제, 연극, 음악, 미술, 무용과 함께 복합장르(Multi-Arts)를 프로그램 분야로 소개하고 있음 <p>○서브스테이션(Subst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싱가포르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욕구가 만나고, 충돌해 새로운 예술가와 작품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공간 - 자체적으로 기획한 축제(셰페스트, 페미니즘 연극제 등)와 시각예술, 영화, 공연 분야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Associated artist scheme), 문화예술 평론지 계간 등 기획 프로젝트들을 채널 삼아 다원예술 육성책을 운영하고 있음
홍콩	<p>○프린지클럽(Fringe Clu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예술가들의 플랫폼, 지역 기반의 과정적 예술 발표 - 개방성을 핵심 철학으로 삼고, 예술 표현의 자유를 상위 개념에 두고 있음. 클럽이 뜻하는 바대로 자발성과 교류가 핵심이며, 자체기획과 지원사업을 벌이는 싱가포르 서브스테이션과 운영방향의 차이점이 있음 - 실험, 이종 장르간의 만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 커뮤니티 예술 창작 등 <p>* 아시아 권역의 컨템퍼러리 공연예술, 특히, 이종 장르 간, 타문화 간 공동창작, 복합장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뉴 비전 페스티벌(New Vision Arts Festival)이 대표적인 축제</p>

4) 호주, 캐나다 지원제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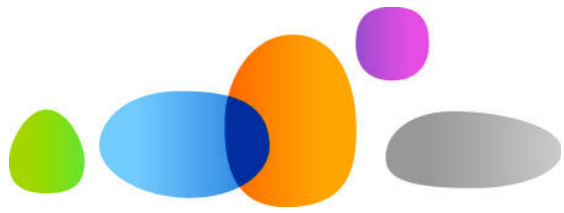
	호주	캐나다
지원사업의 기본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예술 장르 및 장르 간 창조활동을 주목 ○ 예술형식실험과 미디어, 탈장르 등 테크놀로지 차원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호주보다 사회참여적 활동과 과정 중심적 예술 소통에 주목 ○ 사회비판, 지역사회 참여 및 휴머니스트 관점
하위범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간 복합과 타예술 공동작업(hybrid art)을 구분함. 영국의 혼성장르 예술(combines art)와 학제간 예술사업도 이런 구분과 같음. 호주는 뉴미디어 아트를 따로 구분하여 지원할 것으로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는 호주에서 구분하는 장르간 복합과 예술간 공동작업을 한 지원범주로 묶고, 이를 예술의 영역과 만남(new artistic practise)와 구분함. 또한 참여적이고 과정적인 예술 활동으로서 퍼포먼스를 구분하여 지원함
문화다원주의 가치 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다문화주의 관점을 표방하고 만들어졌지만, 캐나다에 비해서는 미디어에 비중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호주에 비해 광의의 다원예술임
연계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및 산업연관에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적 탐구와 문화운동 개입
일반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젊은 아티스트 지원육성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에게 다원예술을 보급하는 데에 역점을 둠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르활동에서 담을 수 없는 활동을 묶어 새로운 흐름을 지원하는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기준에 따른 필수요건이 정해지면 지원함

13) 한국의 경우 미디어아트에 중점을 둔 호주와 달리 1990년대 후반에 청년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적 다원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며, 이는 독립예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임.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들어 매체장르 실험 및 미래의 예술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는 ‘새로운 예술’의 고민이 싹틈. 한국의 경우 사회적 실천이나 문화행동, 소수자문화 및 다문화주의 등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류를 형성하지 못함(한편 2005, 2006년도 예술위 다원예술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류가 부상 중임이 확인됨)

5) 한국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적용가능 사례

○ 호주, 캐나다, 영국의 사례로부터 취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구분	적용사례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위원회 심의 후 장르지원이 적합할 때 기존 장르위원회로 보냄 ○ 다원예술 지원 전 지원적합성, 구비요건 등 상담업무 ○ 특정 장르의 심사 필요시 관련 활동가, 동료그룹이 심사토록 함 ○ 예술적 소통과정에 대한 지원, 창작 결과물 없는 지원 등 ○ 다년간 지원프로젝트 운영 ○ 과학과 예술의 연계, 산업과 예술의 연계 등 특별지원사업화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연구를 통해 다원예술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펼쳐나감 ○ 수년의 리뷰 후 지역커뮤니티 사업을 발굴하는 등 연구를 통한 사업개발 ○ 4가지 중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지원하는 방식 ○ 예술이 사회실천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고 비판적 담론 강조, 지역공동체 및 문화운동 개입 ○ 인문학, 학술 등과 연계사업, 새로운 미학적 정의시도, 사회실천의 결부에 대한 연구 요청 ○ 특정 지역과 기관을 키우는 집중육성 사업 ○ 웹과 평론 게재 등을 통해 일반대중 보급에 주력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지원사업과 관련, 순수 민간단체 파트너를 지원, 이들과 협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부합하는 기획사업, 주제별 발굴사업 등 스페셜 프로젝트 운영 ○ 향후 수년에 걸쳐 예술현상 및 예술제도 변화의 패러다임을 파악하면서 다원예술 지원정책 및 기획사업을 추진 ○ 매체실험 및 장르실험의 결과물보다 과정으로서의 예술, 예술소통 활동에 주목, 단일 예술가의 장르복합 창작보다는 장르 예술가 공동작업 등에 비중을 둠 ○ 예술장르 간 융복합의 교류 뿐 아니라, 예술과 산업, 예술과 기술, 예술과 기업, 예술과 과학기술, 예술과 학계 등 예술 외 분야와 공동작업 권장 ○ 다원예술을 하위규정 하는 범주를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지원 목적을 분명히 소통하고자 노력함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IV. 다원예술 쟁점과 과제

IV. 다원예술 쟁점과 과제

1. 쟁점과 과제

1) 다원예술의 명칭

(1) 쟁점

-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제 견해
 - 다원예술의 제 현상간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한 정의가 필요함
 - 기존의 장르적 규범을 따르기보다 다양한 유형의 예술 활동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구성적 개념이 현실적임
 - 다원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심화하기 위해 장르적 규범을 갖춘 정의와 명칭이 필요함
- ‘다원예술’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
 - 다원예술 명칭이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의도를 지니나, 포괄하고자 하는 새로운 예술현상의 핵심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못함
 - 현재의 명칭은 포괄적이면서 시대적 한계를 가진 잠정적 명칭으로 기능하도록 함
 - 예술계 및 사회 구성원이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다원예술의 정책비전이 드러나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함

(2) 과제

- 형성 중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제도화 필요
 - 제도적 목적을 위한 기능적 개념이므로 지원제도의 목적과 예술정책의 목표에 따라 변화하는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한시적 개념으로, 3년 후 새로운 다원예술 영역과 범주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하며 어느 시기까지 이 개념이 유효할까에 대한 추정 필요함
- 비평 축적을 통한 명칭 개발 필요
 - 선형적 차원의 미학적 정의나 장르개념이 아닌, 지원제도 상 개념 설정이 요청됨
 - 다른 한편으로 충분한 창작사례와 향수경험을 통한 비평언어가 필요함.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사회 및 예술계의 이해를 높이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다원예술의 특징과 예술적 가치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비평언어의 개발과 명칭 개발이 필요함

2) 지원영역

(1) 쟁점

- 다원예술의 실험성은 장르와 명확한 경계를 갖는가
 - 기존 장르의 지원이 ‘진흥’의 관점에서 ‘수월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관습적 관행적 예술매체, 예술방법, 예술개념에 저항하는 실험적 예술활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임
 -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원 제도가 포괄하면서 형성된 영역임
 - 그러나 현대예술에서 장르의 경계는 끊임없이 전복되어왔다는 점에서 기존 장르와의 경계가 모호함
- 다원예술은 신진예술가의 충원기능인가, 기존 지원정책의 완충지대인가, 독자적인 예술영역인가¹⁴⁾¹⁵⁾
 - 신진 작가들이 기성예술계로 나가는 ‘사다리’ 기능인가, 그 자체로 동시대의 특정한 예술활동이 독자적으로 자리 잡고 교류하는 ‘운동장 기능인가
 -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지원영역으로 개념설정이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장인가, 그 자체로 동시대의 예술경향을 확정하여 영역화 하는 하나의 예비 장르, 준예술계인가
- 제도화된 예술계 밖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적 예술실천
 - 현대예술에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 자체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현대예술에서 제도화된 예술계 밖에서 벌어지는 다문화적 예술실천이 왕성히 벌어지고 있음. 다문화적 예술실천은 예술의 실험성, 종 다양성의 역동적 활동장이므로 이의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¹⁶⁾

14) 충원기능으로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신진작가 지원이 다른 형태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음. 이후 기존 장르예술로 돌아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임

15) 완충지대는 장르간 균형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경을 갖고 만들어질 수도 있음. 기존 장르예술의 공공성, 실험성 부족을 채워주고, 새로운 예술의 자극을 주는 것이 현재 다원예술의 의미임

16) 장기적으로 탈장르, 장르복합, 형식실험은 각 장르마다의 몫이 되어야 함. 이 경우 다원예술 지원은 결과물이 없든지 활동과정이 길다든지 하는 탈근대적 예술창작을 지원하며, 그리고 문화적 소수자,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 등 예술계 밖의 문화운동을 빈틈으로 끌어들이거나 다양한 가치와 주제가 예술활동과 결합하는 경우를 발굴해서 수용함

(2) 과제

- 기존 장르 규범에서 벗어나 ‘영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다원예술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활동의 활동장¹⁷⁾ 개념으로 영역을 설정하고 지원범위의 융통성과 변화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실험, 새로운 예술주체(신진작가, 전문가/아마추어 이분법을 벗어난 새로운 예술 주체 등), 문화행동 등 예술개념, 예술가치의 확장 등이 다원예술 활동장에서 포괄되도록 함.¹⁸⁾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이러한 활동장을 새로운 예술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배출되는, 발굴의 장으로 조성해야 함
 - 2, 3년마다 지원범위와 영역을 예술환경 변화에 따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¹⁹⁾
- 충원구조와 완충지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사업 모집방식과 선정 기준이 달라야 함
 - 완충지대는 기존 장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해야 함
 - 충원구조는 신진작가들의 실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성장시켜 장르예술계로 보내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해야 함

3) 장르 중심의 지원대상²⁰⁾

(1) 쟁점

- 장르 중심의 지원구조
 - 문예위는 2002년부터 성과목표로 지원구조를 변화하였음에도 소위, 심사위원 구성 등 여전히 기존 장르체계가 지원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이는 각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유형에서도 확인됨 (예 ‘문화예술매개활동 지원’의 전국문학관 활성화지원에서 문학프로그램으로 지원사업이 한정되어 있음)

17) 장르 규범적 정의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활동장’ 개념을 도입했음. ‘활동장’에 대해서는 부록 7을 참조할 것

18) 2000년 이후의 담론을 보면, 다원예술의 지원영역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음. 독립예술 및 언더그라운드예술 발굴, 아마추어 문화예술의 육성, 탈장르실험과 퓨전예술 등 예술형식의 새로운 실험, 문화행동주의, 공동체 문화예술활동 및 시민문화적 실험. 독립예술의 경우 지원을 받으면 자생력을 해친다는 입장이 제기되거나, 비상업적 대중예술이 다원예술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아마추어 작가 및 커뮤니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시민문화예술향수 지원에 해당한다는 입장들이 예술계에서 제기되기도 함

19)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다원예술 현상을 10년 후 지키는 것보다 다시 새로운 예술경향을 보여주고 새로운 비전을 선언해야 함

20) 다원예술의 개념 정의 정책 영역의 모호함은 한편으로 기존 장르를 근간으로 한 지원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함

- 장르 중심 지원구조에서 비롯되는 다원예술 영역의 모호함
 - 다원예술을 기존 예술의 상대적 관계로 놓아, 장르중심 심의체제의 보완책으로 제시할 것인가. 혹은 대안적 개념으로 놓아, 적극적으로 다원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설정하고 획득할 것인가
 - 다원예술의 지원목표에 맞는 조건을 마련하여 적합한 것만 받아들이되 다른 장르에서의 신진 실험을 가급적 흡수할 것인가, 해당 장르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취할 것인가
- 장르 중심 지원구조에서 비롯되는 다원예술 지원전략의 이원성
 - 포괄적 개념설정의 전략을 쓸 것인가. 즉, 다양한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때 다원예술로 지원함. 이때 다원예술은 이질적인 개념들의 합이 됨. 따라서 다원예술 지원 정책의 목표는 기존 예술과 다른 새로운 예술 활동을 확대하는 것임
 - 배타적 개념설정의 전략을 쓸 것인가. 이는 다원예술의 정책 목표에 기초하여 가치와 매체장르 실험의 두 요소를 충족할 때 다원예술로 지원하는 것임. 다원예술을 여타의 장르예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배타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지원 목표를 다원예술 수월성 강화에 두게 됨

(2) 과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표방하고 있는 성과목표 중심의 지원체계를 실질화하는 지원제도 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함.²¹⁾
- 성과목표 중심의 지원체계 실질화를 위해서는 심사위원 평가위원 구성에서부터 심사와 평가과정에서 성과목표가 심사와 평가의 지표로 구성에서부터 심사,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목표가 관철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요함²²⁾
-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제도가 다원예술의 개방성, 실험성 등 다원예술 특성과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장르 중심 지원구조의 틀을 뛰어넘어야 함. 따라서 장르별 모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제별 프로젝트, 기능적 사업을 추구해야 함

21) 목표 중심의 사업 편제의 문제점으로 ① 예술 장르의 차이에서 오는 지원사업의 특성화, 장르별 발전 단계의 차이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불가 ② 각 예술 장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총량적 파악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기도 함.(예술위 내부 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기존의 장르 경계가 점차 약화되는 현대예술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장르를 예술활동의 기반으로 이해하는 관습적 인식임

22) 지원목표의 구체성과 정교성, 다시 말하면 실현가능성, 측정가능성, 내용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원목표 설정도 중요함

4) 지원방식

(1) 쟁점

- 작품에 대한 지원 문제
 - 현재 장르중심 지원과 함께 결과중심 지원의 문제 노정
 - 작가, 과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제기
 - 단체가 아니라 프로젝트 내용 중심의 지원 방향 명료화
 - 사전지원, 상시지원, 현장발굴, 작가연구기회 제공, 기획의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나옴
- 기존 지원방식의 경직성²³⁾
 - 현재 지원사업이 공모에 한정되어 있음
 - 장르 중심, 작품 중심 지원구조는 지원 방식의 경직성을 노정함
 - 사후지원의 경우 재공연 등과 같은 결과물에 지원됨으로써 예술 활동 심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이 시도되고 있지 못함.
- 심의 평가 기준의 구체화 체계화
 - 지원정책 지원목표가 사업에서 구체화되고 실질적 영향력을 갖도록 심사 평가 기준의 구체화 체계화가 필요하다.

(2) 과제

- 다원예술의 특징과 기존 지원방식의 한계를 극복
 - 현재 다원적인 대상에게 예술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술에 대한 다원적인 지원방식 추구하여야 함. 결과물 지원이나 사전지원을 넘어 과정, 사후지원, 연구지원 등
 - 기획사업, 발굴사업을 개발 공모에 치우쳐 있는 현행 지원방식의 유연화를 기함
- 다원적 지원 방식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개발
 - 다원지원 방식의 유연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의 개발이 필요함
- 예술계 전반과 지원방식의 경직성에 대한 공감대 적극 형성
 - 지원방식의 경직성은 예술 지원 전반에 걸쳐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예술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독립예술의 경우, 자생적 활동이지만 공공지원이 필요함. 이 경우, 매개공간과 같은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공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하드웨어 저가 임대사업 등을 벌이고, 매개인력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임

○ 다원예술의 쟁점과 과제 요약

- 기존 예술지원 제도에서 나오는 문제점 및 다원예술 분야의 쟁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됨

쟁점	문제 제기 내용	과제
다원예술의 명칭과 개념	미형성 영역으로, 정의 모호함	- 지원의 융통성과 변화를 전제로 한 정책적 목표를 바탕으로 개념 설정
	다원예술 명칭에 대한 찬반 존재	- 축적된 비평을 통한 명칭 개발 필요 - 개념의 개방성을 유지하되 명칭변화의 시기에 대한 계획 마련 및 합의필요 - 관습적 관용적 이해를 경계하면서도 일반인 및 활동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 발굴 필요
지원영역 (지원대상)	장르중심, 탈장르, 매체실험, 소통방식 등 실험추구	- 장르와 매체실험이 일정한 성장을 거둔 뒤 기존 장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발
	새로운 예술주체	- 기존의 관습화된 예술주체 형성을 벗어난 새로운 주체 형성의 장을 개발 - 전문/비전문 이분법을 탈피하는 예술주체 발굴 - 매개자, 예술가, 예비작가, 시민교육의 체계화 및 발전 모델 마련
	문화다원주의의 공공성	- 종다양성 차원의 문화다원주의, 다민족사회 사회통합 차원의 다문화주의, 소수주변부문화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다원주의 문화 등 세 차원을 지원정책에 반영
기존 장르중심의 지원제도		- 목표지향적 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공문화 - 목표지향적 지원체제 하 평가체제를 마련
결과물 중심의 지원관행		- 심의와 평가의 객관화가 실적위주 지원구조를 강화하므로, 대안적 평가 및 매년 심의 전 심의기준 제고장치 마련 - 연구 및 연수, 세미나, 사후지원, 발굴지원, 수시지원 등 지원방식 다변화
지원방식의 유연성 문제	공모방식에 한정함	- 발굴지원 및 기획사업 비중 강화
	지원내용의 협소함	- 지원금 외 교육, 발표기회, 연수 등 지원내용 다변화 필요
심의와 평가 필요성	심의방식	- 인터뷰심의, 심의 전문성 제고연구 등 필요
	평가체계	- 평가체계 개발 및 목표에 따른 평가원칙

2. 지원제도 개선안

1) 다원예술 개념

(1) 접근방식

- 다원예술은 미학적 장르 개념이 아닌, 지원정책상 대상의 설정임
- 미학적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원예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 상 개념의 설정과 이에 명확한 공지가 필요함
- 제원제도상 다원예술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보다, 지원대상의 유형을 나누어 예술계와 사회구성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적임.²⁴⁾ 즉, 다원예술의 양상을 분류하여 지원영역을 정하고, 이를 예시하여 공지하는 소통이 중요함
- 다원예술은 다양한 유형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구성적 정의가 현실적임

(2) 명칭의 문제

- 다원예술의 명칭이 다양한 현상을 포함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나, 새로운 예술현상의 핵심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문제 제기
- 예술계 및 사회구성원과의 원활한 이해와 소통을 위한 효과적 명칭의 필요성 제기
-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비전과 새로운 개념의 설정에 따라, 적합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도 제기됨
- 다원예술이라는 명칭과 현재의 다원예술 활동양상이 지닌 시대적 한계를 전제하고, 차후의 명칭 변화가능성 확인
- 현재의 다원예술 명칭은 예술의 정의와 변화양상을 포괄하는 문제적 명칭, 미래의 예술과 새로운 예술의 부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문제적 명칭으로 기능하도록 함²⁵⁾

24) 현재 다원예술 분야의 양상들 사이에 다원예술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공통분모가 있는가, 아니면 다원예술이라고 부르는 현상들 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아니라 몇 가지 특성들로 묶이는 가족유사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임. 다원예술은 단일성(정체성)에 기초한 정의가 아님

25)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은 포괄성의 의도를 가진 전략적인 선택임. ‘다원예술’이나 ‘문화일반’과 같은 지원영역의 설정은 기존의 장르예술 지원에서 담지 못 하는 가변적이고 부상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담기 위한 완충장치와 같은 기능을 함. 향후 다원예술 내 명증한 양상이 나타나거나 시대적으로 부각되는 쟁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명료한 지원부문으로 분리할 수도 있음. 호주와 캐나다 등의 ‘inter-art’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문을 잘 드러내어 규정함

○ 개념의 변화가능성과 시대성²⁶⁾

- 동시대적(현재적, contemporary) 예술현상, 변화의 진행과정에 있는 예술양상으로 다원예술에 접근함
- 다원예술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다원예술이라는 개념 역시 시대성 및 시대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봄
- 21세기 전후 예술환경 변화의 산물로, 어느 시기까지 이 개념이 유효할까 하는 차원의 추정 필요함
- 시대적 변화에서 나온 지원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집합적 개념에 머물러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원제도 혁신을 위한 실천적 목적의 개념으로 설정함²⁷⁾
- 제도적 목적을 위한 기능적 개념이므로 지원제도의 목적과 예술정책의 목표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함
- 한시적 개념으로, 3년 후 새로운 다원예술 영역과 범주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전제
-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그 개념을 탐구하고 지원영역의 문제를 다루는 과제지향적 개념. 다원예술 분야의 중기전략과 장기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명칭과 개념정의 여부가 달라짐

○ 다원예술 개념

- 이 개념어의 접근은 ①기성예술 관습의 대안적 개념, ②장르예술의 상대적 개념, ③새로운 예술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려는 전략적 개념, ④변화에 유연하고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개방적 개념, 네 가지로 정리함
- 다원예술의 제 양상을 관통하는 개념을 구하기보다는 제 양상의 특징을 드러내는 범주와 유형화의 집합으로 접근해야 함

	제도발전 모색의 적극적 차원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탐색적 차원
문제 설정의 규범적 차원	대안적 개념 새로운 예술활동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	상대적 개념 기존 장르중심의 현대예술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대적 개념
문제 해결의 실용적 차원	전략적 개념 예술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 개념	개방적 개념 변화양상과 이질적 현상을 아우르고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적 개념

26) 다원예술은 제도적 개념인 동시에, 시대적 개념임

27) 이 새로운 개념어는 명확한 범주와 대상을 지칭하기 보다는, 기존 장르 개념에서 포함되지 못한 채 남겨진 것을 거둔다는 점에서 수동적 개념으로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개방적 개념이 되었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예술의 장르적 개념이 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장의 예술실천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반성적 개념으로 항상 열려있는 개념이 된 것임

2) 지원영역과 범주구분

○ 지원영역과 범주설정의 중요성

- 다원예술은 예술의 개념 및 예술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예술실천 현상을 아우르기 위한 명칭임. 즉, 창작주체 변화, 예술의 내용적, 개념적 변화, 예술형식 변화를 포괄 반영하는 명칭임. 이 명칭은 실험예술, 독립예술, 복합예술, 대안예술, 탈장르예술, 비주류 대중예술 등 오늘의 다양한 예술 현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것임
- 이와 같은 현대예술 및 문화의 변화양상으로 볼 때 예술지원제도 내에서 다원예술 지원영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²⁸⁾
- 다원예술의 지원사업 목표를 잘 드러내거나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모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원예술 내의 범주와 유형구분이 중요함

○ 지원영역과 범주설정 방법

방법	개요
범주와 범위의 변화가능성을 상정	- 다원예술이 상대적, 대안적, 전략적, 개방적 개념인 것처럼, 그 범주(내적 분류) 및 범위(외적 경계)를 변화 가능한 것으로 상정해야 함. 지원영역과 하위 범주는 이에 따라 유연하게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지원영역의 유동적 설정	- 내적인 범주변화를 수용하고 이질적 양상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갖기 위해, 확정적 개념보다 유동적, 다원적인 가치체계를 가짐. 다원예술 현상의 범위를 넓히고 안으로 새로운 범주를 나눌 수 있도록 함. 다양성, 공공성, 실험성과 같이 비교적 다의적 의미의 기준 혹은 범주를 두는 것이 그러한 예
지원의 척도를 간소화	- 너무 세부적이고 구분이 많은 척도보다는, 목표가 명확하되 개략적인 척도 및 간소한 분류체계를 가짐. 가치추구와 형식실험으로 지원요건 혹은 평가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그런 예
구체적 수준의 지원요건 마련	- 다원예술 활동의 선정과 지원 시 모집안에 다원예술의 필요조건을 열거하고 지원대상이 이중 지원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구체적 지원요건을 제공해야 함

28) 호주와 캐나다의 'inter-arts'는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따라 지원영역을 발굴하여 예술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 호주의 multi-art(장르융합), new-media art(매체실험), hybris art(예술-사회공동작업)은 명칭과 신개념을 통해 그 주제영역을 잘 전달하며, 캐나다의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장르간 작업(interdisciplinary work), 예술실험(new artistic practices) 등은 지원목표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함. 영국의 혼성장르 예술(combined art)와 타분야 연계예술(interdisciplinary art) 등도 명칭에서 지원목표를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을 씀

○ 지원기준

- 공공성, 다양성의 가치와 매체장르의 실험의 두 가지 **지원**척도를 가짐

지원기준	기본 범주	예술의 맥락
가치추구	사회개선의 가치전달(공공성의 가치)	메시지에 중점을 두는 다원예술 활동 (내용미학의 전통)
	다문화적 가치전달(다양성의 가치)	
형식실험	매체실험과 탈장르, 융복합	미디어에 중점을 두는 다원예술 활동 (형식미학의 전통)
	소통방식과 과정실험	

○ 지원영역의 설정

- 절대적 개념보다는 시대적 개념, 실천하는 존재들의 문제의식에 따라 설정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추구한 바에 따라 다원예술의 범주가 설정될 수 있음²⁹⁾³⁰⁾

지향하는 가치 ³¹⁾	지원 범주
예술의 공공성	- 공적 가치와 공동체 소통에 기여하는 예술활동 (사회적 예술, 시민문화, 문화행동 등)
문화의 다양성	- 문화다원주의적 가치, 다문화주의 및 문화적 종다양성 추구하는 예술활동(예술지상주의에서 문화주의로 이동 추세)
실험성	- 장르의 실험 등 예술형식 측면(21세기 현대예술의 변화)

29) 이 개념은 다원소위 혁신방안에 명시된 바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중심을 갖는다.
①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 활동(탈장르, 복합장르, 실험예술의 지향) ②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활동(문화적 다원주의, 예술 활동의 공공성 지향) ③ 비 상업적이고 비주류적인 예술 활동(인디예술, 대안예술 지향)

30) 예술의 공공성, 문화의 다양성 추구라든지 새로운 실험성 등은 다원예술 뿐 아니라 기성 장르예술 및 예술술계 일반에서도 다루는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기성 장르예술이 창작의 수월성을 주로 지향하는 가치로 놓고 예술지원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원예술 분야가 실험성, 문화의 다양성, 공공성을 다루는 것은 고유한 영역을 마련하고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이는 기성 장르예술 지원제도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상대적 개념과 연결된 가치라고 하겠음

31)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평가척도 및 사업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선정

○ 공모안의 개선 -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른 지원방식

지원제도의 기본취지와 가치	현대예술의 변화양상
대안적 매체, 소통의 실험성	- 예술의 탈물질화
예술의 공공성	- 공동체 기반의 예술
문화의 다양성	- 예술의 다문화주의

- 공모안에 비전과 지원목표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지함
- 취지를 알리되, 다원예술 개념과 선정기준을 크게 열어두는 방식임
- 다양한 방식으로 다원예술 해석하는 지원자들에 의해 경향과 양상 파악
- 1,2년 동안 창작자 욕구, 예술계 경향 이해 위해 제한적으로 유효한 접근
- 공모에서 선정, 현장진단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원사업 전 과정 속에서 다원예술의 개념과 범주영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특히 심의 선정자, 평가자의 다원예술 개념 숙지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함³²⁾

○ 지원 시 자격조건 개선 - 다수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정방식

- 다음은 전년도 지원결과를 분류하여 다원예술 양상을 나열한 한 예
- 이상과 같이 수년간 지원 사례 분류하여 유형들 중 5가지 범주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예술 : 예술매체에 대한 형식적, 미학적 실험 □ 복합예술 : 예술매체의 복합, 장르간 융합의 실험, 탈 장르 등 □ 대안적 소통 : 창조과정, 수용방식 등 실험보다 소통의 효과의 중점 □ 공동체예술 : 문화운동, 지역문화 공동체, 예술-사회, 예술-주민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과정 □ 사회적 예술 : 예술형식, 수용관계 등에서 사회현실 참여와 비판을 통해서 대안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도 □ 시민문화 프로그램 : 시민의 문화적 참여, 문화향수 환경을 변화하는 목적의 예술창작활동의 시도들 □ 문화행동 :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성격의 예술적 수단창조 □ 여 장르 : 기존 장르예술 지원에서 소화되지 않는 예술 □ 준 복합 : 부분적으로 타 장르를 활용하지만 하나의 장르 속성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예술

32) 지원 시 제시할 기준으로서는 다원예술의 개념정의, 선정기준과 지원요건 등임. 또 현장진단의 체크리스트, 평가원칙과 항목도 공지하는 것이 좋음. 현장진단과 평가자에게도 이상이 제시되어야 함

- 지원신청서에 기존활동 사례를 예시하고 5개의 활동유형 범주를 제공함
- 이상의 5가지 중 3가지를 체크하여 충족하는 방식의 요건구비 과정³³⁾

- ☒ 뉴미디어 활용 등 매체실험, 장르융합 혹은 탈장르 예술
☐ 둘 혹은 여러 장르 예술가들이 모여 만드는 공동 프로젝트
☐ 수용환경의 변화를 모색하거나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예술실험
☒ 소수문화, 문화다양성, 대안문화 등을 의도하는 지속적 커뮤니티활동
☒ 예술의 공공성, 문화적 다양성을 표방하는 가치지향적 예술
☒ 기타 (: 별첨서류 3 작성)

- * ‘예술의 공공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문화적 다양성’의 예시는 17쪽 참조
- * 세 번째 항목의 예는 아르코 자료실 2006년도 사업평가에 있음

○ 심의선정 기준 및 평가기준 개선 - 가치/형식의 양 요소 평가방식

가치 \ 형식	장르실험, 매체의 실험 (대안적 매체와 창작결과물, 표현방식의 확장)	매개방식, 소통과정 실험 (과정 중심의 예술창작 전달방식의 실험)
사회참여 (문화행동, 현실비판, 다양성과 공공성)		
시민참여 (수용자참여, 시민소통, 문화예술 환경변화)		

- 다원예술의 문제의식과 목표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범주구분
- 모집과 지원 시, 가치와 실험성 등 다원예술 지원취지와 선정기준 명기
- 다양성·공공성 등 가치와 매체·장르의 실험의 두 척도로 일관적 평가
- 형식실험과 대안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을 모형으로 삼음^{34) 35)}

33) 지원신청 시 다원예술의 제시된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기존의 원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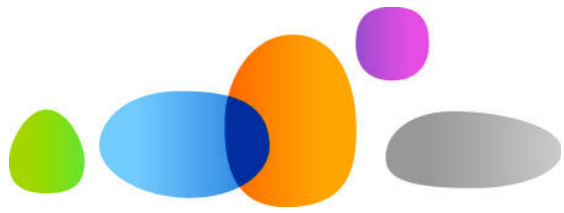
34) 예술활동이 사회적 가치의 소통과 매체형식 실험의 양 측면(예술의 내용과 예술의 형식)이 균형을 갖는 것을 건강한 것으로 전제함

35) 다원예술의 가치와 형식 차원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가, 그 중 하나를 선택사항으로 하는가. 전자는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배타적 접근으로, 다원예술 지원 정교한 수준을 제시하고 엄선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임. 후자는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여러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고 말 그대로 다원적 예술활동에 기회를 개방하는 것임. 양자가 추구하는 다원예술 진흥의 목표는 다르다. 현재로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이 확산된 후, 3년후 전자의 방식을 취하는

○ 지원방식의 개선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³⁶⁾

과제	제안 요지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이원화(지원영역 변화양상 수용)	- 장르실험, 복합예술 등 일정하게 형성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새로운 예술의 발굴과 개척을 위해 합의 도출된 정책적 지원대상을 마련하여 구분 지원함
다원예술 일반의 공모사업 진행, 심의, 평가 개선(지원대상)	- 공모단계에서 지원목표와 지원자격을 명료하게 전달함 심의와 평가체제를 확립하여 공모자부터 평가자까지 일치된 지원기준을 갖도록 함
중점사업, 기획사업, 발굴사업	- 기획사업 및 발굴사업의 기획 후 공개워크숍 통해 안을 다듬어 사업추진 후 평가함 - 자체운영사업 및 특화사업 등을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 직접지원 사업의 한계를 극복함
기존 지원제도의 유연화	- 사례발굴지원, 사후지원 - 수시지원, 비공모 계기성 지원 - 장학연구 제도 및 다년지원제도
다원예술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의 변화	- 신진예술가 지원 - 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 리프레시먼트 - 결과 아닌 과정 지원 - 단체보다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 - 매개자 지원 - 향유자 그룹의 지원
기록, 비평, 연구의 활성화	- 지원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 - 다원예술 비평토대의 구축 - 지속적인 연구사업의 추진

것이 바람직함
36) 구체적 내용은 부록4. 지원제도개선안 참조.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V. 다원예술 정책발전방안

V. 다원예술정책 발전방안

1. 다원예술 활성화와 소위원회의 미션

1) 다원예술 지원정책 개념도

-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예술이 작가 개인의 창작활동이라는 관념과 결과물 산출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작품지원의 개념을 넘어서야 함
 - 이에 따라 다원예술의 지원정책은, ①아이디어의 발현 ②창작과정 ③제작과 실현 ④소통과 확산 등 예술 창작의 전 과정을 다루어야 함
 - 또한 아티스트에 대한 창작지원만이 아니라 다원예술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촉진과 매개의 관계를 포함해야 함
- 지원정책은 통합성과 순환성 두 가지를 충족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함

수준	지원부문 ³⁷⁾	정책사업 예시
4	확산 (Diff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을 대상으로 한 향수와 보급 프로젝트 ◦ 평론가 그룹 개발 및 미디어 개발 ◦ 홍보기능을 가진 페어 및 축제의 마련
3	발표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주제의 기획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지원 ◦ 복합장르 축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새로운 공간의 발굴
2	창작 (Cre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창작 단계에 대한 지원 ◦ 계기적 지원 및 상시지원의 필요성 ◦ 실험적 연구, 기획,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1	기반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을 지원,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매개공간 설립 ◦ 창작자뿐 아니라 매개자 교육 ◦ 현장조사, 정책연구

37) 현재 다원예술 지원은 수준2의 직접지원이 대부분이고 수준3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음. 결과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현재의 지원제도는 수준2 안에서도 창작단계 지원이나 실험적 연구, 기획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수준3에서 몇몇 축제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시적인 발표공간이나 활동공간 등은 매우 시급한 사업임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수준3의 발표사업은 다원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현재의 단계에서 필수적임. 다원예술 소위원회를 비롯한 포럼에서는 수준1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수준4의 다원예술 확산을 통한 활성화모색 역시 시급한 과제로 언급됨

- 통합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상의 네 수준을 갖추어야 함.
다원예술 지원정책은 창작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기반마련, 다원예술 진흥을 위한 발표, 관객확산을 통한 활성화 등 네 가지 수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순환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피드백 구조가 필요함. 이는 ①기획단계에서 평가계획과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②지원사업 후 정보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 것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며, 이에 있어서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기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정책의 설정 - 지원제도의 점검, 보완 - 연간 지원사업의 기획 	전략과 사업의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성과 예측 및 실패율 확인 - 사업발전 시나리오 준비 - 사업목적에 맞는 평가계획의 마련 - 차년도 계획 준비 및 중장기 계획 확인 	미래행동 예측 및 대처계획

□□ □□

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 사업(창작활동, 매개활동, 교류협동, 연수교육 등) - 간접지원 사업(교육기회, 정보화 및 정보제공, 홍보추진을 통한 지원, 창작공간 제공, 매개공간 마련 및 교류와 발표장으로서의 축제 조성 등) 	지원 ·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지원 사업(지원대상자의 연구와 세미나, 출판과 홍보활동, 조사연구 활동, 공동작업에 대한 지원, 연대와 소통을 위한 축제행사 지원) - 발굴지원 사업(장학사업, 연수지원, 연구지원, 출판 정보화 등 형태로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조사발굴하여 지원) 	지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특화사업(조사연구, 발표행사, 공간조성, 교류협력 사업 등 중단기 사업목표에 따른 목적형 사업) - 자체 운영사업(포럼과 워크숍, 교육사업, 출판미디어화, 현장진단 등 지원제도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사업) 	기획사업

□□ □□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자료수집을 통한 성과의 정보화 - 조사, 현장진단을 통한 정책과 전략 마련 	자료와 평가의 사업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통한 제도보완 - 연구를 통한 사업기획 	향후 전략 및 기획에 적용

2) 지원목표의 설정

○ 다원예술의 가치와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전망³⁸⁾

- 수년에 걸쳐 관련 활동가 집단을 중심으로 제기된 담론을 근거로,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제시한 다원예술의 가치체계는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임

다원예술 분야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적 실험성 ◦ 예술주체의 다양성 ◦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
다원예술 분야의 정책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의 다중심적 지원 네트워크 구성 ◦ 다원적 예술주체 발굴 및 자율적 토대 구축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 및 연계망 구축

○ 지원목적의 명시와 구체적 목표의 설정

다원예술 정책 궁극의 목적- 예술계 전반의 창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통해 예술장(장르, 예술제도, 예술가치, 미학 등)의 다양성과 실험성이 증대됨으로써 예술계 전반에 창조력이 고양되는 발전 효과를 줌



다원예술 지원의 기본목표- 다원예술의 자생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예술에서처럼 예술의 수월성을 추구하기보다, 전형적인 예술매체 및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예술의 창조성을 증진함 ◦ 이를 위해 다원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와 미학 측면에서 예술의 실험성이 성장하는 자율적 토대를 마련 - 예술의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런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를 형성 - 다양성 있는 소수주변부 문화가 꾸준히 생성될 수 있는 예술계 자생력 확보 ◦ 다원예술 활동장을 형성



다원예술 지원의 우선목표2 - 다원예술 활성화³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꾸준히 생성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수준1의 확립),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확산과 참여를 촉진함 (수준4의 강화) ◦ 확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촉진사업

38) 전망(Vision)은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정책적 성장목표와 발전방향을 정하면서 그 상위 개념으로 외부에 제시하는 것임. 한편, 다원예술이 지향하는 가치(Value)는 다원예술계에서 형성되어 다원예술 소위원회 뿐 아니라 그 활동장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이 내면화할 수 있는 것을 취해야 함. 비전과 미션은 회사 내부에서 결정되지만 가치는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고객에 의해 결정됨

- 다원예술 활동층의 확산과 다원예술 활동의 대중화
- 기반확보
 - 다원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 다원예술 창작자와 활동가 네트워크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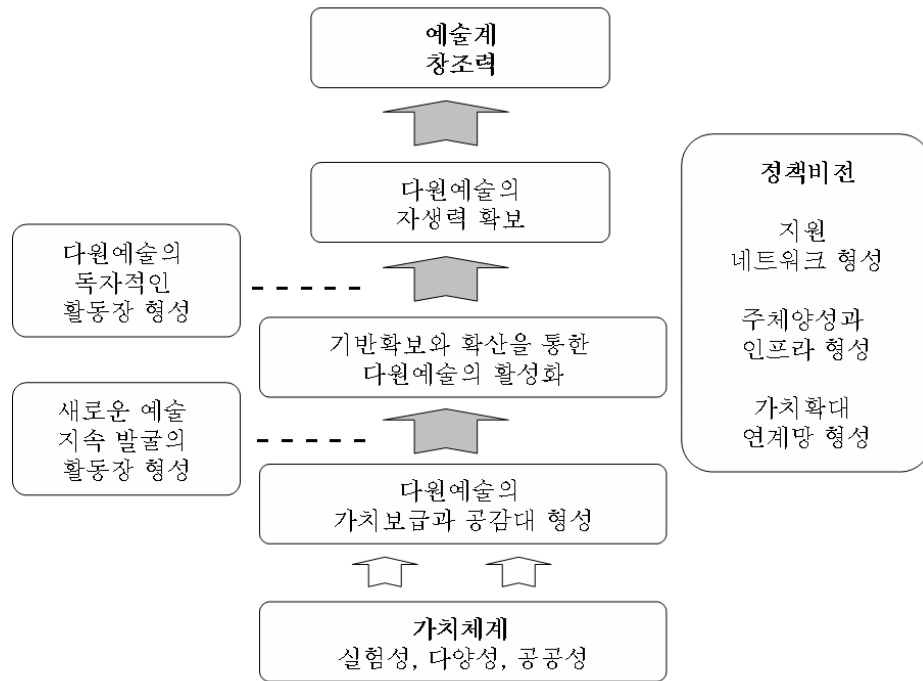


다원예술 지원의 우선목표1 - 다원예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다원예술의 기반구축과 홍보확산 활동 이전에, 다원예술의 가치에 대한 예술계와 사회적 공감대, 지원제도 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함
- 예술계 공감대 확산
 - 다원예술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기획사업을 통한 비전의 보급
 - 담론창출, 조사연구와 비평축진을 통한 가치확산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다원예술의 이해와 관련된 시민대상 향유기회, 교육활동, 정보제공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출판 및 미디어사업

39) 다원예술 활동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장으로 이를 향유하는 대중기반이 허약하지만 실험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와 예술의 다양성 촉진이라는 점이 현재 다원예술 활동의 근거임. 하지만 실험의 예술적 가치와 소수자의 가치를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중이 형성되고 주체가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다원예술 활동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지원제도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홍보확산과 제작기반 등 지원하는 다원예술 활성화 목표사업이 중요한 관건이 됨

○ 비전과 목표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음



○ 문제점의 조사와 과제도출을 통해 단기 개선목표를 확인해야 함^{40) 41)}

개념과 지원영역의 탄력성	다원예술의 개념을 유연하고 변화가능하게 지원제도에 적용하고, 지원영역의 변화에 대한 향후 정책을 확정함
지원제도의 유연성	지원방식과 지원대상에 있어, 다원예술의 특징에 맞는 지원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함
운영시스템의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다원예술의 개념은 열려 있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원체계는 더욱 명확하고, 그 기준은 구체적이며, 선정 및 평가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이 요구됨
지원 프로세스의 통합성과 순환성	지원기준과 선정원칙, 평가체계를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기획의 피드백을 받음

40) 이하가 향후 2년의 지원제도 개선목표가 되어야 함

41) 지원정책 발전방안은 본문 내용 이외에도 부록7. 다원예술 발전 방안 추가 제언에서 ‘자생력’ ‘활동장’ ‘운영시스템’ ‘지원프로세스’ ‘지원관리’ 등의 항목을 보충해서 다루고 있음

3)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미션⁴²⁾

-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예술 발굴
 - 다원예술은 새로운 예술활동을 발굴 진작하기 위한 지원영역임. 따라서 기존의 관습적 예술장(예술제도, 장르, 예술주체, 예술가치, 미학 등)의 틀을 뛰어넘는 지원제도의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다원예술 소위원회는 정책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의 기획과 지원제도의 실행을 추진해야 함
- 다원예술 소위원회 개선사항
 - 다원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향후 설정하는 정책비전에 따라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구체적 사명을 정하고, 이를 소위원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시급함
 -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미션을 분명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소위원회의 미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예술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예술활동에 주목하며 이러한 활동의 새로운 예술가치를 정책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연구 활동을 유지해야 함
- 탈장르, 복합장르적 시도를 격려하고 예술가들 간의 교류와 다양한 창조적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예술계의 장르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려는 젊은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대중들의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가치를 지지하고 그들의 창조적 열망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결과 중심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잠재적 역량과 미래적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현장과 항시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와 변화,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탄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함

42) 비전(Vision)은 다원예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대표성을 가진 다원예술 소위원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이라는 차원의 전망이고, 미션(Mission)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다원예술 소위원회 구성원들에 의해 내면화된 사명임

2. 중장기 발전방안

1) 과제와 우선사업의 설정

○ 중장기적 관점에서 취해야 할 과제와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구분		중장기 과제 및 주요사업들
주요 문제와 쟁점	개념 문제와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위한 개념설정 - 개념의 탄력적 재설정 원칙 및 계획 수립 - 시민 이해 원활한 명칭사용 - 비평 통해 형성한 명칭 합의
	다원예술 지원 영역과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매체 실험의 적절한 지원방식 강구 -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의 형성 사업 - 문화다원주의 부문 지원강화 및 지원사업 다양성, 균형지원
	지원방식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된 공모방식 극복 - 지원금 외 지원내용 다변화
	심의평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특성에 맞는 심의방식 개선 - 지원목적에 맞는 평가체계 확립
운영 개선	지원정책 문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목표성 지원사업으로 - 결과물 중심의 지원관행을 넘어서는 지원방식으로
	운영 체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성을 가진 지원시스템 마련 - 순환성을 가진 지원프로세스 보완
	기존제도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개방적, 상대적, 전략적, 대안적 개념에 맞는 영역 탄력성) - 지원방식(수시지원, 사후지원, 발굴지원 등 선정의 탄력성 마련)
자원관리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자원 축적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자원 축적 - 재원확보를 통한 자생적 지원구조 추구
우선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가치보급 및 공감대 형성(가치공감대 형성의 우선목표) - 다원예술 홍보 및 활성화사업(확산활동의 목표에 따름) - 유형 및 무형인프라 조성(기반조성의 목표에 따름)
기본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지원과 직접지원의 균형 - 지원목적에 적합한 기획사업 확대 - 창작을 위한 환경지원과 매개보급 환경의 지원 - 민간파트너, 기업 스폰서십 및 독자재원 확보 (이상 자생력 증대 목표에 따름)

○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다음을 도출함⁴³⁾

구분	내용	성격	
주요 핵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티스트 대상의 다원예술 가치 및 공감대형성 - 시민 대상의 공감대 형성 및 가치보급 	가치 공감대 형성	비전과 목표설정 에 따른 우선순 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활동을 비롯한 확산사업 - 인프라 및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기반형성 	기반조성과 확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파트너를 통한 자생력 확보 - 기업스폰서 등 다각적 재원확보 	자생력과 독자적 재원조성	
당면과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개념설정, 연구 통한 재설정 계획 - 지원방식과 지원대상의 탄력성 유지 계획 -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는 활동장 기능설정 계획 	열린 개념과 영역 정책수립	향후 2년간 시급개 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과 확산 목표에 맞는 전략적 기획사업 운영 - 자생력 확보 목표에 맞는 간접지원 사업 확대 	직접지원의 한계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방식 개선 및 평가체제 확립 - 통합적 시스템과 순환적 프로세스 마련 	지원운영체제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활동을 구체적 제시하는 발표사업 - 다원예술 가치를 현실화하는 기획사업, 중점사업 - 가치를 구체화하는 담론창출 활동 	다원예술 비전 현실화 및 구체화	
중점 사업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 주체형성 위한 교육, 포럼 등 인력양성 - 조사연구, 진단평가, 기록평론 등 지식축적 사업 - 교류와 협력 촉진사업 통한 인적 인프라 확장 - 자발적 학습커뮤니티 통한 정보네트워킹 활성화 	인적네트워크, 정보네트워크	중기 계획 차원의 선택과 집중영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의 탄력성 확보 - 지원제도 목적에 맞는 지원방식의 탄력성 유지 	지원영역과 선정제도 유연화	

43) 사업의 중요도는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정한 비전과 목표에 따라 설정해야 함. 사업의 시급성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제와 쟁점을 통해 도출된 과제 중에서 선정함

-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주요 핵심사업은 향후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설정한 비전과 목표에 따라 정해야 하며, 이 사업내용은 한정된 시간과 재원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소위원회가 일치된 인식을 가져야 함
- 당면과제 사업은 현재의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는 개선사항을 통해 도출해야 하며, 이는 시급성을 가진 사업으로 가능한 단기발전 계획에서 다루어야 함
- 중장기발전계획 중, 단기개선 과제를 넘어서는 중기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사업을 기획해야 함. 이는 별도의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예산, 인력, 시간을 투자하는 선택적 집중사업으로 다루어야 함

2) 중장기 발전방향

○ 중장기 발전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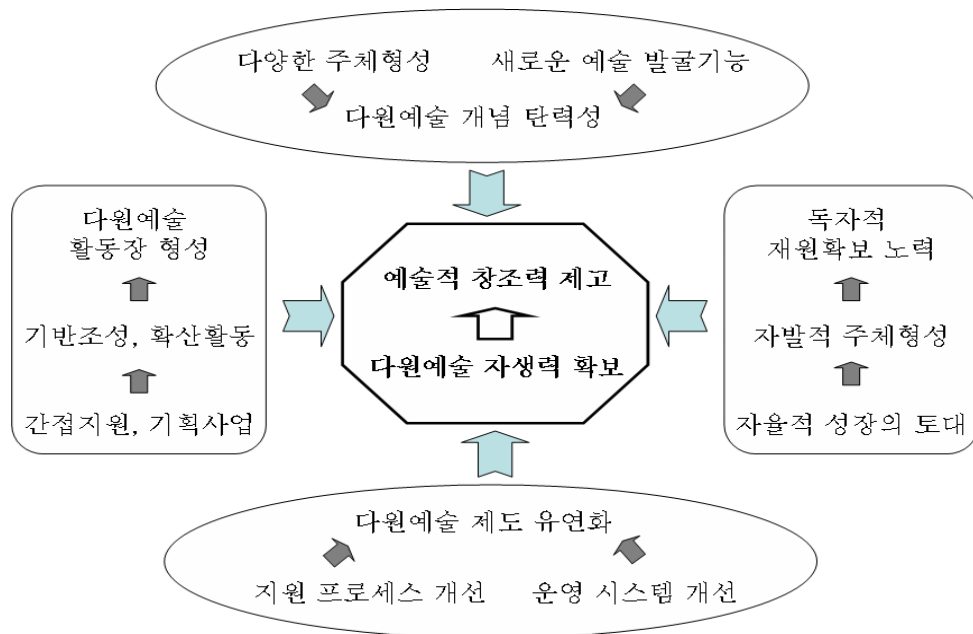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활동장의 주도적 확대를 소위원회 정책방향으로 택함 ◦ 지원제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체형성을 추구함
-----------	--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매체 실험, 예술의 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 등 다양한 주체형성을 통하여 예술 창조성 제고에 이바지함 ◦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다원예술의 자율적인 활동장을 성립하며, 다원 예술이 공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자생력을 확보함 ◦ 향후에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다원예술 개념을 탄력적으로 재설정하며, 지속적으로 틈새와 비주류, 부상하는 예술활동을 찾아서 발굴하는 기능으로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방향을 취함 ◦ 장르중심, 결과물 중심의 기존 예술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고정된 지원대상 및 협소한 지원방식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유연화 함
기본 방침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성, 공공성, 다양성 부문에서 가치의 조화 및 균형지원 ◦ 확산, 발표, 창작, 기반 등 지원제도의 각 부문에 지원의 균형분배 ◦ 자생력 제고를 위해 창작환경, 정보제공 등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간접지원 우선추진 ◦ 새롭게 부상하는 예술활동을 개척하고 탐색하기 위한 연구와 평론지원을 지속화 ◦ 목표에 따라 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시스템 ◦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는 지원프로세스 ◦ 다원예술의 지원영역과 지원방식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와 기획 ◦ 기획사업 및 적절한 자체운영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목표를 추구하도록 함

주요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론, 연구, 조사, 평가 등 4대 지식축적 방안 ◦ 매개자, 아티스트, 시민 등 3부문 교육사업 통해 인력양성 집중 ◦ 창작공간 지원, 매개공간 조성, 학습커뮤니티, 정보네트워킹의 자생력 강화와 활동장 형성을 돕는 주요 인프라 구축 ◦ 홍보촉진사업, 축제, 출판, 포럼 등 다원예술 보급 확산프로젝트 ◦ 기업스폰서 매칭, 기부와 모금사업, 민간파트너 육성 등 재원확보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함 ◦ 발굴지원, 기획사업, 중점사업 등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 차원의 자체운영 사업을 활성화함
-------------------------	--

44) 중장기 발전의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운영원칙에 해당함

○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의 개념도를 그리면 아래와 같음



○ 중장기 성장목표와 계획

- 비전과 목표에 따른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성장단계를 구성함

구분	사업내용 및 계획
단기 (2006-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의 공감대 및 비전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예술형식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보급사업 - 연구, 평론의 지원과 발굴 ◦기반조성 및 확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형 인프라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 다원예술 홍보 및 확산활동 주력 ◦다원예술 특성과 이의 전망 잘 보여주는 발굴사업, 기획사업
중기 (2009-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장 마련 및 다원예술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제공, 출판 등 통해 정보네트워크 구축 - 세미나, 토론회, 교류협력 사업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워크숍, 포럼, 교육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 현장진단, 평가, 조사연구를 통한 지식축적 및 이의 보급 - 유형 인프라를 활용한 자생적 사업모집 및 발굴 ◦다원예술 분야의 자생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적 커뮤니티, 사업별 네트워킹 등 자율적 토대구축 - 주체형성 사업 - 간접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여건 마련
장기 (2012-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예술 및 예술일반을 위한 창조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개념과 한국 다원예술 활동사(미학사)

3) 중기발전 계획

○ 다원예술 지원제도 차원의 중기발전 계획(2007 -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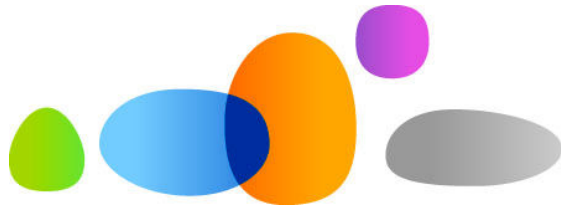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다원예술의 개념 및 영역조정	제도적으로 열린 개념의 유지 및 연구를 통한 양상파악	실험예술지원을 특화, 다원예술이 일반과를 구분 지원함	독립예술분야와 균형이루는 여타의 다공성과 분야 집중육성	지원제도 자체의 혁신 차원에서 개념 재조정	
다원 예술의 명칭	명칭에 대한 의견수집	일반인 이해 쉬운 홍보 차원의 개념점검	비평적 개념의 연구 착수	비평의 축적 및 자생적 논의 통한 다원예술 명칭과 개념 확립	
다원 예술에 적합한 운영 시스템 설정	열린 개념에 맞는 지원프로세스 정리 (공모, 선정, 지원, 평가), 2008년 대비	간접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의 다각화	(교육, 연구, 정보화, 홍보, 인프라 등) 입체적 지원시스템 확립	개념의 조정 및 지원체제 보완	네트워킹, 자발적 커뮤니티 등 무형인프라 중심의 자생적 활동장 형성
지원시스템 구성 계획	시스템 정비 주요인프라 조성계획	인프라사업 집중지원 주체형성		우수 프로그램 발굴 활동가 발굴 사례, 인력 아카이브	
공적지원 의존과 직접지원 위주의 구조개선	전략적 기획 사업 집중	인프라 조성 및 교육 투증 연구에 입재원 가계획	기업 스폰서 확보 노력 및 매칭 사업	기부모금 프로그램 본격화	민간파트너 통한 재원 조성 정책 및 이의 계획 수립
지원제도 관련 쟁점의 개선계획	심의방식 개선 평가방식 개선 (일관성과 피드백 구조)		지원방식의 유연성 및 다원예술 개념에 따른 지원대상의 탄력성 확보		기존 장르 중심 지원 구조와 결 과물 중심 지원관행의 구조적 혁신

○ 지원정책 수립, 개선, 확립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 주요 계획

연도	주요사업	발전단계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 활동개시(다원예술의 비전과 쟁점) - 월례포럼(쟁점수집, 수요와 실태조사) - 기본연구(정책수립 기초연구, 지원제도 개선모색) 	의제 설정	문 제 제 기 단 계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기획사업 및 사업효과 분석 - 인프라 공간 및 정보 시스템 조성 -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조사 및 연구 	의사 결정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척사업 집중지원 - 주체형성 사업 주력- 교육, 장학제도, 연구지원 등 - 홍보체제 확립 및 시민대상 다원예술향유 사업 - 스폰서십 및 매칭사업 - 다원예술의 일반보급, 이해, 소통을 위한 개념 점검 - 다원예술 지원정책 재수립 및 발표 	단 계 로 이 어 는 조 변 화 과 정	문 제 해 결 과 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에 대한 미학적, 비평적 연구 강화 및 출판 - 기부모금 프로그램 본격화 - 공공성, 다양성 등 가치 중심 사업 집중지원구조 마련 - 다원예술 개념, 지원영역 조정 및 지원제도 혁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로그램 및 활동가 발굴, 정보화, 홍보 - 다양한 틈새, 새로운 예술 발굴기능으로서 지원제도 확립 - 장르중심 지원과 결과물 중심 지원구조 혁신 - 10년 중장기발전계획 확립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커뮤니티, 네트워킹 사업 등 자생적인 활동환경 - 민간파트너 론칭 - 다원예술 명칭 및 예술사, 미학적 차원의 비전제시 		

○ 운영과 기획을 중심으로 본 4단계의 중기 로드맵

구 분	1단계 시스템 정립	2단계 인프라조성	3단계 주체형성	4단계 프로그램발굴
목 표	발표사업, 담론창출 및 기획사업(가치 및 공감대형성)		기반조성, 확산 사업(다원예술 활성화)	다원예술 활동장 창출 (자생력 확보)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도 탄력성 - 운영체제 확립 - 지원프로세스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인프라 - 정보네트워크 - 인적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워크숍 - 세미나, 포럼 - 장학,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 미학연구 - 명칭개념 확립 - 기부모금 사업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연구 추진 - 핵심적 기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공간구성 - 인큐베이팅 - 온라인공간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활동지원 - 학습커뮤니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연구 - 다양한 사례발굴 - 우수활동가 발굴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Ⅵ. 결 론

VI. 결 론

1. 지원전략 및 사업제안

1) 향후 2년간 주요사업

-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권고사항
 - 다원예술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에 대한 요청이 내부에서 제기되었으며, 소위원회 임기 후 전환기의 운영공백을 피할 수 있어야 함이 지적되었음
 -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에 있어서는 예술위 전체 지원제도의 변화보다 주도적으로 다원예술 소위원회 내에서의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반드시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

권고사항	개요
사업의 장기성을 도모해야 함	다원예술 소위원회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사업추진을 해야 함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함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원이 임기가 만료하여 교체되더라도, 신임 소위원회는 전임 소위원회의가 발전시킨 목표와 방향에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년도 사업내용 및 평가와 연계성을 갖고 소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다원예술 소위원회 주도의 지원제도 개선노력이 요청됨	장르중심의 지원구조, 결과물 중심의 지원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술위 전체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비전확립, 합리적인 지원프로세스 마련과 심사체제 개혁 등을 통해 일정한 개선이 가능하므로 다원예술 소위원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우선 실행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필요함
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영역 설정정책의 정립이 필요함	다원예술의 영역에 있어 포괄적 개념을 택할 것인가 배타적 개념을 택할 것인가와 같은 개념정립과 지원범주의 문제는 다원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를 받아줄 타 장르 지원제도가 함께 영역을 조정해야 가능한 문제임. 하지만 우선적으로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한시적 계획과 장기적 계획의 구분

구분	주요 사업내용과 계획
한시적 계획 (2008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2년간 주요계획 - 전략적 기획사업에 집중 - 직접지원 대비 간접지원의 비중 증대 - 개념과 영역에 대한 연구 - 심의 및 평가시스템, 프로세스 합리화
장기적 계획 (2015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 10년간 장기발전 과제 - 다원예술 활동장 및 성과축적 - 국제적 연대활동 - 독자적 기부, 모금 등 독립적 재원확보 - 스폰서기업 유치프로그램 - 민간단체 파트너 조성

○ 향후 2년간 실행목표

실행목표		내용
다원예술 공감대 형성과 가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평론은 아티스트 공감대 창출/교육세미나는 시민사회 접촉과 확산 - 사업을 피드백 활성화하는 조사연구 사업(활동주체 조사,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에세이발간 우선과제임) - 다원예술 활동을 구체적 제시하는 발표사업 - 다원예술 가치를 현실화하는 기획사업, 중점사업 - 가치를 구체화하는 담론창출 활동
다원예술 활성화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공간 조성 - 창작공간 대여 및 소개 - 정보제공 시스템 및 자료실 - 창작자 커뮤니티 및 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확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및 체험학습 기회마련 - 수용자와 아티스트 접점마련 행사 - 홍보사업 - 축제, 발표의 장 등 촉진활동

○ 향후 2년간 주요 사업계획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중단기 목표사업

연도	개념과 영역(지원대상)	지원시스템 확립(지원방식)	전략적 기획사업
2007	개방적, 상대적, 전략적, 대안적 개념에 맞는 다원 예술 양상의 파악 및 지원사업의 기준 분류 ⁴⁵⁾	지원체제 확립 - 공모/심사 단계 - 선정/진단 단계 - 평가/전략 단계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사업 - 기반/확산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아이템
2008	수시지원 사후지원 발굴지원	소통/보급/향유- 홍보촉진 창작/매개/수용- 유통정책	모금/분배- 기부정책사업 준비

2) 기획사업의 제안

○ 전략적 기획사업의 필요성⁴⁶⁾

- 다원예술 활성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전략적 장의 창출이 필요함. 이를 위해 다원예술사업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전략적 기획사업에 투입할 필요성이 큼
- 다원예술 소위원회와 연구진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함. 지원확대의 타당성 여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 다원예술 내 비주류 부문에 대한 집중지원 등 논쟁적 의견이 나올 수 있음
- 한정된 예산으로 다원예술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적,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이의 추진과 내용을 기획할 수 있음

○ 자원의 효과적 배분전략

- 문예진흥기금을 쓰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보다 큰 지원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음.⁴⁷⁾ 따라서 단기적으로 가치공감대를 마련하고 다원예술 활성화 토대를 형성하고자 현 단계에서 전략적 기획사업 하는 것이 나옴⁴⁸⁾

45) 개념의 설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개념을 재논의하기보다는 열린 개념에 맞는 지원프로세스의 마련 및 전략적 차원의 기획사업을 실천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주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시도한 후 개념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46) 향후 2년의 다원예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운영제도의 본격적인 개선보다, 다원예술의 활동장 확대 및 다양한 주체형성 등을 위한 전략적 기획사업에 집중할 수도 있음이 소위원회-연구진 미팅에서 제기되었음

47) 3년에 걸쳐 다원예술을 키워온 정기공모에 의한 개별지원이 자원을 분산하여 성장효과를 잘 보지 못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가능함

48) 12억 원 규모의 다원예술 지원사업 중 70% 비중을 직접지원하고 30%를 간접지원

- 예산과 여건의 한계 속에서 ①다원예술 분야지원의 확대, ②장르지원 및 결과물 중심의 지원제도 극복 및 개선, ③사회적 실천 및 다양한 가치추구의 다원예술 양상 수용, ④다원예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가치공감대 형성, ⑤다원예술 비전확산을 위한 담론창출, ⑥자생력 확보를 위한 활동장의 구축, ⑦새로운 예술 및 틈새의 발굴계획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기획사업을 추진함

○ 전략적 기획사업의 추진방향

- 다원예술 지원 3년을 맞이하여 기반의 확보에 우선 투자해야 함.⁴⁹⁾ 다원예술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정보구축 같은 사업이 해당함⁵⁰⁾
- 전략적 기획사업 역시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함
- 가능한 한 저비용으로 가능한 기획사업을 추진함
- 다른 조직, 대학, 지자체, 기업, 사회단체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함
- 다른 재원확보 노력을 병행함
- 다원예술 육성으로 예술위원회 전체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예술위 사업 중 다원예술 및 신진예술, 새로운 예술 촉진기능을 하는 것을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진행함⁵¹⁾

및 기획사업에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 할 경우,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을 강구해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의사항 중 새로운 예술 개척예산을 전체 예산 중 4%에서 7%로 증가계획임

- 49) 더 많은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다원예술 활동에 개입하기보다, 개방성과 자발성을 주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인프라인 동시에 자생력 가진 활동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준비하는 매개공간 조성 및 운영이 정당성을 얻음
- 50) 사업의 개별지원이 아닌 기반을 형성해가는 사업, 즉 소통공간과 데이터베이스 마련, 평론가집단 발굴,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자발적 학습공동체 지원 등 무형 인프라 형성에 우선해야 함
- 51) 새장르공공예술 같은 사업은 다원예술 분야가 잘 할 수 있는 것임. 새로운 발상과 실험이 중심이 되는 것이면, 다른 장르 아니라 다원예술 소위원회에서 참신한 기획과 실행을 확신시키고 추진할 수 있음

○ 매개공간 및 인큐베이팅 사업

사업제안	주요내용	사업목표 및 효과
매개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티스트가 직접 운영하는 기부모금을 하는 바 -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지원 및 네트워킹, 포럼 등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효과 - 운영과 사업제안, 정보제공 등에 있어 효과적으로 아티스트 및 기획자 지원 - 아티스트의 활동장 창출
예술발상 인큐베이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를 매개공간으로 확장해 감 - 파브리카를 모델로, 아티스트가 자유로운 발상을 내고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구상한 것을 교류, 소통할 수 있도록 함 	
창조적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아티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 및 현장모니터링, 제작상담 - 창작워크숍 및 레지던스 프로젝트 : 결과물을 제시하는 압박 없이 자율성을 높이는 창작워크숍 운영. 기획회의, 발상회의 중심의 운영으로 공동의 문제해결 모색 과정 자체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활동가, 아티스트 등 공동의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R&D를 통해 다원예술 지원사업 및 활동의 수준제고 - 현장활동, 교류, 창작과정을 통한 연구효과를 보는 일종의 장학프로그램으로 진행
기업매칭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부금과 다원예술 매개자를 직접 매칭하는 사업운영 등(매개공간에서 주관운영 가능) - 스폰서와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정보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재원확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자생력과 독립성을 창출하는 근본적 효과 모색 - 예산분배 사업이 아니라 예산 확보 사업이 다원예술 분야 자생력확보 활동의 특징이 되도록 함 - 향후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대표성 있거나 다양한) 민간파트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매개자가 직접 모금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함 - 문화예술적 표현과 문화행사 형태의 창의적 배분사업을 개발함 	
문화예술 마케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동아리 및 시민문화프로젝트, 아티스트네트워크가 공공성을 가진 사회적 프로젝트 참여시 활동을 지원함 - 협력기관을 두어 기부모금 대행을 맡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마케팅 및 스폰서십의 새로운 효과 및 사례창출
외 계 인 (ET)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과 예술의 만남, 기술과 예술의 만남 - 인문사회 다학제 프로젝트 - 예술관련 학술진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의 미학적, 실천적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의 다양한 연대방식 확보

○ 다원예술 활동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사업제안	주요내용	사업목표 및 효과
퍼플릭 서포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가 만나는 공공예루 프로젝트 진행 - 새로운 예술을 개척하기 위한 예술 거리, 예술공원, 예술마을 등 조성 사업 - 아티스트 공동으로 개인모금을 해 사업을 지속, 확장해가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공공예술지원 프로젝트가 다원예술이 아닌 모든 장르예술의 몫임을 설득하고, 지원확보 - 새로운 예술이 사회봉사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실험장 마련
다원예술 촉매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홍보사업에 다원예술 아티스트 및 매개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 아티스트가 세미나와 조사를 추진해서 직접 공공 서포터할 지역 및 사업을 찾아감 - 아티스트들이 시민운동 기획자가 되는 프로젝트 - 청년아티스트와 매개자를 위한 시민사회, 사회복지 분야 인턴십 - 해외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 아시아 각국의 사회문화적 실천에 참여하고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학습 및 아티스트 자조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력, 창의력, 연구능력, 자생력 등을 배양하는 사업방향 -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 등 다원예술 속성과 지원 취지에 맞는 워크숍을 개발하여 연구 및 교육효과를 얻음
언더그라운드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예술 활동의 홍보지원 - 소수문화의 자료집 발간 - 언더그라운드 청년작가들을 공공자원활동에 연결하고, 발표 워크숍기회(교육봉사 기회)제공 -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독립예술, 실험예술에 비해 소수에 해당하는 문화행동주의의 집중 육성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지원의 형태로 문화기록 및 자료수집, 다원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화 효과를 봄 - 다원예술 안에서도 비주류 문화를 차지하는 활동의 지원과 자료기록 등의 효과
생활예술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추어 커뮤니티 발굴지원 - 아마추어 커뮤니티와 아티스트, 기획자를 연계하는 사업 - 경기문화재단 등의 자생력 있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 동호회 등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의 효과를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개발하여 제안함. 동아리 지원사업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며, 아마추어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기능을 할 수도 있음. 사회적 파급력이 뛰어나며 다원예술 활동 중 문화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 개발 효과

2. 후속 연구과제

1) 다원예술 현황 파악 조사

(1) 다원예술 지원과 선정 경향 조사

○ 조사개요

- 지원 및 선정되는 다원예술 활동을 파악함. 다원예술 분야 지원제도에 노출된 예술활동의 분석을 통해, 다원예술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제도가 어떻게 현장에 작동하는가를 연구함
- 본 연구의 잠정적 범주를 재검토하여, 다원예술 지원영역의 범주를 구체화함

○ 조사방법

- 다원예술 분야 지원신청 사업과 지원선정 사업의 경향과 추이를 매년 분석하여 지원정책에 필요한 흐름을 파악함

(2) 다원예술 현황과 가치에 관한 보고서

○ 연구개요

- 다원예술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비평적 토대를 마련함
- 다원예술에 대한 이론적 미학적 근거를 밝힘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함
- 연구를 통해, 다원예술의 새로운 예술가치가 예술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온 점과 그 정도를 확인함

○ 연구방법

- 다원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서, 에세이 등의 자료를 취합하는 문헌연구
- 보고서, 에세이에 대한 여타 장르의 평론가, 다원예술 실천가, 기획자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원예술 활동의 새로운 예술가치를 분석함

(3) 다원예술 활동가 조사

○ 조사개요

- 지원제도 밖 다원예술 양상과 추세를 파악함. 지원사업과 선정사업을 넘어, 예술계 전반과 다원예술 관련 활동가를 조사함
- 다원예술 활동주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여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개선함

○ 조사방법

- 다원예술 창작자, 매개자 등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다원예술의 주체 형성 경로, 주체의 활동장, 추구하는 예술이념과 가치 등을 분석함
- 환경분석, 수요조사 등 다원예술 활동가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

2)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1) 지원프로세스 연구

○ 연구개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원 목표의 타당성, 효율성, 합리성을 제고함
- 기존의 장르예술 지원방식이 아닌 대안적 지원방식을 도출함. 다른 분야 창작활동과 전달, 유통방식이 다른 데 따라, 효과적인 발굴지원과 과정지원에 대해 연구함

○ 연구방법

- 사례연구를 통해 다원예술 사업이 어떻게 지원제도에 접근하게 되며 지원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
- 유사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및 적용

(2) 심사 평가 지표 연구

○ 연구개요

- 다원예술 지원 정책의 합리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수준 제고방안, 적절한 지원기준, 심사평가 지표 등을 도출하고, 사후평가의 객관성 등을 연구함

○ 연구방법

- 심사 평가자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 실시

3) 지원효과 연구

(1) 지원효과 연구

○ 연구목적

- 현재의 12억 원이 다원예술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다원예술 성장효과

를 진작하는가에 대한 효과분석이 있어야 함. 예컨대 개별지원으로 분산되어 그 효과가 반감된다면 선택적 집중을 통해 전략적 기획사업을 하는 것이 나음

- 추가적인 예산확보의 타당성 및 예산분배의 적정 효과를 확인함

○ 연구방법

- 문헌분석, 설문조사, 면접 등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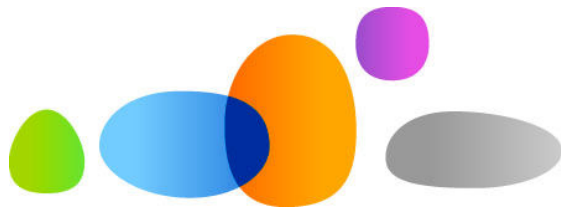
(2) 발굴사업(기획사업, 중점사업) 영향 평가

○ 연구목적

- 발굴사업(기획사업, 중점사업)의 프로세스와 영향을 파악하여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합리성, 타당성, 효율성을 높임

○ 연구방법

- 현장조사, 전화조사, 프로세스 연구 등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부 록

부록1. 새로운 예술의 전개

1. 현대예술의 변화

20세기 후반부터 뚜렷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장르 간 경계의 해체, 미적 가치 규범의 변화,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개념의 해체는 국내외 예술계의 지형도를 바꿔 놓고 있는, 오늘 우리의 당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변에는 디지털 혁명, 초국가적 문화자본의 성장,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수용자 그룹의 등장, 예술 유통구조의 변화, 제작-향유 방식의 변화 등, 상이한 방향으로부터 제기되었으며 오늘의 예술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채 포진해 있다.

사실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들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들’이자 ‘변화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오늘의 현상은 일견 지난 세기 초의 변화 - 즉, 새로운 기술발전과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예술가 내적 표현 방식의 확장,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예술 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려는 시도, 예술 향유자(수용자)의 수동적 태도를 좀더 적극적 감상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 등과 일견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오늘의 현상이 일정 부분 지난 세기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의 현상 안에 내재하는 근원적 변화가 그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변화만으로 감지하기에는 어려운, 좀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변화는 실천적, 도덕적, 과학적 관심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창성과 자율성을 존재 기반으로 삼았던 근대적 개념의 예술이, 이제 그 개념의 근간으로부터 다시 되돌아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징후이다.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 창작과 감상에 이르는 소통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매체의 혁명, 미학의 혁명- 예술환경의 변화

예술이 인식적인 것,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율적이 된 이후⁵²⁾, 즉 낭만주의에서 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동안, 예술은 오직 자신의 그 자율성을 돋보이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예술이 작가의 독창적인 감수성과 천재성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했던 낭만주의자들에게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 내부에서 일어난 충동과 영감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표현의 문제가 추상 예술을 불러오고 나아가 예술이 각자의 매체가 지닌 순수성을 탐닉하게 되었을 때,⁵³⁾ 예술은 그 안에 미적 정서를 일으키는 유의미한 형식과 질서를 지니는 고유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다다이스트들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진 소변기나 캠벨 스프를 가지고 나왔을 때, 무대 위에 탱크를 올리고 르포르타주를 보고 하기 시작했을 때, 예술은 전통적 미학의 개념에 수정을 요구했다. ‘공장에서 확성기로 시를 낭송하라!’, ‘연극이 끝났을 때 관객을 시청으로 데리고 가라!’, ‘공방에서의 작품이 아닌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라!’ - 일상으로부터 예술을 구분해내는 모든 형식적 테두리를 무너뜨렸던 소비에트 아방가르드는 그러한 도전과 전복의 한 예이다. 그들은 대상을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부르주아지에게 흡수 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 그리하여 형성물(작품)이 아니라 해프닝, 표명, 파괴를 결과로 택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새로운 변화의 많은 부분은 외형상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작업으로까지 그 연원을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1920년대 이미 대중 시각문화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켰으며, 새로 등장한 매체에 대한 기대, 삶과 예술의 경계에 대한 전도 등을 시도했다. 그들의 작업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위계질서의 와해를 촉발했고, 이미지, 비물질적, 탈물질적 예술의 문제를 예술의 중요한 화두로 올려놓았다.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시도를 새로운 맥락에서 부활시킨 작업은 1960년을 전후로 일어났다.⁵⁴⁾ 케이지와 그의 생각에 동의했던 예술가들은 예술이 삶에서 분

52) 테리 이글턴은 모더니티의 계기를 중요한 활동영역들의 해체(구별, 분화)와 전문화로 특징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예술은 인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율적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글턴의 관심은 그 자율성이 갖는 아이러니에 있다. 그녀는 말한다. "예술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통합됨으로써 그런 영역들로부터 자율적이 된 것이다. 상품이 될 때 예술은 교회, 궁전, 국가의 테두리 내에서의 전통적인 사회적 기능들로부터 시장에서의 익명의 자유로 해방된다. 이제 예술은 황제, 신, 성직자와 같은 어떤 특수한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취미와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는 모든 이를 위해 존재한다. 예술은 상품 생산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이다." (테리 이글턴, □□미학 사상□□, 한신 문화사, 1990. 418쪽) 이러한 자율성의 역설적 측면은 후기모더니즘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모순을 표면에 드러내게 되었으며 여러 다른 방향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안적 모색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53)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탐구 중 하나가 바로 이 매체의 순수성이다. 많은 모더니즘의 유파들이 ‘연극 그 자체’, ‘음악 그 자체’, ‘문학 그 자체’ 등 장르의 순수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언어 그 자체’, ‘소리 그 자체’, ‘색 그 자체’, ‘선 그 자체’ 등의 탐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54)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과 달리 20세기 중반의 현대예술에 있어서는 작품의 정체성과 작품 원본의 유일성이 가진 의미가 빛을 바랬다. 의미는 이미지의 표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예술은 피상성과 익명성의 표면에 표류하는 이미지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차용하는 것이 되었고, 예술

리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 엘리트의 고정된 기준에 맞춘 작품이 아닌 보는 사람이 끊임없이 발견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자신의 작업에 비예술적인 것들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또 다양한 방면의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장르 해체적인 경향, 삶과 예술의 비분리에 대한 실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선배들인 다다이스트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표면상 많은 점이 유사했다. 이들을 ‘네오 다다’, ‘네오 아방가르드’ 등으로 부른 것은 그런 이유이다. 한 가지 흥미 있는 점은 이러한 시도가 단지 뉴욕에서만 일어난 것도, 또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확산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비슷한 시도가 1960년대 세계 각 도시에서 서로 뚜렷한 연관성을 갖지 않은 채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들의 작업을 하나의 명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작업들을 지켜 본 당시의 비평가들이 매체와 양식, 즉 이들 작업이 보여준 형식상의 유사성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세계관의 변화가 함께 했다.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기점을 파리 68혁명으로 잡는다. 이것은 예술이 지난 세기 전반에 걸쳐 구축해 온 예술의 ‘중립성’, ‘자율성’이라는 신화를 벗어 던지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 예술이 정치 사회적 활동과 구별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모더니즘적인 분리는 새로운 차원의 총체성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문제는 곧 기존 장르 개념에 대한 변화(전면적 혹은 점진적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과거의 폐쇄적이고 규범적이며 논리적인 장르 개념으로는 이러한 총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매체 간의 혼합과 확산을 가져온 장르의 와해는 모더니즘이 탐닉해 온 매체의 순수성에 대한 도전이었다.⁵⁵⁾ 나아가 작품의 정체성도, 그것의 유일성(원본)도 의미를 잃게 만든 현대예술 개념의 지각변동은 예술가의 죽음, 적어도 천재로서의 예술가 개념의 탈신화화를 촉발시켰다.

가의 죽음, 적어도 천재로서의 예술가 개념의 탈피를 통해 예술의 탈신화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55) 모더니즘 예술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를 ‘분화’와 ‘순수성’이라고 보았을 때 오늘날의 예술 작업들이 보여주는 장르 혼종과 매체 혼합은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술사가이자 비평가인 윤난지는 □□현대미술의 풍경□□에서 장르의 차용은 모더니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매체 간의 혼합과 확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모더니즘의 신화 중 하나인 ‘매체의 순수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윤난지, □□현대 미술의 풍경□□, 한길아트, 1998. 21쪽.

3. 변화의 배경

현대 예술의 변화 배경은 이처럼 매우 복잡다단하지만 이를 근원이 되는 몇 가지 배경(철학적, 기술적, 사회적)과 이에 따른 예술계의 변화로 정리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서로 맞물려 두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술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분리된 시각은 변화의 양상을 좀더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오늘의 현상을 가져온 각 맥락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디지털 기반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등장 - 예술의 탈물질화

20세기 후반 급격하게 변화한 예술 환경과 이에 따른 예술현장에서의 새로운 현상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 특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혁명은 무엇보다 예술 작업의 탈물질화를 촉진시켰고, 예술의 결과를 작품이 아닌 소통 자체로 돌려놓았던 것이다.

디지털은 시공간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중요한 전제로 작용하게 만든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선형적으로 흐르지 않으며 공간은 더 이상 순차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예술은 더 이상 고전적 개념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아주 다른 개념의 시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 동시에 작품의 창조도 완성 후 관객과 만나는 방식이 아닌(예술 생산 방식에서 소외되는), 함께 머물면서 반응하고 성장 증식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과(작품)보다는 과정이나 기획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실체와 현실을 보장하지 않는 디지털의 시대에 예술은 탈물질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탈물질화 공간에서 강조된 것은 순수한 커뮤니케이션(소통)이었다.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예술 작품’으로 한정하려는 개념은 이제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부재하는 것이 실재하는 것이 혼재된 오늘의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작품이 아닌 ‘소통’과 ‘과정’이다. 때로는 기획적 차원의 강조가 따르기도 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작업으로부터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의 예술작업이나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한(site-specific) 작업도 그 영역과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다. 몇몇의 디지털 아트, 넷아트 작업은 이러한 변화의 좋은 사례이다.⁵⁶⁾ 넷아트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작가와 향유자의 정확한 경계는 희미하다. 전통적으로 권위와 중심을 차지해온 작가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은 창작, 배급, 전시, 접근 등 예술의 제작되고 향유자와 만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민주화를 가져왔다.

2) 중심에서 주변으로 - 예술의 다문화주의

‘타자’와 ‘차이’의 개념을 문화 담론의 중심에 올려놓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예술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중심에 떠오른다. 이러한 관점은

56) 이유남,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미술, 넷아트', 월간미술, 1999. 8월, 참조.

중심과 주변의 이원적 경계와 위계적 질서의 개념에 대한 반성을 가져왔으며, 걸작, 혹은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 산물에 불과할 뿐이며 더 나아가 예술 문화적 우열과 경중의 가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반성과 비판이 제기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를 지향하거나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하위 문화, 주변 문화, 비주류 문화에 대한 편견과 배제에 대항하고, 하나의 중심 문화를 구성하려는 의도와 제반 판단 준거들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주의는 예술을 미적 준거로부터 문화, 이데올로기, 민족, 성(gender) 등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며, 이에 따라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 미적 범주와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에 대한 관습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후기 구조주의자들이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사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어 받고 있으나, 언어적 유희나 도덕적 상대주의를 경계하고 보다 실천적인 지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차별을 보인다. 또한 분리주의(separatism) 적이거나 백인남성중심주의를 새로운 중심으로 대체하려는 기존의 소수자 권익 운동과는 달리, ‘차이’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문화적 경험이나 주변문화들을 부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회적 실천과 개혁의 측면에 있어서도 입장과 시각의 차이를 보여준다.

만화, 대중음악, 인디음악 등의 부상과 이들이 중심과 주변을 가로지르며 다른 장르 및 예술형식들과 서로 착종되고 혼종되는 현상, 퀴어 페스티벌, 안티성폭력 페스티벌 등 새로운 대안문화운동의 부상 등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⁵⁷⁾

3) 삶과 예술의 비분리 - 공동체 기반의 예술

예술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는 그룹 역시 작업의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예술 활동 및 예술 향유의 민주화를 위하여, 좋은 작품을 선별해 보다 많은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의 일방향적 시도로부터 작가-관람자의 위계질서 자체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예술을 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했거나 예술의 공적 측면만을 강조했던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다른 모든 이분법적 사고와 마찬가지로, 발상 자체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예술운동은 적극적 작가의 자세, 작가 의식의 치열함은 요구했으나 상대적으로 소극적 관람자를 만들어 왔다. 작가가 공공장소에서 다수 대중을 위한 작업을 하거나(예술소외계층을 위한 예술향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혹은 깨어있는 운동가로서의 작가가 공동체의 문제를 대변하는 방식은, 이제 작가와 공동체 구성원이 공공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하는, 그리하여 기획, 제작, 편집에 공동체가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이 예술의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이동하는 현상은 시민사회 및 지역

57)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중예술이나 소수자와 주변부를 대변하는 독립예술이 모두 이에 속한다.

공동체의 삶에 예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온 예술의 공공성 논의와 만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것은 앞의 다른 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시공간의 문제, 과정의 문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갤러리, 극장, 음악당으로부터 공공장소로의 공간적 이동만이 있었을 뿐 그 내용이나 형식 자체에는 별 변화가 없었던, 이른바 ‘좋은 의도’의 ‘공공장소에서의 예술작품’이라는 개념에서, ‘예술을 통한 공적 영역에의 개입’,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예술’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작품으로 완성되는 활동도 혹은 단순히 공동체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작업만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장기적으로 공동체 삶에 영향을 주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했다.⁵⁸⁾

더불어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예술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을 대상으로 예술가들이 기획, 제작한 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탈피하여, 대중이 스스로 작가로 참여하여 예술작업을 통해 자신의 주변(정치, 사회, 문화, 사적인 영역을 포함하여)에 대해 인식하고 사고하고, 예술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⁵⁹⁾ 말하자면 작가와 관람자의 경계가 무너지는, 예술창조의 작업을 자신의 삶의 문화 속에 끌어오는 작업이다. 이것은 특히 통상적으로 예술 소외층이라 여겨졌던 그룹과의 작업으로 진행되거나 예술을 통한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작업과 맞물리면서 오늘의 예술 활동에 다각도의 의미와 가능성을 끌어내고 있다.⁶⁰⁾

4) 세 가지 배경의 만남과 통합

예술의 탈물질화, 다문화주의, 공공성의 문제는 예술 실천에 있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상호 조율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 이후의 예술과 예술작품은 유형의 소유할 수 있는 존재의 개념을 무너뜨리면서 무형의 소유 불가능한 존재, 작가와 향유자가 상호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 그 과정 속에서 생장 증식하는 작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업에서 완성된 예술작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정과 소통이며, 작품의 작가와 관람자의 정확한 역할과 위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몇몇의 디지털 아트, 넷아트 작업은 이러한 변화의 좋은 실례를 보여주는데, 디지털 아트의 대표적인 국제 공모전인 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 www.aec.at) 공모전에서 1997년 대상을 수상한 센소리엄(Sensorium)(www.sensorium.org)의 《숨쉬는 지구》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정보가 매일 서버에 전달되어 웹 페이지의 지구 형상 위에 실시간에 표시된다. 센소리엄은 통상적인 인간의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거시적 운동이나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보청기라 할 수 있다.

58) 이러한 작업에 대한 시각예술 분야의 해외 사례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유경, 「공공미술, 또 하나의 접근법 - 행동하는 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제16집, 2004. 227-262 참조.

59) 예술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경향, 사회적 예술, 문화행동, 시민참여를 추구하는 예술 등이 이에 속한다.

60) 이와 관련한 사례로 접는 미술관의 ‘명륜동에서 찾다’, 들사람들의 평택 대추분교에서의 작업 등의 실천을 들 수 있다.

데이빗 블레어 <왁스웹> (jefferson.village.virginia.edu/wax)도 이러한 예의 하나이다. 데이빗 블레어의 유명한 실험영화 <왁스 혹은 꿀벌들 가운데서 텔레비전의 발견>의 웹 버전. 왁스웹은 처음 머드(MUD)의 변종인 무(MOO) 형식으로 서비스되어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덧붙여 나가는 서사 형식의 선구적 사례로 주목을 끌었고, 최근에는 다시 VRML을 이용한 3D 버전과 CD-ROM 버전을 선보이는 등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의 인포아트전에도 소개된 바 있는 마이클 더글라스의 <세계 최초의 공동문장>(math240.lehman.cuny.edu/sentence1.html) 같은 작품은 연결을 통한 실시간 생성이라는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예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사실상 웹 사이트만 개설해 놓고 전세계의 아무나 여기에 접속하여 텍스트를 쳐 넣으면 마치 무한 증식하는 방명록처럼 뜻도 모를, 각국 언어로 된 문장들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덧붙여진다. 아이러니한 것은, 연결을 극대화함으로써 전통적 개념에서의 작가의 예술적 재능이나 관여의 폭은 극소화되었다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작품의 개념으로 접수한다면, 이때의 작품은 프로세스로서의 작품인 셈이며 이 작품은 작가가 임의로 사이트를 폐쇄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계속될 진행형(ongoing)의 작품인 셈이다.

그런가 하면 <테크노스피어(Technosphere)>(www.technosphere.org.uk)처럼 예술과 생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혀 색다른 작품도 가능하다. 제인 프로핏이 설계한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생태계에는 수많은 인공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이 테크노스피어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어진 몸체 요소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생물을 조립할 수 있다. 이 생물들은 인간은 살지 않는 가상의 생태계에서 생로병사의 순환을 겪으며 쉽없이 나타났다 사라져간다. 이 작품은 지난해 런던의 현대미술연구소에서 개최된 <이마지나리아(Imaginaria)> 전시에도 버전 2.0으로 출품되어, 과연 이것을 예술로 볼 수 있는냐는 논쟁을 야기시켰다.⁶¹⁾

넷아트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작가와 향유자의 정확한 경계는 희미하다. 전통적으로 권위와 중심을 차지해온 작가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은 창작, 배급, 전시, 접근 등 예술의 제작되고 향유자와 만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민주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이 디지털 베이스의 작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에게 일회용 사진기를 나누어 주고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준 후 그들에게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표현하도록 하고, 이를 포터블 인화기로 즉석에서 프린팅 하여 서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이차 작업을 하는 젊은 포토그래퍼 김화용 씨의 작업은 예술의 탈물질화, 공공성, 다문화주의의 상호조율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다. 이 작업에서 완성된 예술작품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과 소통에 있으며, 작가와 교사, 관람자의 정확한 역할과 위계는 붕괴된다.

61) 이유남, '사이버스페이스 속의 미술, 넷아트', 월간미술, 1999. 8월, p.63

이 같은 예술의 탈경계와 탈위계 현상은, ‘예술을 통한 공적 영역에의 개입’,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술’의 개념을 내세우는 공공성의 문제나, 모든 가치와 모든 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거나 전통적으로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논의하지 않았거나 폄하했던 모든 작업들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다문화주의와 만나면서 다양한 작업을 생산해 낸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공공미술기관 ‘스킵처 시카고’의 지원으로 1993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행동하는 문화’ 프로젝트는 예술제작에 있어 공동체와의 작업을 강조함으로써 예술과 삶의 관계 회복을 작품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다. 작업의 결과는 전적으로 작가가 아닌 공동체에게 달려있으며 창작의 동기 역시 공동체로부터 파생된 문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열린 작업, 예측된 결과가 없는 작업이었다.⁶²⁾ 더불어 연극에 있어 TIE, 커뮤니티 씨어터, 보이지 않는 연극 등의 작업 역시 이러한 맥락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예술의 탈물질화, 다문화주의, 공공성의 문제가 이처럼 섞이면서 다원예술의 다양한 양상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때, 다원예술은 매체와 장르의 변화, 과정을 지향하는 소통방식의 시도,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공공성을 추가하는 맥락, 예술형식의 실험과 다각화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다변화이, 그리고 형식주의와 내용주의의 고민이 어우러진 장이다

62) 김유경, 「공공미술, 또 하나의 접근법 - 행동하는 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제16집, 2004. 참고.

4. 변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처럼 전통적으로 예술적 담론에서 제외되었거나 예술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것은 이제 중심과 주변을 가로지르며 혼종되고 착종된다.

새로운 개념의 예술을 표방하는 이러한 변화는 ‘다원예술’로 지칭되는 분야만의 현상은 아니다. 기존 전통적 장르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쉽게 읽을 수 있다. 영상, 디지털 매체 등 뉴미디어 기술을 다양한 장르 예술 내에서 받아들여 표현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시도하는 것 역시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시도가 아니다. 장르 내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실험들 -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작업, 장르 영역을 넘나드는 시도,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공동체와 함께 하거나 공동체의 삶에서의 의미를 탐구하는 예술작업 등이 확장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어쩌면 근대적 개념의 분화된 예술로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우리 삶의 총체성에 대한 통찰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일 지도 모른다. ‘물질적 현존’이나 ‘작품’으로 남기보다는 공동체 삶 속에서 과정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지울 수 없는 경험의 ‘기억’을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전환기 예술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부록2. 국내 다원예술 현황분석

-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및 선정 사례를 바탕으로

1. 국내 다원예술 현황 개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다원예술소위원회가 발족한 2005년은 독립영화계의 대표적 행사인 <인디포럼>이 10주년기념영화제를 개최한 해이기도 하며, 독립영화와 함께 다원예술의 대표적 분야인 인디음악 역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1회 인디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 해이기도 하다.⁶³⁾ 이렇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는 다원예술 지형 변화의 한 계기를 넘어서는 시점에 출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국내 다원예술은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실천의 역사가 짧아 이의 현황을 분석할 만한 체계화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원예술분야 예술인들의 실천이 자발적으로 생성된 시기가 90년대 이후라는 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을 노정하지만 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원예술의 내생적, 사회적 특성에 있다. 다원예술 활동은 기존 장르중심의 예술을 거부하는 매체적 특성과 존재론적 특성을 보이며 주로 비제도적장에서 이뤄졌고 장르예술 중심의 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한편, 이들 주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았기 때문이다. 국내 문화예술 활동을 연도별로 기록하는 문예연감도 장르별 논의는 체계화하여 기록하고 있으나 다원예술에 대한 논의는 2000년도에 들어서야 소개됐고, 이마저 ‘문화일반’ 부문 ‘세기말 더욱 다양화된 이 땅의 문화예술축제’ 부문에 간략하게 ‘독립예술축제’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다원예술 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은 2004년 문예연감의 이규석의 기록이다. 이규석은 새예술정책보고서 중 독립예술에 대해 안이영노가 개념정의한 △기존 예술 장르 내에서 신진예술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실험적·대안적 예술창작과 전통적 예술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장르통합적·다원적 예술창작활동 △저예산 독립제작 방식에 기초한 인디문화산업의 영역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초한 소수자문화, 하위문화, 생산적 아마추어리즘을 예술창작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라 전제하고, 2003년 독립예술 창작현황과 독립영화, 인디음악, 미술전시 분야 독립예술 창작현황, 무대예술 및 독립예술 분야 축제를 중심으로 나눠 각 분야 독립예술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당시 독립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 및 단체 규모는 약 597개 단체 8,668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독립영화 70개 단체 5,300여 명, 인디음악 380개 단체 2,000여 명, 미술전시 약 368명, 무대예술 147개 단체 1,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창작발표

63) 이규석, 2005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현황은 2003년 한 해 동안 640여 편의 독립영화가 발표되었으며, 인디음악은 100여 종의 음반 제작 및 6,800여 회의 공연, 미술전시는 71회의 전시, 무대예술은 441회의 공연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각 주체별 실천 및 네트워크 거점으로는 독립영화의 경우 1998년 창설된 사단법인 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독립영화제 및 시네마테크 등을 통한 창작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디음악은 독립음반사(인디레이블)를 통한 인디음반의 제작과 라이브클럽을 통한 공연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인디음악 창작활성화를 목표로 2004년 사단법인 라이브음악문화 발전협회 창설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술전시의 경우 대안공간을 거점으로 한 개인 및 그룹별 전시창작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독창성 있는 신진 미술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공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무대예술의 경우 여타 분야와 달리 창작지원 및 교류의 결절점 역할을 하는 물리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며 개별 단체의 창작성과물이 무대예술분야 주요 독립예술 행사를 통해 창작 발표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한편, 서울프린지페스티벌(구 독립예술제), 한국실험예술제, 변방연극제, 비포장연극제, 연출가 데뷔전 등이 그러한 거점 행사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규석은 이러한 현황 분석을 기초로 2003년 독립예술의 창작경향 및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독립예술 창작활동이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오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독립예술 관련 창작교류활동의 확대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불과 90년대 태동한 다원예술적 실천들은 제도적 관심과 지원 밖에서 자생적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재생산 방식을 개발해 오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규석의 논의가 불과 3년 전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당시와 최근 현황은 여러 면에서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첫째, 사회적 문제, 혹은 모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화행동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목동예술인회관 점거, 한미FTA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가로지르는 문화적 실천을 벌인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실천은 지속돼 왔지만 현재는 탈장르적 실천을 조직하는 양상이 보다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을 등 일정한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실천되는 공동체예술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의 공간환경과 주민의 정서, 문화프로그램 등을 가로지르는 공공미술, 대안공간을 거점으로 커뮤니티시어터 운동을 벌이는 등 독립영화,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이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며 소통하는 예술인 등이 그들이다. 셋째, 타 학문/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예술적 실천을 확장하는 이들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넷째, 국경을 넘어서는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대안공간 네트워크의 ‘2004 글로벌리즘과 대안공간’, Next Wave Asia 준비위원회의 ‘2006 아시아 독립예술 네트워크 미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전제하였듯이 체계적인 현황 분석이 부재한 말 그대로 징후

적 분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 가장 객관화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사업을 기초로 다원예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기금신청사업 또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먼저 양적인 분석은 불가능하다. 다원예술을 실천하는 주체가 모두 기금사업에 지원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문화와 사회적 여러 문제에 대해 모순이 설정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예술적 발언을 해온 문화행동의 경우 애초부터 지원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들 실천은 현재성을 가지는 양상으로 나타나 일정한 이행과정을 요구하는 기금사업의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원예술의 주체가 대부분 제도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는 젊은 세대의 예술가라는 점에서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문서상의 조건이나 절차를 모르거나 기술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겠다. 또한, 기금사업에 지원된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원예술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황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지만 다원예술에 대한 기금신청자의 이해가 낮은 상황이기도 하며 타 예술장르가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들의 경우 다원예술 분야를 ‘마지막 언덕’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금사업 분석을 통해 최근 다원예술적 사업의 특징, 다원예술적 실천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다원예술분야 기금 신청 사업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신청사업과 선정사업 비교를 통하여 부각된 특징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면 다원예술 주체와 실천과정에 기초한 보다 체계적인 현황 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사업 분석 범주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사업 분석은 2005년, 2006년 두 해에 걸친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고자 하는 점은 향후 본 연구 결론으로 다원예술 명칭, 영역, 범주를 제안할 계획이지만, 현황 검토를 위해 잠정적인 범주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다원예술 주체들의 실천은 독립예술, 비주류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 문화행동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져 다원예술적 실천을 읽어낼 수 있는 포괄적인 기준이 요청되는 한편, 실제 기금 신청을 한 사업들을 검토하면 다원예술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원예술적 실천이 ‘아닌’ 활동을 읽어낼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장에서 논의한 다원예술의 전개와 쟁점 그리고 기금 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잠정적 범주를 설정하여 다원예술 분야에 신청한 사업 성격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징적 양상을 수평적으로 늘어놓기보다는 ‘매체’를 중심으로 한 창작과정과 ‘가치’를 중심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2005년 2006년 기금사업에 신청한 사업 형태를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매체(나) 가치(가)	장르실험(a)	복합장르(b)	대중예술(c)	종합예술제(d)	장르중심(e)
독립예술(A)	Aa	Ab	Ac	Ad	Ae
공동체예술(B)	Ba	Bb	Bc	Bd	Be
문화행동(C)	Ca	Cb	Cc	Cd	Ce
사회참여(D)	Da	Cb	Dc	Dd	De
시민문화체험(E)	Ea	Eb	Ec	Ed	Ee
예술가치중심(F)	Fa	Fb	Fc	Fd	Fe

〈표 1〉 다원예술 지원 신청사업 분류 기준

우선 매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실험장르, 복합장르, 대중예술, 종합예술제,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장르실험은 특정 장르에 대한 실험적 예술창작, △복합장르는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에서 탈피한 탈장르적, 복합장르적 예술창작(Multi-disciplinary arts), △대중예술은 대중음악, 만화, 영화, 서커스 대중예술 및 대중문화 등을 활용한 예술, △종합예술제는 여러 예술장르가 기능적으로 복합된 예술복합, 축제, 발표회 등의 형태의 실천, △장르중심은 장르중심의 일반적인 예술 형태를 보이는 예술을 말한다.

또한 가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공동체예술, 문화행동, 사회참여, 시민문화지원, 예술가치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립예술은 기성예술의 제도적·전통적 미학규범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자생적 창작활동을 지향, ‘저예산 독립제작’의 방식, △공동체예술은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 예술(Community arts), △문화행동은 현장성을 기초로 사회현실에 대해 고발하거나 문

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실천으로서의 예술, △사회참여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한 예술창작 활동으로서 다문화적 예술창작 활동, △시민문화체험은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등 시민의 문화체험을 주요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예술가치중심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는 일반적 예술을 말한다.

기준 ⁶⁴⁾		양상
매체	장르실험	특정 장르에 대한 실험적 예술창작
	복합장르	전통적인 장르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에서 탈피한 탈장르적, 복합장르적 예술창작(Multi-disciplinary arts)
	대중예술	대중음악, 만화, 영화, 서커스 대중예술 및 대중문화, 공간환경 등을 활용한 예술
	종합예술제	예술복합, 축제, 발표회 등의 형태로 다양한 예술장르의 실천
	장르중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장르중심의 예술 형태를 보이는 창작
가치	독립예술	기성예술의 제도적·전통적 미학규범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자생적 창작활동을 지향, ‘저예산 독립제작’의 방식
	공동체예술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 예술(Community arts)
	문화행동	현장성을 기초로 사회현실에 대해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실천으로서의 예술
	사회참여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활용한 예술창작 활동
	시민문화체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등 시민의 문화체험을 주요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예술가치중심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으며, 예술내적 창작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

<표 2> 다원예술 지원 신청사업 분류 기준 설명

64) 매체와 가치로 나눈 후 하위분류된 여러 기준들은 사회와 예술변화 경향에 따라 파악한 것인 동시에 징후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마당극, 굿, 민요 등 민속적, 재래적 매체를 활용하는 예술을 하나의 두드러지는 경향으로 볼 수 있으나 별도로 나누지 않고 매체 하위분류의 장르중심 속에 넣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248개 지원신청 중 8개(3.2%), 2006년에는 303개 중 6개(2.0%)를 차지하여 연구진에게는 징후적인 것으로 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예술에 대응하여 전통예술, 민속예술을 표현양식으로 차용하는 경향은 사회통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및 선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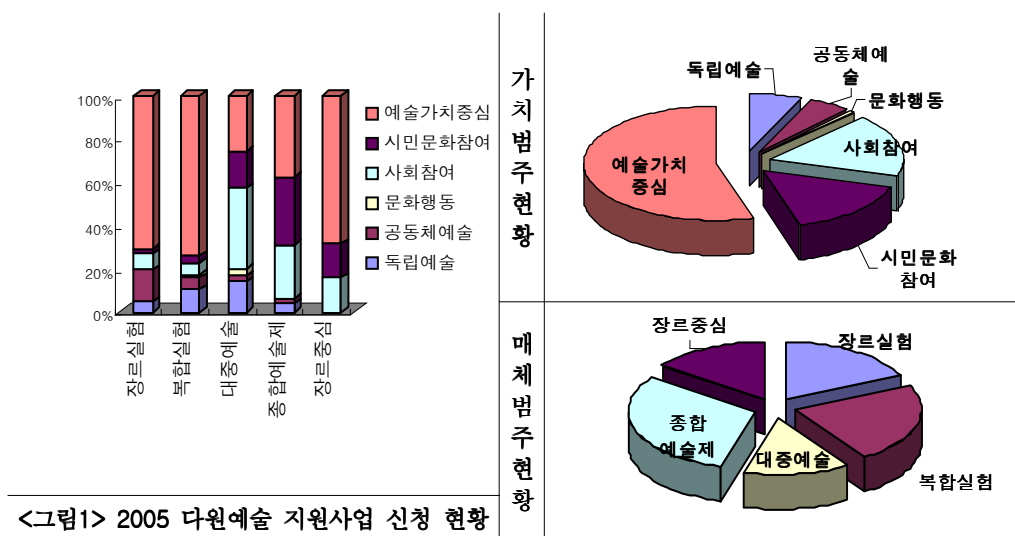
1) 200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및 선정 사업 현황

(1) 2005년 신청 현황

먼저 2005년은 전체 252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모두 50개 사업이 선정돼 지원되었다. 기금신청서만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4개 사업을 제외하여 모두 248개 사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매체 가치	장르 실험(a)	복합 장르(b)	대중 예술(c)	종합 예술제(d)	장르 중심(e)	계	%
독립예술 (A)	2	6	5	3	-	16	6.5
공동체예술 (B)	6	3	1	2	-	12	4.8
문화행동 (C)	-	1	1	-	-	2	0.8
사회참여 (D)	3	3	13	19	6	44	17.7
시민문화체험 (E)	1	2	6	24	6	39	15.7
예술가치중심 (F)	29	42	9	29	26	135	54.5
계	41	57	35	77	38	248	
%	16.5	23.1	14.1	31.0	15.3		100

<표 1> 2005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현황



<그림1> 2005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현황

전체 사업을 가치 중심으로 분석하면, 예술가치중심이 과반수 이상을 5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사회참여, 시민문화체험, 독립예술, 공동체예술, 문화행동 순으로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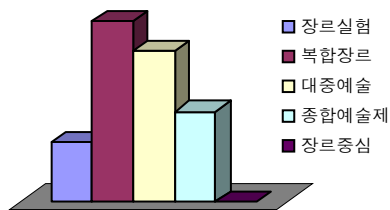
매체를 중심으로 하면 종합예술제가 3분의 1 정도로 가장 많으며, 복합장르, 장르실험, 대중예술, 장르중심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종합하면, 특징적으로는 다원예술 분야지만 기존 예술문화의 보편적 특성인 예술가치중심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원예술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 규모로 지원되었으며, 종합예술제 사업이 많이 지원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좀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우리는 가치와 매체 기준을 별도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과 같이 가치와 매체의 개별 특성으로만 제한하여 판단한다면, 한 가지의 가치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매체적 특성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그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가치 범주를 기초로 하여 매체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사업의 일부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도표에 작성한 해당사업은 기금사업에 선정된 것과 선정되지 않은 것을 별도로 나누어 신지 않았다. 기금 지원사업 당선작을 기준으로 다원예술적 사업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당선작은 부문별 현황 검토이후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① 가치적 측면

○ 독립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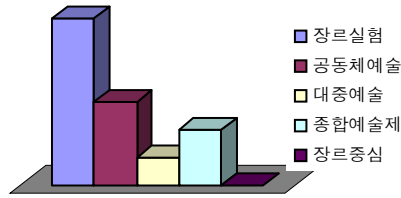


독립예술 부문의 경우 복합장르와 대중예술 부문의 매체적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는 가치 범주로 구분되는 타 활동부문에 비해 독립예술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며, 독립예술의 각 매체별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Time Trilogy Festival 시간에 관한 철학적 사색 3부작
복합장르	제3의 텍스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대중예술	전국라이브클럽페스티벌-라이브데이(LiveDay)
종합예술제	제5회 한일 ART페스티벌

<그림 2> 2005 독립예술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지원사업 신청 현황

○ 공동체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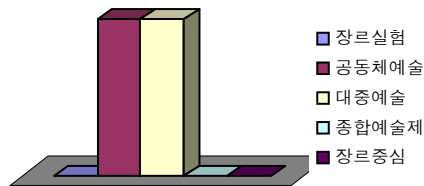


공동체예술부문은 장르실험의 매체적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고, 복합장르, 종합예술제, 대중예술이 그 뒤를 따르는 반면, 장르중심 부문은 전혀 신청되지 않았다. 공동체예술의 경우 가치 범주로 구분되는 타 활동부문에 비해 장르실험 부문의 매체적 특징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작은 제안들 2 - 공공미술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복합장르	실험과 참여의 공공재활용 예술제 '되살림 난장'
대중예술	강릉사람들에 "빛깔이 있는 영화교실"
종합예술제	제4회 2005 제주 '머리에 꽃을' 거리예술제

<그림 3> 2005 공동체예술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지원사업 신청 현황

○ 문화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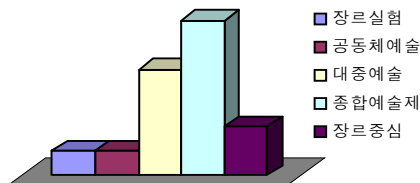


단 2개 사업만 신청된 문화행동은 복합장르와 대중예술 부문에 각각 1개씩 분포한다.

매체	사업
복합장르	문화축매자 지원 워크숍 '디딤돌'
대중예술	<우리만화>지 발간 사업

<그림 4> 2005 문화행동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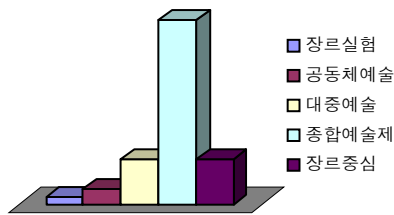


사회참여부문은 종합예술제와 대중예술의 매체적 특징이 높게 나타나며, 장르중심, 대중예술, 장르실험, 복합장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가치구분 영역에 비해서 장르실험과 복합장르가 저조한 것이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이주노동자를 위한 즉흥연극'플레이백 씨어터'순회공연
복합장르	여성공간문화축제
대중예술	노동만화전들꽃, 소나무 창작콘서트'사람만이 희망이다'
종합예술제	2005 노동인권음악제
장르중심	북한 희곡 '빼곡새 운다' 연극 공연, 제9회 민족통일 대동장승굿

<그림 5> 2005 사회참여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신청사업 현황

○ 시민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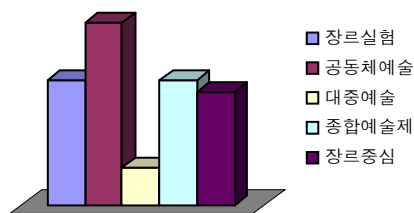


시민문화체험부문은 종합예술제의 매체적 특징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대중예술, 장르중심, 복합장르, 장르실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타 가치 범주 부문과는 달리 종합예술제가 장르실험, 복합장르, 대중예술 범주와 심한 격차를 보인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어린이가 만드는 디지털미디어아트전
복합장르	Mail Art
대중예술	2005 가정의 달 맞이 [재즈와 함께하는 해설있는 음악회]
종합예술제	지하철 공연축제
장르중심	지역대학 "오케스트라 축제"

<그림 6> 2005 시민문화체험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지원사업 신청 현황

○ 예술가치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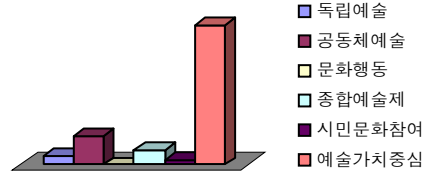
예술가치중심부문은 복합장르의 매체적 특징이 가장 많으며, 장르실험과 종합예술제, 장르중심이 비슷하게 그 다음으로 드러난다. 예술가치중심은 특히 타 범주와 비교할 때 실험적인 접근인 복합장르와 장르실험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문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소극장 축제 1인극 페스티벌
복합장르	2005년 한국실험예술제 "Water - Wind - Human"
대중예술	20세기 전반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및 단행본 발간
종합예술제	칠지토 생명의 어울림전, 철암예술축제, 부산민족예술 대동굿, 거제 퍼포먼스 페스티벌, 첼로 살풀이
장르중심	2005 꿈드림 문화 공동체 시낭송 예술 공연-시월의 마지막 날, 별 따라 가자

<그림 7> 2005 예술가치중심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지원사업 신청 현황

② 매체적 측면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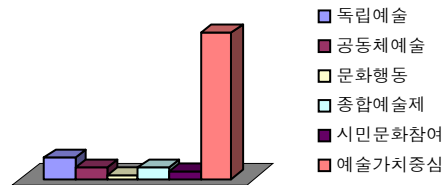
○ 장르실험



장르실험부문의 경우 예술가치중심의 가지적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동체예술이 의미있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8> 2005 장르실험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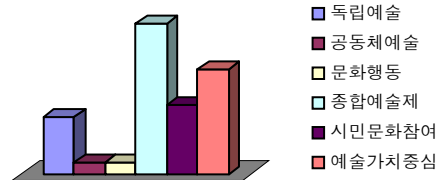
○ 복합장르



복합장르부문 역시 예술가치중심의 가지적 특징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으며, 독립예술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9> 2005 복합장르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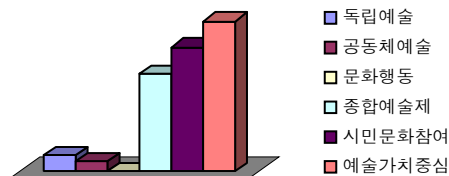
○ 대중예술



대중예술부문의 경우 사회참여의 가지적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예술가치중심과 시민문화체험, 독립예술 등이 고르게 나타났다.

<그림 10> 2005 대중예술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 종합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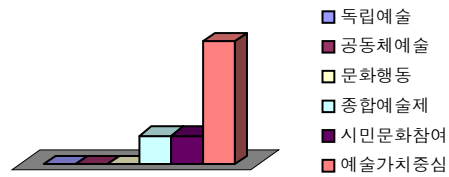


종합예술제 부문은 예술가치중심, 시민문화체험, 사회참여 순으로 가지적 특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림 11> 2005 종합예술제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65) 매체 범주는 가치 범주를 통해 신청 사업 예시를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드러내지 않았다.

○ 장르중심



장르중심부문은 절대적으로 예술가치 중심의 가치적 특징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민문화체험과 사회참여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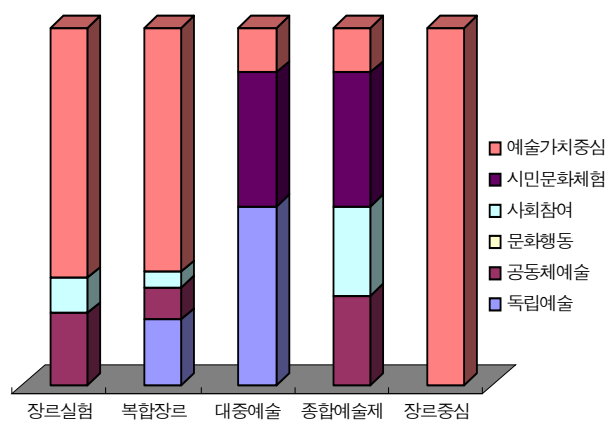
<그림 12> 2005 장르중심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2) 2005년 선정결과

이번에는 2005년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당선작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모두 50개의 사업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체 가치	장르실험	복합장르	대중예술	종합예술제	장르중심	계	%
독립예술	-	4	4	-	-	8	16
공동체예술	2	2	-	2	-	6	12
문화행동	-	-	-	-	-	0	0
사회참여	1	1	-	2	-	4	8
시민문화체험	-	-	3	3	-	6	12
예술가치중심	7	15	1	1	2	26	52
계	10	22	8	8	2	50	
%	20	44	16	16	4		100

<표 2> 2005 다원예술 지원사업 선정현황



당선작들은 매체적 특징에 기초하여 볼 때, 복합장르와 장르실험 부문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중예술과 종합예술제가 같은 규모를 보이고, 장르중심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가치적 측면에는 예술가치중심 범주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한편, 독립예술과 공동체예술, 사회참여, 시민문화체험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문화행동은 나타나

지 않았다.

<그림 13> 2005 다원예술 지원사업 선정현황 도표

한편, 각 범주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독립예술부문은 복합장르, 대중예술의 매체적 특징을 보이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동체예술과 사회참여부문은 장르실

험, 복합장르, 종합예술제의 범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문화체험 부문은 대중예술과 종합예술제 범주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가치중심부문은 장르실험과 복합장르의 매체적 특징을 보이는 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금 선정사업과 신청사업을 비교하면, 선정사업은 매체적 측면에서는 장르실험, 복합장르 부문에서 가치적 측면인 ‘예술가치중심’과 ‘독립예술’이 많다. 또한 신청 규모에 비하여 매체적 측면에서는 종합예술제와 장르중심 부문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되었고, 가치적 측면에서는 시민문화체험이 적게 선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2005년 신청 및 선정 사업의 특징⁶⁶⁾

전반적으로 각 범주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독립예술부문은 복합장르, 대중예술의 매체적 특징을 보이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동체예술과 사회참여부문은 장르실험, 복합장르, 종합예술제 범주에서 강세를 보였고, 시민문화체험부문은 대중예술과 종합예술제 범주에서 강세를 보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가치중심부문은 복합장르와 장르실험의 매체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성’이 강조된 사업이 두드러지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사업에서 신청건수와 선정건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매체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실험성이 강한 장르실험과 복합장르는 각각 3.5%와 20.9%가 증가한 반면, 실험성이 취약한 종합예술제와 장르중심은 각각 15%와 10.1%가 하락하였다.

둘째, ‘독립성’과 ‘사회성’이 강조된 사업이 부각되었다. 가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낮은 예술가치중심은 2.5% 하락한 반면, 공동체예술은 7.2%의 증가분을 보인다. 독립예술도 7.1% 증가세를 보여, 독립예술과 공동체예술이 과반수의 선정 비율을 보인다. 사회참여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하락했으나 장르실험과 복합장르에서는 신청사업의 30% 이상이 선정되어 사회참여의 경우 실험성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간 예술 경향의 사업이 기금 지원사업으로 대거 신청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원예술적 실천은 장르중심 예술 현상과 제도에 반하여 조직되어 왔으나, 지원사업 공모과정에는 장르중심 예술과 함께 장르중심 예술을 기능적으로 종합하여 배치한 종합예술제 등의 사업이 대거 몰렸다. 이들의 지원 신청 비율은 15.3%를 기록했으나, 이 중에서 4%만이 지원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6) 다원예술 분야의 특성을 알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사업과 선정사업을 기초로 가치와 매체 범주를 대입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교차하여 최종적인 양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첫째, 각 범주가 어떻게 분포하며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범주가 타 범주와 어떤 양상으로 대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범주가 차별되는 지점이 부각된다면 이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넷째, 타 예술장르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이 기금 지원을 대거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장르 예술이 출연하는 종합예술제, 예술복합 등 예술장르가 기능적으로 결합된 사업과 함께 대중예술 부문의 사업이 대거 몰렸다. 이들 사업은 다원 예술적 실천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타 기금사업은 장르 중심으로 편성되어 이들 사업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원예술분야로 신청되었을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다섯째, 다원예술 분야는 대체적으로 복합장르, 장르실험의 매체적 특징을 가진 분야에서 예술가치중심의 가치적 특징 부문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대중예술의 매체적 특징을 가진 분야에서는 독립예술의 가치적 특징 부문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200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 및 선정 사업 현황

(1) 2006년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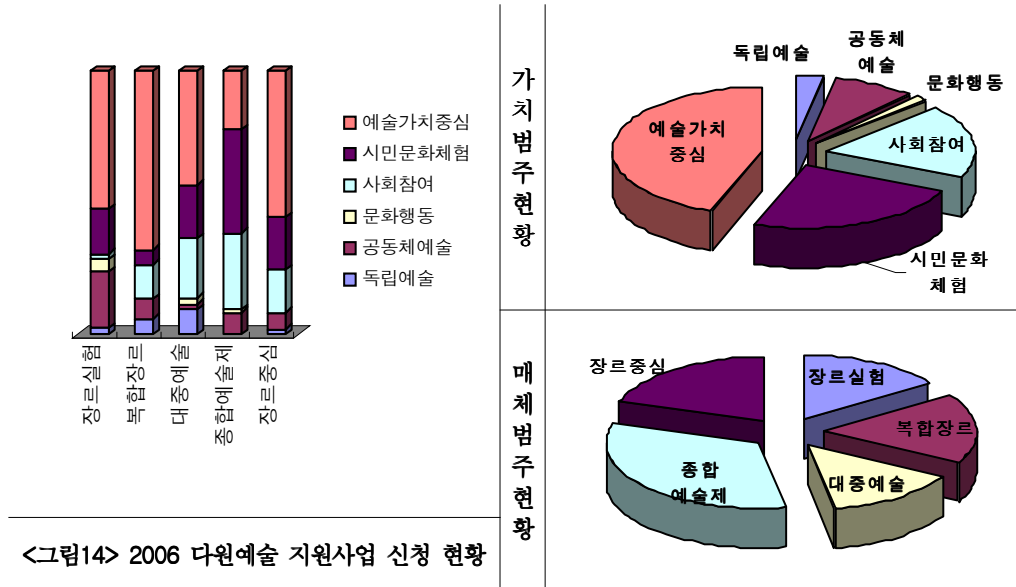
먼저 2006년에는 전체 308개의 사업이 다원예술분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하였으며, 모두 59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기금 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사업 중에 신청서만으로는 사업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5개 사업을 제외한 303개 사업을 기금 신청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드러난다.

매체 가치	장르 실험(a)	복합 장르(b)	대중 예술(c)	종합 예술제(d)	장르 중심(e)	계	%
독립예술 (A)	1	3	4	-	1	9	3.0
공동체예술 (B)	10	4	1	8	4	27	8.9
문화행동 (C)	2	-	1	1	-	4	1.3
사회참여 (D)	1	7	10	29	10	57	18.8
시민문화체험 (E)	8	3	9	39	12	71	23.4
예술가치중심 (F)	24	36	19	22	34	135	44.6
계	46	53	44	99	61	303	
%	15.2	17.5	14.5	32.7	20.1		100

<표 3> 2006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현황

가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술가치중심 부문의 사업이 44.6%로 과반수 가까이 신청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시민문화체험, 사회참여, 공동체예술, 독립예술, 문화행동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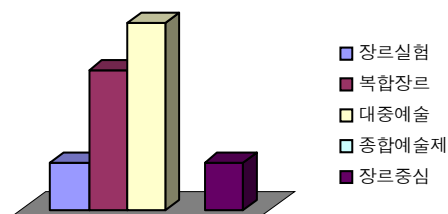
매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종합예술제 부문이 3분의 1정도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장르중심, 복합장르, 장르실험, 대중예술 순으로 그 뒤를 잇는 것이 확인된다.



<그림14> 2006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현황

① 가치적 측면

○ 독립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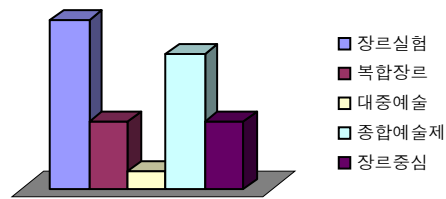


독립예술의 경우 대중예술과 복합장르의 매체적 특징이 두드러졌으며, 장르실험과 종합예술제에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장르중심 부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독립예술의 경우, 복합장르와 대중예술의 매체적 특징이 타 가치 범주에 비교해볼 때 가장 많다는 특성을 가진다. 독립예술의 각 매체별 사업은 아래와 같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인디다큐페스티벌2006
복합장르	혼혈악(Mixed Blood of Music) - 2
대중예술	라이브스테이션, 사운드데이 오디션
장르중심	반지하 작가 지원전

<그림 15> 2006 독립예술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신청사업 현황

○ 공동체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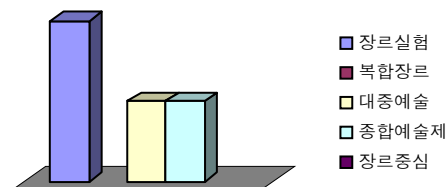


공동체예술부문은 장르실험의 매체적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합예술제, 복합장르, 그리고 장르중심이 그 뒤를 따른다. 공동체예술의 경우, 타 부문과는 달리 장르실험 부문이 타 가치범주에 비하여 가장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노인과 어린이, 세대를 잇는 인형극워크숍
복합장르	'포장마차 시낭송회'
대중예술	지금, 웃기러 갑니다.
종합예술제	놀토 우리는 안성으로 간다
장르중심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역할놀이공연

<그림 16> 2006 공동체예술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 문화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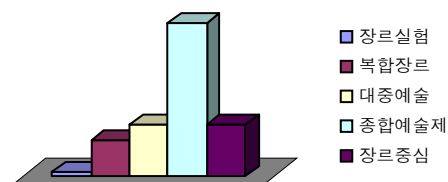


문화행동부문은 장르실험과 대중예술, 종합예술제의 매체적 특징을 가진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장르실험부문의 신청작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두 바퀴로 질주하는 공공미술 투어
대중예술	<우리만화>지 발간 사업
종합예술제	(사)한국민예총 전북지회 문화예술비평지 "품"발간

<그림 17> 2006 문화행동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신청사업 현황

○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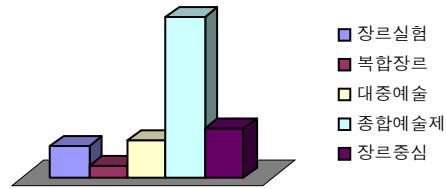


사회참여부문은 종합예술제의 매체적 특징을 가진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인식의 재구성, 생활의 재발견'탐구생활'
복합장르	제 4회 여성공간문화축제
대중예술	2006년 노동만화전 '들꽃'
종합예술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거리그림시화전
장르중심	바다에서 강으로 환경노래극 "연어"

<그림 18> 2005 사회참여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신청사업 현황

○ 시민문화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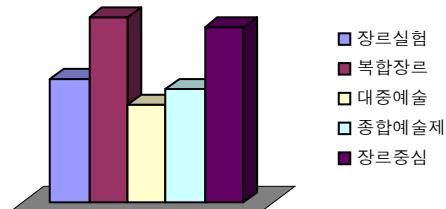


시민문화체험부문은 종합예술제의 매체적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장르중심, 대중예술, 복합장르, 장르실험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이 드러났다. 시민문화체험은 특히 타 가치 범주와는 달리 장르실험, 복합장르, 대중예술 범주가 매우 낮다는 특이성을 보인다. 이 분야 사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아코디언 들려주는 여자)
복합장르	거리컨텐츠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거리에서 만나는 회상'
대중예술	통일을 향한 "재즈&힙합댄스 페스티벌"
종합예술제	'2006거창민족예술제'
장르중심	바쁜 일상의 현대인을 위한 연극 <느림>

<그림 19> 2005 시민문화체험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신청사업 현황

○ 예술가치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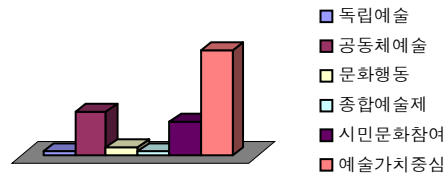
예술가치중심부문은 복합장르와 장르중심의 매체적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장르실험, 종합예술제, 시민문화체험 대중예술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타 범주와 비교 할 때 실험적인 접근인 복합장르와 장르실험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매체	사업
장르실험	Brand New 국악밴드 "SOREA(소리아)" 1st 앨범
복합장르	크로스오버를 통한 새로운 예술찾기2-토탈미술관과 춤
대중예술	한여름 밤의 매직 콘서트
종합예술제	2006대보름 문화예술제
장르중심	연극인 다큐멘터리 제작 및 보급 사업

<그림 20> 2005 예술가치중심 범주 매체별 비율 및 신청사업 현황

② 매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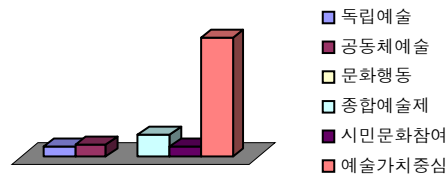
○ 장르실험



장르실험부분의 경우 예술가치중심의 가치적 특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동체예술이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21> 2005 장르실험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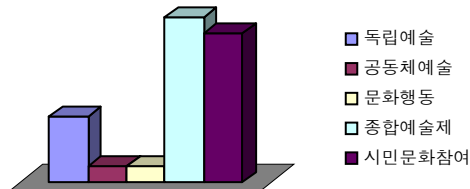
○ 복합장르



복합장르부분 역시 예술가치중심 부문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그림 22> 2005 복합장르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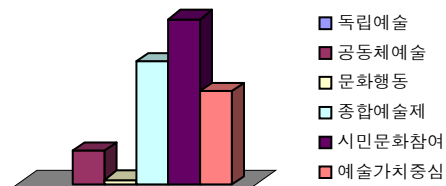
○ 대중예술



대중예술의 경우 사회참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시민문화체험, 독립예술, 공동체예술, 문화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예술분야는 타 분야와는 달리, 사회참여와 독립예술부문이 비교적 많다.

<그림 23> 2005 대중예술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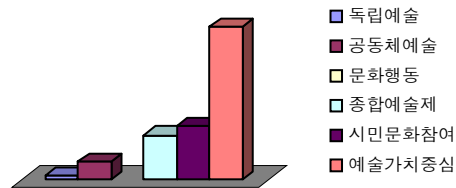
○ 종합예술제



종합예술제 분야는 시민문화체험과 사회참여 중심으로 가치적 특징이 분포하였으며, 장르중심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림 24> 2005 종합예술제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 장르중심



장르중심은 절대적으로 예술가치중심 사업이 많으며, 시민문화체험과 사회참여가 약간의 수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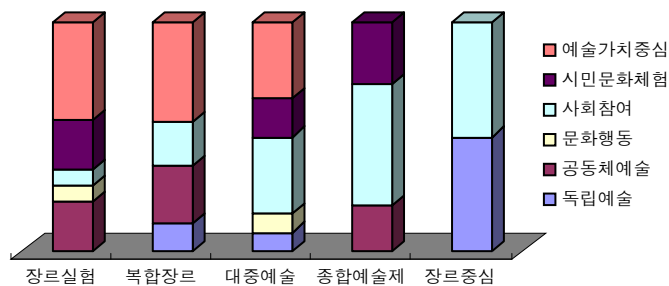
<그림 25> 2005 장르중심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2) 2006년 선정 결과

이번에는 2006년 기금 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모두 59개 사업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매체 가치	장르실험	복합장르	대중예술	종합예술제	장르중심	계	%
독립예술		2	1		1	4	6.8
공동체예술	3	4		3		10	17.0
문화행동	1		1			2	3.4
사회참여	1	3	4	8	1	17	28.8
시민문화체험	3		2	4		9	15.3
예술가치중심	6	7	4			17	28.7
계	14	16	12	15	2	59	
%	23.7	27.1	20.3	25.5	3.4		100

<표 4> 2006 다원예술 선정사업 현황



<그림 26> 2006 다원예술 지원 선정사업 현황 도표

당선작을 매체적 특징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복합장르와 장르실험 부문이 가장 많으며, 이 두 분야가 과반수를 넘는다. 그 다음으로는 대중예술과 종합예술제가 같은 규모를 보이고 장르중심은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참여와 예술가치중심 범주가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한편, 공동체예술과 시민문화체험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독립예술, 문화행동 순

으로 그 뒤를 잇는 것이 드러났다.

각 범주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독립예술부문은 복합장르의 매체적 특징을 가진 사업이 집중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공동체예술부문은 장르실험과 복합장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문화행동부문은 장르실험과 대중예술의 특징이, 시민문화체험부문은 장르실험, 대중예술, 종합예술제의 매체적 특징이 나타났다. 당선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가치중심부문의 사업은 장르실험과 복합장르, 대중예술부문의 매체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원 당선작과 신청작을 비교하면, 당선작들은 매체적 측면에서는 장르실험과 복합장르 부문, 가치적 측면에서는 예술가치중심과 독립예술부문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신청 규모에 비하여 매체적 측면에서의 종합예술제와 장르중심 부문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되었고, 가치적 측면에서의 시민문화체험이 적게 선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2005, 2006년 비교 분석

(1)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신청사업 및 선정사업 비교

매체 가치		장르실험 (a)	복합장르 (b)	대중예술 (c)	종합예술제 (d)	장르중심 (e)	계	%
독립 예술 (A)	05	2	6	5	3	-	16	6.5
	06	1	3	4	-	1	9	3.0
	계	3	9	9	3	1	25	4.5
공동체 예술(B)	05	6	3	1	2	-	12	4.8
	06	10	4	1	8	4	27	8.9
	계	16	7	2	10	4	39	7.1
문화 행동 (C)	05	-	1	1	-	-	2	0.8
	06	2	-	1	1	-	4	1.3
	계	2	1	2	1	-	6	1.1
사회 참여 (D)	05	3	3	13	19	6	44	17.7
	06	1	7	10	29	10	57	18.8
	계	4	10	23	48	16	101	18.3
시민문 화체험 (E)	05	1	2	6	24	6	39	15.7
	06	8	3	9	39	12	71	23.4
	계	9	5	15	61	20	110	20.0
예술가 치중심 (F)	05	29	42	9	29	26	135	54.5
	06	24	36	19	22	34	135	44.6
	계	53	78	28	47	64	270	49.0
계	05	41	57	35	77	38	248	
	06	46	53	44	99	61	303	
	계	87	110	79	170	105	551	
%	05	16.5	23.1	14.1	31.0	15.3		100
	06	15.2	17.5	14.5	32.7	20.1		100
	계	15.8	20.1	14.3	30.9	18.9		100

<표 5> 2005/2006 다원예술 지원 신청사업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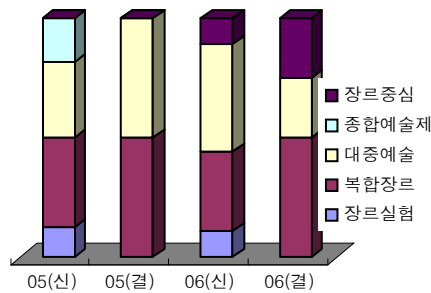
매체 가치		장르실험 (a)	복합장르 (b)	대중예술 (c)	종합예술제 (d)	장르중심 (e)	계	%
독립 예술 (A)	05	-	4	4	-	-	8	16
	06	-	2	1	-	1	4	6.8
	계	-	6	5	-	1	12	11.0
공동체 예술 (B)	05	2	2	-	2	-	6	12
	06	3	4	-	3	-	10	17.0
	계	5	6	-	5	-	16	14.7
문화 행동 (C)	05	-	-	-	-	-	0	0
	06	1	-	1	-	-	2	3.4
	계	0	0	0	0	0	2	1.8
사회 참여 (D)	05	1	1	-	2	-	4	8
	06	1	3	4	8	1	17	28.8
	계	2	4	4	10	1	21	19.3
시민문 화체험 (E)	05	-	-	3	3	-	6	12
	06	3	-	2	4	-	9	15.3
	계	3	0	5	7	0	15	13.8
예술가 치중심 (F)	05	7	15	1	1	2	26	52
	06	6	7	4	-	-	17	28.7
	계	13	22	5	2	1	43	39.4
계	05	10	22	8	8	2	50	
	06	14	16	12	15	2	59	
	계	24	38	20	24	3	109	
%	05	20.0	44.0	16.0	16.0	4.0		
	06	23.7	27.1	20.3	25.5	3.4		
	계	22.0	34.9	18.2	22.1	2.8		100

<표 6> 2005/2006 다원예술 지원 선정사업 현황 비교

(2) 가치적 측면과 매체적 측면의 범주별 분석

① 가치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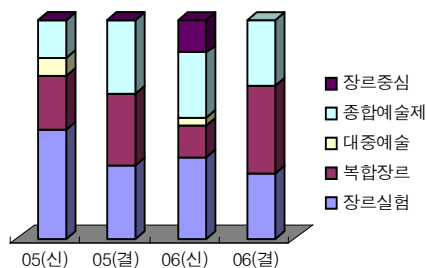
○ 독립예술



2005년과 2006년을 대비하여 살펴보았을 때 독립예술 분야는 신청사업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난다. 장르실험과 복합장르부문의 신청사업은 05년 대비 06년 사업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대중예술은 비슷한 규모를 보이며, 종합예술제는 전무한 반면, 장르중심이 새롭게 등장했다. 당선작은 복합장르와 대중예술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2005/2006 독립예술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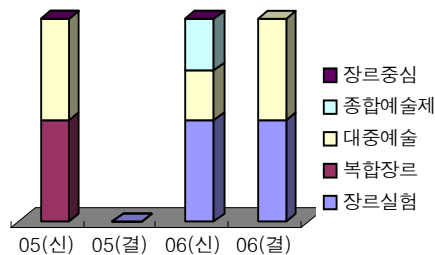
○ 공동체예술



공동체예술은 전반적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르실험, 복합장르는 대폭 늘었고, 가장 많이 선정된 부문으로 나타난다. 두 해에 걸쳐 대중예술은 비슷한 신청 비중을 보이나 모두 선정되지 않았다. 종합예술제는 신청은 대폭 늘었으나 선정 비율에서는 약간의 증가분만 보인다. 이외에 장르중심은 06년 신청사업에서만 보이나, 선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림 32> 2005/2006 공동체예술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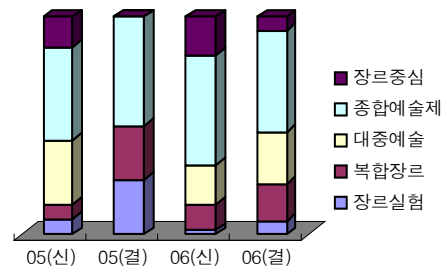
○ 문화행동



문화행동 분야는 05, 06년을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증가했으나, 복합장르부문이 없어진 반면에 장르실험 부문이 크게 증가한 것은 특이한 점이다. 대중예술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2005/2006 문화행동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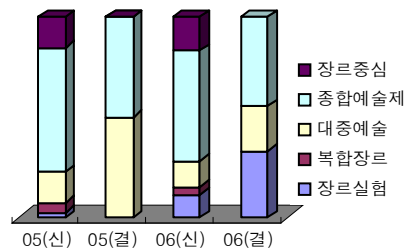
○ 사회참여



사회참여부문은 두 해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하였고, 특히 당선작이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인다. 복합장르부문과 종합예술제, 예술가치중심부문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중예술부문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4> 2005/2006 사회참여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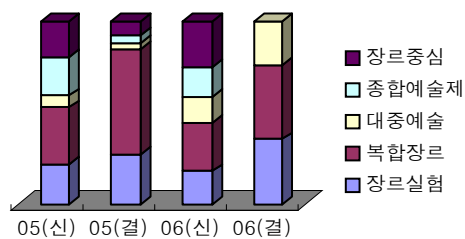
○ 시민문화체험



시민문화체험부문은 두해 사이에 전반적으로 증가한 신청세를 보인다. 특히 장르실험, 대중예술, 종합예술제부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선정결과는 05년에 대중예술과 종합예술제부문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장르실험이 대폭 늘어나면서 3 부문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2005/2006 시민문화체험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 예술가치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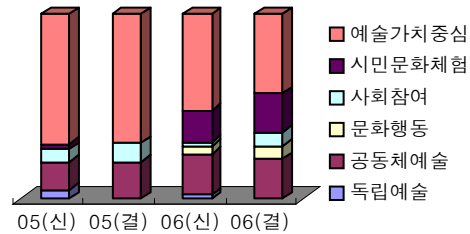


예술가치중심부문의 사업은 두해에 비슷한 규모로 신청되었으나, 2006년 전체 신청건수가 약 50건 정도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당선작의 수는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감소는 모든 부분에 나타나지만 대중예술과 장르중심으로 늘어났으며, 선정사업에서는 장르실험과 대중예술부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6> 2005/2006 예술가치중심 범주 매체별 비율 현황

② 매체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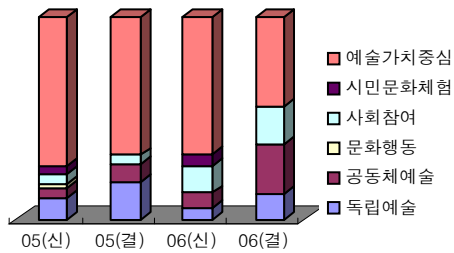
○ 장르실험



장르실험은 두해를 비교하면 신청건수와 선정건수 모두 증가했다. 가치적 특징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공동체예술과 문화행동, 시민문화체험이 크게 증가하였고, 독립예술, 사회참여부문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예술가치중심은 크게 감소했다.

<그림 37> 2005/2006 장르실험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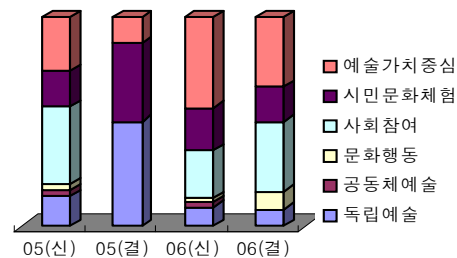
○ 복합장르



복합장르부문은 두해를 비교했을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치 중심으로 분석하면 독립예술, 문화행동, 예술가치중심은 줄어들었으나, 공동체예술과 사회참여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당선작 중에서 예술가치중심 부문의 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38> 2005/2006 복합장르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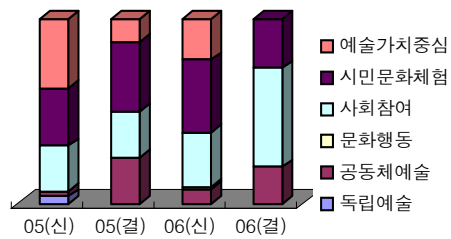
○ 대중예술



대중예술은 두해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치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독립예술과 사회참여부문이 소폭 감소한 한편, 공동체예술과 시민문화체험, 예술가치중심부문은 증가했다.

<그림 39> 2005/2006 대중예술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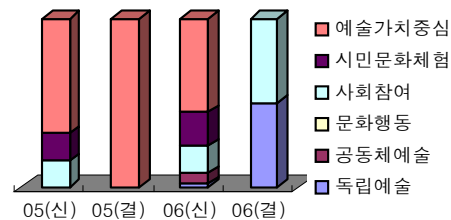
○ 종합예술제



종합예술제부문은 소폭 증가하였다. 가치 범주로 살펴보면 공동체예술과 사회참여, 시민문화체험부문이 상당히 늘었지만 독립예술, 예술가치중심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선정된 사업 중에는 시민문화체험부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7> 2005/2006 종합예술제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 장르중심



장르중심부문의 사업은 05년에 예술가치중심에만 편중되어 있던 선정작의 비율이, 06년에는 사회참여와 독립예술부문으로 큰 폭 달라지는 것이 드러난다.

<그림 37> 2005/2006 장르중심 범주 가치별 비율 현황

(3) 교차 분석

가. 실험성, 다양성 증대

매체적 실험성이 강조되는 장르실험은 신청 및 선정 부문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를 보이나, 복합장르부문은 신청이 감소하고 선정부문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르실험과 복합장르부문을 가치적 측면으로 재분석하면 신청 및 선정 부문에서는 예술가치 중심에 비중이 많은 반면, 선정결과에서는 공동체예술과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치적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공성 증대

예술의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문화체험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발견된다. 가장 큰 비중은 종합예술제 부문에서 보이고, 장르실험과 대중예술 부문이 그 뒤를 잇는다. 실험적인 방식의 접근이 증대한 한편,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예술장르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도 큰 특징이다.

다. 사회성 증대

비판적 사회성을 가지는 문화행동과 사회참여부문의 사업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 선정작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부문의 경우 특히 선정

비율에서 큰 증가세를 보인다. 또한 사회참여의 경우 복합장르와 종합예술제 부분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선정된 사업 중에서는 복합장르부문이 비교적 증가한 반면, 예술가치중심이 크게 줄어 실험적인 사회참여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예술가치중심의 저조한 지향

가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신청작들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예술가치중심 부문이 가장 크지만, 2006년에는 9.9%의 감소율을 보인다. 예술가치중심 부문은 매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복합장르와 장르중심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장르실험과 복합장르 분야는 신청이 줄어들었으나, 대중예술과 장르중심에서는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선정작의 비율은 신청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했고, 두해를 대비하면 2006년 선정사업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를 기초로 예술가치중심은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적어지고 있으며, 실험성을 가지는 매체형식의 경우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 주류 예술 사업 대거 지원

기간 예술 경향에 따르는 사업이 대거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기간 장르중심 예술 현상과 제도에 반하여 다원예술적 실천이 조직되어 왔으나 신청사업에는 장르중심 예술과 장르중심 예술을 기능적으로 종합하여 배치한 종합예술제 등의 사업이 대거 신청작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 선정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타 예술장르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지원

타 예술장르에 포함되기 어려운 사업이 대거 지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장르가 출연하는 종합예술제, 예술복합 등 예술장르가 기능적으로 복합된 사업, 대중예술 등의 사업이 대거 문화예술진흥기금 다원예술 지원 신청작으로 유입되었다. 이들 사업은 다원예술적 실천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타 기금 신청사업은 장르 중심으로 편성되어 이들 사업을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원예술분야로 유입되었다고 풀이된다.

부록3. 국내 다원예술 지원제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1.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변화과정

1) 1990년대 비주류문화 및 독립예술의 관심

반권위, 반문화, 비제도, 대안, 소수, 아방가르드, 인디 등의 비주류 예술활동으로 규정되는 독립예술은, 다양한 장르 활동을 포괄하며 복합장르 등으로 형식을 한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독립예술은 기존의 주류로서 형성되어 있는 예술의 흐름(예를 들면 상업적 대중문화, 순수예술 등), 사회의 주류로 인지되는 예술의 흐름에 비해 반권위적, 비주류적, 대안적 예술의 흐름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주류의 예술로서 이미 고정화된 예술형식과 내용 외에 다양하고 실험적인 형식과 내용, 예술의 제작 방식을 가진 대안문화, 실험문화적 예술, 비주류적 문화실천의 양상 전체를 통칭하였다.

독립예술에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80년대식 이념적 저항문화와 90년대 이후의 신세대문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포괄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90년대 문화담론들이 쏟아낸 무수한 개념들, 저항문화 counter culture, 하위문화 sub-culture, 반문화 anti-aesthetics, 비제도권으로서 언더그라운드, 대안 alternative, 소수 minorities, 아방가르드 avant-garde, 인디 indie: independent production과 같은 단어들이 지칭하고 있는 다양한 비주류적 non-mainstream 문화현상들에 걸쳐져 있다.

독립예술 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경향과 현상들이 서로 얹혀 있다. 장르를 보더라도, 연극, 무용, 마임 등 공연예술분야를 비롯하여, 영화, 미술,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가 존재한다.

독립예술 관련 행사의 일부 예를 들면, <유스페스티벌>, <독립예술제>, <변방연극제>, <부천 만화축제>, <인디포럼>, <퀴어영화제> 등으로 독립예술의 흐름을 축제적으로 모아낸 행사로서 기존의 문화예술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다양한 비주류적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활성화시켜 우리 문화예술의 다원성과 창조적 역동성을 고양시키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1년 ‘독립예술지원사업’으로 첫 정책적 관심이 결실을 거두었다

2) 2000년대 다원적 예술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⁶⁷⁾

2002년 ‘다원적 예술활동지원’으로 전환하였다. 2001년 이후 독립예술이란 용어가 공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인디, 실험, 대안문화 등과 함께 사용되었고 2002년부터는 독립예술 분야와 탈장르, 복합예술분야의 다양하고 새로운 경향의 사업들을 수용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다원적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한 것이다.

‘다원적예술지원’은 기성 예술장르와 변별되는 독립, 실험, 대안적 경향의 예술형식·내용·제작방식을 가진 비주류 예술관련 활동과 다양한 소수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비상업적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과 그 발표 및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포괄하면서 매년 10-25%씩 예산을 증액하였다.

2003년에서 2006년에 이르기까지 ‘다원적예술지원’은 기성 장르에서 민진기금 지원 받는 단체 개인 제외하는 등 기성 장르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예술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정책방향을 뚜렷이 해나갔으나 실제 지원신청, 심의 등 지원제도에 서도 이를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지는 못 했다.

2006년에는 위 신청자격 항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예술창작지원의 한 분야로 재편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2006년 ‘다원적 예술’에서 ‘다원예술’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개념정의가 쟁점으로 거론되었다. 또, 사업목표 유형과 부합을 떠나 영화 영상 작업은 제외하여 영진위 지원 분야로 돌리는 등 다원예술 활동에 대한 영역과 실질적 지원범위를 제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3) 실험예술의 부각 및 지원대상의 명료화 필요

2006년도까지 다원예술지원의 개요는 ①정형화된 기성(순수) 예술 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 실험 대안적인 경향의 예술형식 내용 제작방식 등 비주류 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새롭고 다양한 예술 흐름을 수용 개발할 뿐만 아니라, ②대중문화의 질적 향상과 그 발표 및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나타나듯 다원적 예술활동에 대한 규정은 독립, 실험, 대안의 비주류 예술활동이 주요 키워드이다. 그런데 이중 독립과 대안의 구체적 가치는 명시되지 않으므로, ‘실험’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장르복합, 혼합장르, 탈장르, 매체실험 등 예술의 형식적 실험으로 요약되는 실험예술 분야가 다원예술의 주류로 부상하는

67) 다원예술의 관심형성에 바탕이 되어온 것은 예술계 주변부에서 나오는 독립예술 분야의 성장이다. 2004년 새예술정책 보고서에는 독립예술 분야가 들어있다(이규석, 안이영노). 하지만 독립예술 분야만이 다원예술지원에 대한 관심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연대 등 시민문화 운동을 중심으로 문화행동기획단 등이 만들어져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및 시민문화와 만나는 청년예술활동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예술계 내에서도 미래의 예술, 예술의 미래에 대한 논의기회가 형성되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의 해 사업 중 2000년도 새로운예술의 해 사업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정보미디어를 활용하는 예술, 장르복합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예술의 매체와 장르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예술, 기존장르를 넘어서는 예술적 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향이 있다. 그와 더불어 비주류(혹은 비상업적) 대중문화 지원이 결합되어 있다.

2007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개요는 ‘예술의 창조적 중 다양성 확대를 위해 기성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기획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내용은 ①새로운 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②독립예술, ③비상업적인 대중예술, 비주류 예술 등이다. 사업 개요에서 다원예술분야의 정책 목표는 좀더 명확해졌으나, 사업 내용이 이전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업개요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있지 못하다. 다원예술분야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지원 대상의 모호함이다.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비전을 구체화하면서 다원예술분야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인 사업대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비교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⁶⁸⁾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한국사회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의 예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5년 드럭에서 정기공연이 시작되며 인디음악의 시작을 알렸고, 1996년에는 최초의 독립영화축제인 인디포럼이 개최되었으며 독립영화협회가 1998년 발족했다. 1998년에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전신인 독립예술제가 창설되었고, 대안공간 루프와 대안공간 풀이 1999년 문을 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독립, 실험, 대안, 비주류, 다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은 존재해 왔으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90년대 후반 문예진흥원은 비상업적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독립영화, 비주류 대중음악 등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1997년에는 실험예술지원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나 지원신청 저조로 폐지되었다.

<표1>연도별 다원예술 관련프로그램 지원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결정 (실지원)	지원금액 (천원)
1997	실험예술 지원사업	○변화발전하는 문화환경과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의 미래화, 세계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험적 독창적으로 새롭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함. 심철중-자동차씨모의 재판 (3,000) 등	6	61,000
1997	대중예술 활동지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중예술 관련 공연활동, 연구활동, 도서발간 사업 등을 지원	15 (13)	58,000 (50,000)
1998	대중예술 활동지원		11	153,000
1999	대중예술 활동지원		15(14)	200,000 (197,000)
2000	대중예술 활동지원		16(15)	150,000 (145,000)
2001	대중예술		11(10)	100,000

68) 1절은 다원예술위원회 1차 월례포럼의 발제문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현황”(양효석)에 기초해서 쓰여졌음을 밝힌다.

	활동지원			(93,000)
2001	독립예술지원	○정형화된 기성(순수)예술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인디)·실험 대안적인 경향의 예술형식·내용·제작방식 등 비주류 예술활동 장려	28(23)	100,000 (86,500)
2002	다원적예술지원	○기성(순수)예술장르와 변별되는 독립(Indie), 실험, 대안적인 경향의 예술형식·내용·제작방식 등 비주류 예술관련활동 ○다양한 소수문화(Minority Culture)활성화	46	500,000 (194,000)
2003	다원적예술지원		48	562,000
2004	다원적예술지원		47	620,000
2005	다원적예술지원		50	849,000
2006	예술창작역량강화-창작프로그램지원(다원)	○대중 문화의 질적 향상과 그 발표 및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59	849,000
	예술창작역량강화-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다원)	○전국규모 장르별 예술행사, 또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예술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5	230,000
	예술창작역량강화-신지예술가뉴스타트 및 지속프로그램지원(다원)	○역량있는 차세대 젊은 예술가의 창작·작품발표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	12	100,000

독립예술제의 등장과 성공적인 개최는 2001년 문예진흥원의 ‘독립예술지원사업’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기성 예술장르 내의 활동을 벗어나 있는 예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2001년 독립예술지원사업은 대중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을 분리하여 1억원으로 출발하였다.

독립예술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다원적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독립예술’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탈장르, 복합장르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적 실천들을 수용하기 위한 명칭변경이었다. 예산 역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매년 10-25%씩 증액을 거쳐 2005년에는 8억 4천 9백만원에 이르게 된다.

<표2>다원예술분야 지원신청 및 지원현황 추이(2001-06년 / 단위 : 천원)

연도	지원사업명	신청 건수	지원 건수	신청액	지원액
2001	독립예술지원	218	28	3,872,285	100,000
2002	다원적예술지원	183	47	3,412,105	500,000
2003	다원적예술지원	143	48	3,800,220	562,000
2004	다원적예술지원	180	47	4,246,871	620,000
2005	다원적예술지원	251	50	6,575,906	849,000
2006	다원예술지원	307	59	8,026,613	849,000
	신진예술가 및 뉴스타트지원	23	12	218,000	100,000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35	5	3,903,750	230,000
	소계	365	76	12,148,363	1,179,000

2006년도에는 다원예술 정책분야의 전환기라 할 만한 해였다. 문예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과 함께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설치에 다원예술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전망 수립을 통해 지원시스템 구축과 창작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원프로그램 명칭은 ‘다원적예술’에서 ‘다원예술’로 변경되었으며, 타장르와 함께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 내 창작프로그램으로 편제되었다. 사업영역 또한 신진예술가 및 뉴스타트지원과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에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예산 11억7천 9백만원에 신청건수도 365건을 기록, 다원예술 창작의 활성화와 함께 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2007년 다원예술지원 프로그램은 다원예술 일반지원 외에 새장르 공공예술 프로젝트, 신진예술가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지원

- 내용 : 새로운 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 독립예술 / 비상업적인 대중예술, 비주류예술
- 사업형태 : 공연(페스티벌 포함),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기획 활동
 - :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및 평론 활동
 - : 도서, CD 등 시청각자료의 발간·제작 및 보급 활동
 - : IT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자원의 구축 및 활용 등 정보화 사업
 - : 기타 다원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 (다원예술)새장르 공공예술 프로젝트

- 지원신청 자격 :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사업내용 :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
 - :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
 - : 특정 장소나 사안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예술 프로젝트
 - : 특정 공간을 활성화 하는 예술 프로젝트
- 사업형태 : 공연(페스티벌 포함), 전시, 퍼포먼스 등 창작 및 기획 활동
 - :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연수 및 평론 활동
 - : 도서, CD 등 시청각자료의 발간·제작 및 보급 활동
 - : IT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자원의 구축 및 활용 등 정보화 사업
 - : 기타 다원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 신진예술가 지원

- 지원신청자격 : 만 35세 이하(1972. 1. 1 이후 출생)이며 데뷔 5년 이하인 개인
 - : 다원예술분야 예술가
 - : 다원예술분야 기획, 음향, 조명, 무대, 의상, 분장 등 관련 분야 종사자
- 지원대상사업 : 신진예술가 성장 프로그램
 - : 개인 창작 및 기성 작품 발표 등의 공연 및 전시
 - : 창작 소재 개발 등 국내 및 해외 연구·연수
 - : 신진예술가 데뷔 프로그램

2) 기타 다원예술지원정책 현황

(1) 경기문화재단

2004년은 경기문화재단 일반공모에 실험예술분야가 포함된 첫 해다. 사실상 다원예술과 관련한 지원정책이 처음 등장한 해라 할만하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사업은 3건에 불과했다. 물론, 아마추어 예술활동과 관련한 것을 폭넓게 수용한다면 이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민의 문화예술직접 참여기회 확대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민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2004년에는 또,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기존 지원사업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독창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통해 도민에게 새로운 유형의 예술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1)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독립큐레이터 공공미술 기획 지원 ○역사성, 지역성을 담보한 벽화 그리기 지원 (2) 문화예술의 현장 다큐멘터리(영상, 사진) 기획제작 지원 (3) 예술인 세계문화체험 프로

젝트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다원예술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표방한 사업의 결과는 이후 정책 수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정기공모에서는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내용 자체가 큰 변화를 겪었다. 일반공모지원과 특별공모지원으로 양분되어 있던 지원제도는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진흥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 기회 확대 △지역문화예술균형발전과 다양성의 조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 및 지역문화 특성 연구 등으로 확대 분류되었다. 2005년 정기공모에서는 다원예술과 관련된 지원 내용도 크게 늘었다. ‘문화 예술 창작 활동 진흥’에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 기회 확대’에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이 신설되고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포함되었다. 공공·실험예술의 경우, 2004년 정기공모의 실험예술의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도 4배 가깝게 확대편성되었다.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지원과 비교해 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이라는 항목에 공공, 실험, 대안, 인디, 독립, 소수자 문화 등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함께 넣고 있는 것에 비해 경기문화재단은 공공실험예술과 소수자 문화예술을 분리하는 것을 통해 내용적 지향을 뚜렷이 하고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더해 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3>경기문화재단 연도별 다원예술 관련프로그램 지원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 선정 (건)	지원 금액 (천원)
2004	실험예술	○기존 장르에 포함되지 않으나 순수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독립 예술이나 실험 예술 또는 대안 예술 등 전통적인 예술 형식·내용·제작 방식 등에서 벗어난 비주류 예술 활동	3	24,500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기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예술 활동 발굴 지원	8	104,000
2005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공공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즐기며 함께 소유하는 예술 지원 ○전통적인 장르예술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내용과 새로운 형식의 도전적·실	13	100,000

		협적·복합적 예술활동 지원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도민들의 자생적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동호회(아마추어)의 순수 문화예술관련 활동 지원. ○자발적, 자생적인 공동체 문화 운동 및 마을 축제 지원	118	300,000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	○장애우,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 소수자 문화예술 향수 및 참여기회 확대 활동 지원	17	70,000
2006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2005년과 동일	14	110,000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2005년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동일	100	330,000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 활동 지원	○2005년과 동일	15	76,000

이 기조는 2006년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도민의 자생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항목이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 외에는 다원예술 관련 지원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10% 가량 상승했다.

<표3>다원예술 지원내용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자격
2006	공공·실험예술 활동 지원	○공공예술 :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요구에 능동적이면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마을벽화그리기, 문화예술놀이터만들기, 치매노인을 위한 미술워크숍, 보디아트, 퍼포먼스, 웹아트, 실험영상, 다큐멘터리, 생태음악 등 공연, 전시, 기획, 제작, 발간, 창작발표, 워크숍 등의 활동 ○실험예술 : 새로운 문화적 흐름들을 창출하고 문화예술영역을 다양다각화하는 전통적인 기초예술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영상예술 등 다양한 내용과 새로운 형식의 도전적·실험적·복합적 예술활동	예술인(단체), 매개자(단체)

	아마추어 문화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동호회의 전시, 공연, 출판·발간 등 문화예술관련 창작발표활동 ○ 지역주민상호간의 소통과 공감대확대를 통한 향토애 및 자긍심 고취 및 지역공동체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자발적인 지역문화예술 연대활동 ○ 자생적인 주민들의 문화예술행사나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기획·참여하여 만드는 장승제, 야학한마당, 풍어제, 마을문화마당(축제·잔치), 동네백일장, 풍물굿, 전래놀이, 민속 등의 문화예술활동 ○ 박물관·미술관·문화의 집·문학회 등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매개자 (단체), 향유자 (단체)
	소수자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증진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신장과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거리문화(축제), 생활문화, 놀이문화,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예술치료 프로그램, 장애인장애 통합 프로그램 등 각종 문화예술활동 ○ 노인회관, 장애우단체, 청소년 쉼터·감호소,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의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한 각종 문화예술활동 	예술인 (단체), 매개자 (단체), 향유자 (단체)

(2)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출범하였으나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이전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대행했을 뿐이며 지원사업 명칭도 ‘2004년도 문예지원공모사업’이었다. 2005년에는 지원사업의 명칭부터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시민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지원목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재단이 문예진흥원과 차별화되는 지원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5년도에는 ‘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공미술 · 복합미술 지원(시각예술 분야)’이 진행되었다. 공공미술은 ‘단순 전시 및 설치가 아닌 서울의 한 공간을 선택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복합미술은 ‘다양한 장르 및 형식과의 적극적인 접목을 통한 타 분야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모델 제시’를 지원목적으로 삼았다.

서울문화재단은 설립준비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다원예술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와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나 명시된 다원예술 지원분야는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과 2006년 양년간의 지원 사업의 지원부문과 내용 및 지원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다원예술에 직접 연관된 사업내용이 별도의 항목으로 묶여져 있지는 않았다.

다만, 2005년과 2006년 모두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의 중점 지원 방향 중 하나로 “전문예술단체(인) 및 아마추어동호회의 시민문화향수기회확대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지원을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한 분야로 본다고 했을 때, 이는 서울문화재단의 정기 공모 사업에서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부문에서는 2005년과 2006년도 모두 문화예술일반부문(무용, 연극, 영화,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6개 장르)과 문학, 미술 등에 아마추어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되어 있다.

다만, 2005년과 2006년 문화예술일반과 문학·미술부문의 경우 전문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동호회 간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 그 분포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제 심사위원 총평에서도 사업 자체에 대한 물이해에서 비롯되는 예술창작활성화 및 수월성제고사업과의 사업상의 혼동이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응용예술 부문(일반)을 들 수 있다. 일반 장르는 기초예술 장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 또는 예술의 창작성보다는 개인 및 제한된 단체 회원의 활동,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폭넓은 시민이 아닌 제한된 회원의 참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내에서도 연 2회의 심사를 통하여 소액 다건형으로 지원되지만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흡수하여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다원예술 분야를 설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표5>서울문화재단 연도별 지원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 결정 (건)	지원 금액 (천원)
2005	문화예술일반부문(무용, 연극, 영화,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6개 장르)	○각 장르의 전문예술단체(개인) 및 아마추어동호회의 시민문화향수기회확대 사업 및 시민참여형 문화사업	198	1,218,000
2005	문학미술 부문(A)	○문학미술 부문의 전문예술단체(개인) 및 아마추어동호회의 시민문화향수기회확대사업 및 시민참여형 문화사업	29	100,600
2005	2005년도 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일부)	○기존의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예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7	140,600

2006	문화예술일반부문(무용,연극, 영화,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등 6개 장르)	○각 장르의 전문예술단체(개인) 및 아마추어동호회의 서울의 정체성 제고 사업 및 시민문화향수기회확대 문화사업	186	1,200,000
2006	문학미술 부문(A)	○문학미술 부문의 전문예술단체(개인) 및 아마추어동호회의 시민 문화향수기회확대사업 및 시민참여형 문화사업	24	116,000

(3)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중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사업 안에 문학 및 문화예술 평론, 전시예술, 공연예술과 더불어 다원예술 지원을 두었다. 2006년도부터 실시한 다원예술은 2007년도에도 ① 공연, 전시, 문학 등 여러 장르에 걸친 복합장르의 발표활동 ② 위의 장르/영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장르/분야의 발표활동 및 창의력 있는 대안문화활동 ③ 인천 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문화 예술 발표활동 등으로 그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는 장르복합, 기존 장르에 포함하지 못 하는 대안적 활동, 대중문화예술 등 기존 장르를 넘어서거나 이에 담길 수 없는 예술활동 일반을 바라보는 차원에 있는 것으로, 다원예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과 달리 다원예술 지원분야를 설정하여 이의 육성을 목적하고 있다.

한편 생활문화활동 지원분야를 두었는데, 이는 서울문화재단의 응용예술일반 지원부문과 마찬가지로의 취지를 갖고 있다. 2006년 시민문화활동지원금 ①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①참여형 ·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명료하게 하고 특히 동호인 및 아마추어 지원으로 사업성격을 보다 확대하였다. 인천문화재단이나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이 가진 주민의 자생적 문화활동 지원, 소수자문화예술향유사업, 아마추어문화활동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가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원방향을 통해 다원예술에서도 담기 힘든 자생적 문화활동, 커뮤니티활동, 아마추어예술인 활동 등 기층을 형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 지원사업은 크게 제작과 배급 차원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제작지원 사업으로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지원과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이 있고, 배급지원 사업으로는 예술영화전용관 선정지원 사업과 독립영화 DVD 제작/배급지원 사업이 있다.

<표6>영화진흥위원회 2006 지원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 결정 (건)	지원 금액 (천원)
2006	독립다큐멘터리제작 지원	○독립다큐멘터리의 제작비를 지원함 으로써 안정적인 제작기반 구축 및 제작활성화에 기여함	10	100,000
2006	독립영화제작지원	○독립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제작기반 구축 및 제작 활성화에 기여함	38	294,000
2006	예술영화전용관(아트 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선정지원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 경 조성,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대 를 통한 장기적인 한국영화 진흥 방안 모색 ○예술영화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대안적 배급체제 형성	12	523,941,075
2006	독립영화 DVD 제작/ 배급지원	○극장배급 및 상영이 어려운 독립영 화의 배급환경을 개선하고 일반인 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독립영화의 인지도 제고 및 안정적인 배급활 로를 마련코자 함	10	80,000

영진위의 지원사업은 초기 제작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오다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배급지원까지 확대되어 온 것으로, 생산된 작품이 실제 유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고 할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지원

- 지원대상 : 필름 및 비디오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 신청자격 :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일반인
- 신청형식 : 사전제작지원, 후반작업지원
- 지원내용 : 작품별로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순제작비의 50%까지 차등 지원
- 지원횟수 및 예산 : 상/하반기 연 2회, 100,000,000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선정지원

- 지원대상 :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의 상영을 통해 영화관 운영을 특화시키려는 영화관 운영자
- 신청자격 : 영화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 운영약정대상 기간동안 상영관 운영이 가능한 영화관 운영자
- 지원규모 : 1개 프로젝트 당 10,000천원 내외, 총 20개 내외 지원
- 선정 영화관 수 : 전국10개 영화상영관 내외

- 지원조건 : 아트플러스 시네마네트워크 영화관 의무상영 쿼타 시행
- 지원금 : 운영보조금(좌석규모에 연동한 정액 보조금, 사전결정)
프로그래밍 실비 지원금(프로그래밍 상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아트플러스 공동프로그래밍 및 영화관 개별프로그래밍 구분 지원, 연간 총 예산 140,000,000원)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디레이블 육성 사업은 2003년 최초로 시작됐다. 시행 첫해에는 차에 걸쳐 40여개 음반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집행했으며 2004년 25개, 2005년 20개, 2006년 20개를 각각 지원해 왔다. 비주류의 비상업적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달리 비주류 인디음악이 상품성을 가져 음악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보는 데 관심이 있다.

<표7>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인디레이블육성사업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 결정 (건)	지원 금액 (천원)
2003	인디레이블 육성	○창작 저변 확대 및 장르 다양화, 신규 음악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우수 인디음반 제작지원	40	400,000
2004			25	250,000
2005			20	200,000
2006			20	200,000

○ 인디레이블육성사업 지원

- 지원내용 : 전 장르의 음반 제작지원
- 신청자격 : 국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중 음반 기획 및 제작 등으로 등록된 사업자
최근 2년 동안 앨범 제작 및 공연 등 관련 사업을 전개한 레이블 2만장 이상 판매한 단일 음반 또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기획·제작사 제외
- 지원규모 : 1개 프로젝트 당 10,000천원 내외, 총 20개 내외 지원

부록4. 해외 다원예술정책 현황

- 호주, 캐나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⁶⁹⁾

1. 해외 다원예술 현황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종전의 예술 창작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티스트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런 현상은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 달라 진행의 속도가 달랐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지원 정책은 현상 분석 이후에 이루어지곤 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다원예술의 개념 정의와 현상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 마련에도 국가 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에 있어 가장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술의 새로운 표현 양식’로서의 형식적 실험으로 볼 것인가, ‘소통을 위한 매체’로서의 다문화주의, 사회적 실천 등을 포함하는 가치적 양상으로 볼 것인가이다. 이를 비롯해서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다원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원예술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 호주, 캐나다, 영국

서양에서는 근대 성립 국가로서 유럽 전통의 기존 장르 예술보다 새로운 예술 장르 개척에 힘을 쏟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가 두드러진 다원예술 창작 활동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이민자들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문화의 종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예술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영국도 유럽 권역의 다원예술 분야를 견인하고 있다.⁷⁰⁾

이들은 모두 영어권 국가들임에 불구하고, 각 나라의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69) 호주예술위의 기금지원정책은 ATSlA(원주민문화), Community Partnership, Inter-Arts, Dance, Major Performing Arts, Music, Theatre, Visual Arts로 구분되는데, 이중 Inter-arts, ATSlA, Community partnership 세 분야가 우리가 상정하는 다원예술의 개념에 해당함. 우리의 경우 다원예술 안에 문화다원주의와 문화다양성 지원 정책을 함께 고려한다면, 호주의 경우, Inter-Arts는 분명하게 매체실험의 장르적인 개념이 드러나어 Hybrid와 Media arts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함. 초기에 문화다양성에 입각해 원주민 문화에 대한 지원정책을 Inter-Arts처럼 강하게 가졌으나 이의 무게중심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짐작됨

70) 캐나다와 호주가 다른 서양의 국가들에 비해 다원예술 분야의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는, 이민국이라는 국가의 성립 배경이 다문화주의, 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포용력이 있었던 탓이 크다. 둘째로, 근대 성립 국가로서 유럽의 기존 장르 예술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과 비교해 그들에게는 현대예술이 강점이 될 수 있었다. 셋째, 두 국가 모두 근대에 성립한 국가라, 국가 경제 기반이 1, 2차 산업보다 서비스, 과학 등과 관련한 3차 산업에 있다. 다원예술은 장르 내, 장르 간, 학제 간 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인 만큼, 교통, 통신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예술의 탄생과 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Arts)’에 대한 정의와 지원 대상, 핵심 전략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다원예술은, ① 장르 간, 학제 간 공동창작 과정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예술(Hybrid Arts), ② 여러 장르가 한 작품 안에 교차하는 복합장르 예술(Multidisciplinary Arts), ③ 기존 장르 예술에 동시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뉴미디어 아트(New Media Arts)를 포함한다. 최근의 지원 정책 프로그램은 하이브리드 예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호주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정책 운영과 사례 보고에 이어질 것이다.

캐나다는 호주보다 광의적으로 다원예술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캐나다의 다원예술은 ① 퍼포먼스 아트(Performance Art), ② 복합장르(Multi-Arts), ③ 새로운 예술 접근양식(New Artistic approach)으로 구분된다. 마지막, ‘새로운 예술 접근 양식’이란 영역이 대변하듯이, 호주가 다원예술의 형식 실험적, 즉,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캐나다의 다원예술은 사회 참여적이고, 예술과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의 다원예술이 지향해야 하는 과정 중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가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s) 안에 복합장르(Multi-Arts)를 둔 것과 달리, 영국은 다원예술과 혼합예술(Combined arts)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s)’은 예술과 다른 분야, 예를 들면, 과학, 테크놀로지, 법, 생태학과 같은 학제 간 새로운 예술적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혼합예술(Combined Arts)’은 예술계 안에서 관객과 사회, 지역, 국가를 연결하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최신의 예술들을 의미한다. 이 안에는 복합장르를 다루는 작품, 축제, 카니발, 복합문화예술 공간, 프로듀서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2) 싱가포르, 홍콩

아시아는 한국을 제외하고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는, 정부 지원 정책보다 아티스트의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소수의 축제와 민간 운영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지역의 다원예술의 성장과 네트워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⁷¹⁾ 그래서 캐나다와 호주가 현장의 움직임과 흐름을 재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세웠던 것과 비교해 아시아의 각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세워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⁷²⁾

71) 민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원예술 영역의 아티스트 지원의 허브를 자임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시아의 두 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홍콩 프린지클럽과 싱가포르 서브스테이션이 있다. 이들 사례가 호주, 캐나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다른 점은, 첫째,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그 기능을 맡았다는 점이며, 둘째, 아티스트 간 네트워킹을 펼쳐나가면서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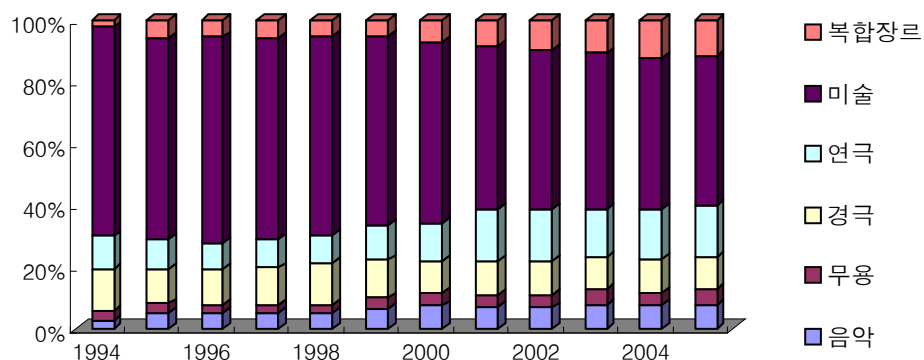
72) 소수의 자발적인 축제와 민간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통계적인 수치와 보고된 사례 연구로 현황을 충분히 분석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사례와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네트워크사업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조현성 외,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한편 아시아와 서구를 연결하는 관문 도시로서의 성장 배경을 가진 홍콩과 싱가포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력과 첨단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 다원예술을 성장하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 문화와 동남아시아 권역을 주축으로 말레이, 인도 문화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 아시아와 서양을 잇는 무역 도시로서의 이점으로 문화 가교로서의 영향력과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 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복합장르의 발전이 두드러진 편이다. 싱가포르 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의 2005-2006년 연감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 10년간, 다원예술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음악 (music)	5	10	10	10	11	14	19	19	18	24	25	28
무용 (dance)	5	5	5	5	5	8	10	11	11	15	13	19
경극 (Chinese Opera)	25	21	24	24	29	27	27	29	30	31	35	36
연극 (Theatre)	19	18	17	18	19	25	32	45	44	47	51	60
미술 (Visual Arts)	122	122	134	130	137	135	150	143	137	153	158	174
복합장르 (Multi Disciplinary)	4	11	11	11	11	11	18	23	26	32	39	42
합계	180	187	201	198	212	220	256	270	266	302	321	359

<표 1 - 1994년-2005년, 싱가포르 예술단체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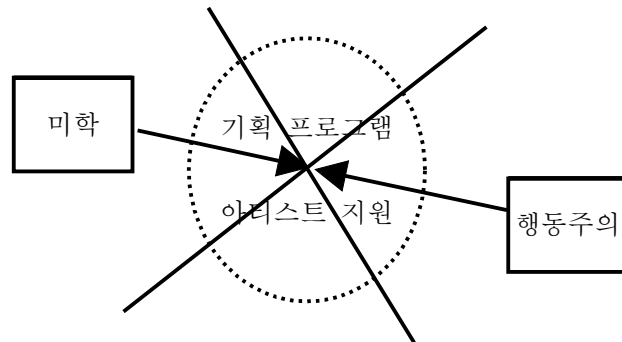


<그림 1 - 1994년-2005년, 싱가포르 예술단체 현황 >

싱가포르 예술 현장의 흐름은 주요 예술 공간의 프로그래밍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최대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는 축제, 연극, 음악, 미술, 무용과 함께 복합장르(Multi-Arts)를 프로그램 분야로 소개하고 있다.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싱가포르의 복합장르와 다원예술에 대해 고민하는 공간은 서브스테이션(Substation)일 것이다.

○ 싱가포르 서브스테이션

서브스테이션은 다민족, 다언어 국가인 싱가포르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욕구가 만나고 충돌하여 새로운 예술가와 작품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체적으로 기획한 축제(셀페스트, 페미니즘 연극제 등)와 시각예술, 영화, 공연 분야 아티스트 지원 프로그램(Associated artist scheme), 문화예술 평론지 계간 등 적극적인 기획 프로젝트들을 채널 삼아 지향점이 뚜렷한 다원예술 육성책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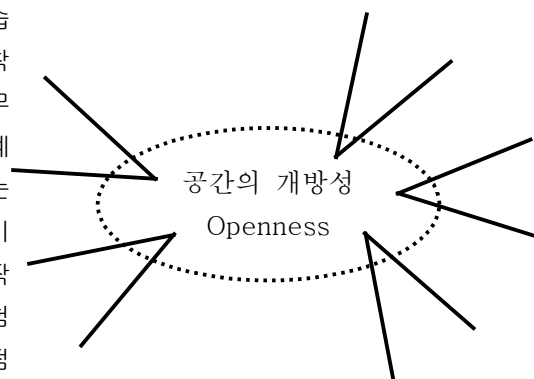
<그림 2 - 서브스테이션의 공간 운영>

미학과 평론이 전공인 예술 감독(리 웡 초이), 예술 행동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술 감독(오드리 웡), 역할이 다른 두 명의 예술 감독이 공간 운영에 동등하게 참여해 예술의 형식적 실험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균형을 잡고자 애쓰는 노력이 보인다.

○ 홍콩 프린지클럽

홍콩의 경우, 신진예술가들의 플랫폼이자, 지역 기반의 과정적 예술들을 발표할 수 있는 프린지클럽(Fringe Club)이 공간으로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홍콩 프린지클럽은 개방성을 공간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예술 표현의 자유를 상위 개념에 두어 장르 내에서의 실험, 이종 장르간의 만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발언, 커뮤니티 예술 창작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서브스테이션이 축제, 평론가 발간, 아티스트 지원프로그램을 자체화시켜 지향점이 뚜렷한 다원예술 육성책을 추진한다면, 프린지클럽은 개방성을 전제로 아티스트에게 다양성의 장을 내어주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개의 극장, 3개의 갤러리, 1개의 연습실 및 워크숍 공간은 아티스트에게 선착순으로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진 예술가들은 제작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료에 대한 부담이 없이 등단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프로 예술가들도 신작에 대한 발표 무대, 이종 장르 간 실험적 프로젝트 무대로 삼을 수 있는 장점



<그림 3 - 프린지클럽의 공간 운영>

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 권역의 컨템퍼러리 공연예술, 특히, 이종 장르 간, 타 문화 간 공동 창작, 복합장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뉴 비전 페스티벌(New Vision Arts Festival)이 홍콩프린지클럽의 대표적인 축제라 하겠다.

이러한 꾸준한 창작과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다원예술에 관한 아직 공적 지원 기구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홍콩 예술위원회(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에 의해 홍콩 다원예술 현황 보고서(Report on 'Research on Interdisciplinary Arts in Hong Kong')가 2006년 6월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자국내 다원예술 지원 정책 근거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원예술은 새로운 예술 장르와 형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예술 규범과 형식의 교차·교환·충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존 체계와 컨셉에 도전하고, 유동적이며, 무정형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동일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예술 위원회는 다원예술에 대한 수요와 비전을 지역 예술 사회와 의견을 같이함에도, 아직 다원예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체계를 도모할 다원예술만을 다루는 위원회나 아티스트 그룹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다원예술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창조적인 방식에서의 다른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는 다원예술의 대한 정의보다, 한 개 이상의 다수 장르 규범을 포함시키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원예술로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다원예술 소위원회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설치한 것은 선도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 국가의 다원예술 사무국에 비해 다원예술에 대한 목적별 지원 체계와 일반인의 이해 부족은 앞으로 개선해나갈 부분일 것이다.

2. 지원 정책 현황

서양에서는 이미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가 지원 정책 안으로 수용되어 일찍이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다원예술 사무국’을 설치한 캐나다와 호주, 영국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자국의 다원예술 아티스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호주는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를 중심으로, 캐나다는 캐나다예술위원회(Canda Council for the Arts)를 중심으로,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와 LiveArts라는 비영리 민간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자국 내, 다원예술에 대한 현황 보고와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가 다른 서양의 국가들에 비해 다원예술 분야의 성장 속도가 빠른 이유는, 이민국이라는 국가의 성립 배경에서 다문화주의, 다양성, 공동체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포용력이 있었던 탓이 크다. 둘째로, 근대 성립 국가로서 유럽의 기존 장르 예술에 대한 뿌리 깊은 전통과 비교해 그들에게는 현대예술이 강점이 될 수 있었다. 셋째, 두 국가 모두 근대에 성립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 기반이 1, 2차 산업보다 서비스, 과학 등과 관련한 3차 산업에 있다. 다원예술은 장르 내, 장르 간, 학제 간 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인 만큼, 교통, 통신 등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예술의 탄생과 성장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1) 호주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사무국

(1) 호주 다원예술 정책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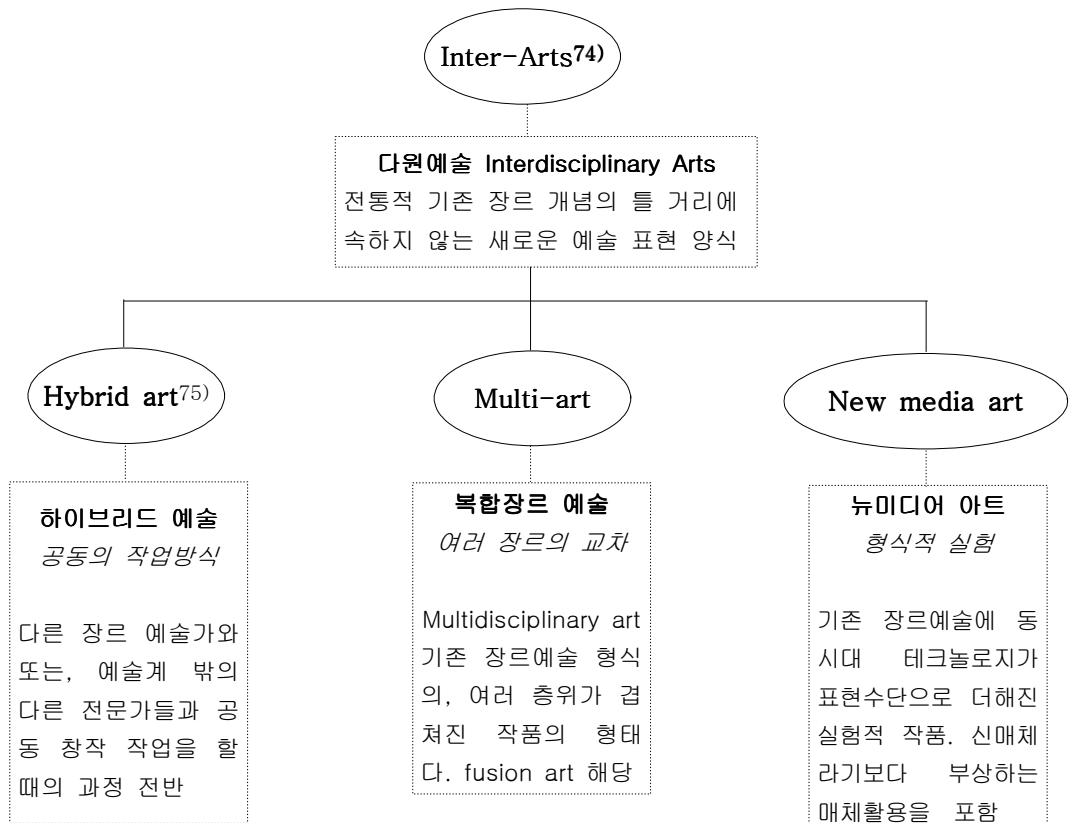
호주는 2004년 6월, 호주의 미래 예술에 관한 정책 비전 연구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연구팀은 새로운 지역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과 복합장르(Interdisciplinary arts)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모델을 제안한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2005년 5월 31일, 뉴미디어 위원회(New media arts board)를 해산하고, 그 해, 7월 1일, 복합장르 사무국(Inter-arts office)을 설립하였다.⁷³⁾

(2)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와 지원 영역

호주 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사무국의 정의에 따르면, ① 장르 간, 학제 간 공동창작 과정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예술, ② 여러 장르가 한 작품 안에 교차하는 복합장르 예술, ③ 기존 장르 예술에 동시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뉴미디어 아트를 다원예술로서 정의하고 있다.

73) 또 2005년 7월 1일, 지역파트너십과 시장개발 분과(communitiy partnership and market development division)가 만들어졌다. 7월 31일에 지역문화 개발 위원회(communitiy cultural development board)는 해산하였다.



〈그림 4 - 호주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정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복합장르와 뉴미디어 아트가 창작 결과물(product)인 반면, 하이브리드 예술은 창작 전 과정(production)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예술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술가가 예술 표현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예술 형식을 교차하거나 다른 비예술계의 작업자들과 공동 작업을 할 때의 과정 전반을 일컫는다.

- 1) 예술가 또는, 비예술계 작업자들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혼합해보는 컨셉의 시작 단계,
- 2) 다양한 메소드나 과정이 예술적인 의미에서 섞이는 작업의 창작 단계,
- 3) 새로운 사이트에서 또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연, 또는 전시되는 발표의 단계.

호주의 하이브리드 예술은 새로운 과학 기술이 아티스트 사이에 또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의 공동의 예술 작업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74) 호주의 다원예술은 장르간 융합(Multi-art), 매체실험 및 융합(New-media art), 비예술계 공동 작업(Hybrid art) 등 예술계, 예술내 장르, 예술표현 매체 등 3개 수준의 융복합 차원으로 규정하여 다원예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75) 호주예술위원회 ‘Support for hybrid art in 2006’에서 발췌. 예술가가 예술표현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예술형식을 교차하거나 다른 비예술계의 작업자들과 공동작업을 할 때의 과정 전반을 일컫는다. 하이브리드 예술은 프로젝트의 다양한 층위에서 일어난다. 1) 예술가 또는 비예술계 작업자와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혼합해보는 컨셉의 출발단계, 2) 다양한 방법이나 과정이 예술적인 의미에서 섞이는 작업의 창작단계, 3) 새로운 사이트에서 또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연 또는 전시되는 발표의 단계. 호주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 예술을 정의할 때, 반드시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과학기술이 아티스트 사이에 또는 분야의 사람들과의 공동의 예술작업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원예술은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으나 장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혼합, 복합적인 효과를 내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앤드류 도노반 다원예술팀장은 다원예술을 기성장르들의 층위 사이에 속한 ‘사이의 예술(between arts)’⁷⁶⁾라고 칭하면서 기성 예술과 다원예술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예술 개념에서 가장 최근의 경향으로 실험성과 독창성이 강한 분야로 파악하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복합예술보다는 혼성예술을 다원예술의 진정한 성격으로 보고 이를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합예술은 기성 장르의 성격이 그저 물리적으로 모여 있을 뿐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원예술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⁷⁾

호주의 하이브리드 예술 정책은 단일한 예술장르에서 벗어나 기존 예술개념에 대한 도전 및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예술 형태와 내용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기존장르간의 긴밀한 결합으로 새로운 효과를 내거나 예술가는 아니나 다른 분야와의 전문가와 협업하는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는 과학자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는 호주 다원예술이 뉴미디어아트에서 기인했다는 태생적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몇 가지 독특한 점은 하이브리드 예술에서는 결과물로서의 작품보다는 작업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 분야에 걸치며 통합적인(interdisciplinary 혹은 multidisciplinary) 작업 방식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분야와의 통합적인 작업 방식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학기술 등에 매몰되는 작업은 선호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지원사업 안내서에서 “새로운 기술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다원예술 사무국의 운영 원리

뉴미디어 아트는 더 큰 복합장르 개념의 Inter-arts office로 지원 정책 업무가 흡수되었고, 필요에 따라 시각예술과 음악 위원회에서 공동의 지원 심사를 하기도 한다. 뉴미디어 아트(new media art)의 경우, 시각과 청각 프로젝트로 나누어 시각 예술위원회와 음악 예술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하게 하고 있다.

다원예술 사무국은 기존 장르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예술, 여러 층위의 작업, 다른 복합장르 예술(hybrid performance, multi-artform work and other multi-disciplinary initiatives). 특정 기획안이 프로젝트가 가진 고유성을 적합하게 심사해줄 장르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확실한 때, 다원예술 사무국은 호주예술위원회에 등록된 동료 집단(peer group)과 위원회 멤버들을 소집해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⁷⁸⁾

76)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여러 장르의 혼합,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간(間) 예술’ 개념은 다원예술의 성격 중 하나로 다원예술 1기 소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77) 이는 우리 위원회의 다원예술분야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장르의 단순한 결합보다도 결합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낼 때 진정한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8) 캐나다의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3가지의 필수조건을 두어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배타적(exclusive) 자격규정을 취하는 반면, 호주의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이 아닌 경우’의 방식으로

복합장르와 뉴미디어의 경우, 여러 장르의 교차와 형식적 실험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예술 장르가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원예술 사무국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여과하는 장치를 만들어 장르 예술 위원회로 보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의 다원예술 사무국은 지원 정책의 많은 부분을 하이브리드 예술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⁹⁾

전반적으로 호주의 다원예술분야는 하이브리드 예술과 복합예술을 명확히 구분하며 하이브리드 예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리드 예술은 미디어에 기반한 실험성이 두드러지거나 과학 등 예술 이외의 분야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작업이 많다. 한국의 다원예술 정책이 실험성뿐만 아니라 문화다원주의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신 호주는 지역공동체와 원주민 예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에서 문화다원주의와 공공성을 중요한 지원목표로 삼는 것으로 파악된다.

(4) 지원 정책 현황

호주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2004-2005 연감에 따르면, 다원예술에 대한 총 지원액은 \$2,7million으로 연간 지원액의 2%에 해당한다.

호주 예술위 전체지원건수	호주 예술위 전체 지원액	다원예술분야 전체 지원건수	다원예술분야 전체 지원액
1911	약 107,083백만원 142,778,419A\$	78 (약 4%)	약 2,097백만원 (약 2%) 2,796,454A\$

<표 2 - 호주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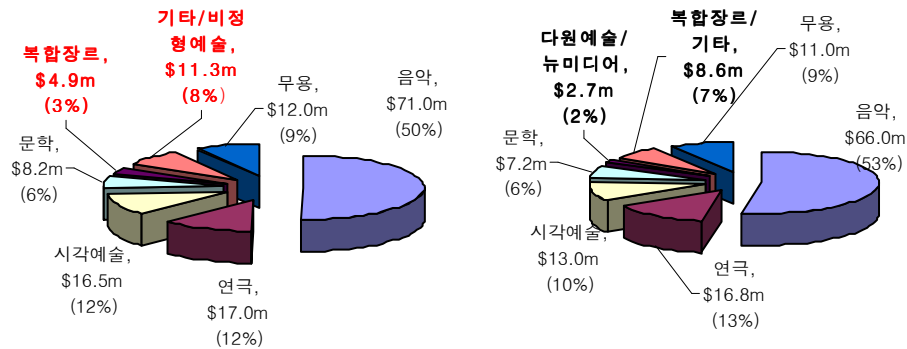
다원예술분야 전체 지원건수는 한국 예술위원회의 지원건수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원금 규모는 약 2배 정도 호주 예술위가 많다. 2006년도 한국 예술위원회의 다원분야 지원건수는 76건이며 지원 금액은 1,179,000천원이다.

포괄적인 자격범위를 설정한다. 이는 각각 해당 예술활동의 순도와 정제성을 택할 것인가, 해당활동의 확장과 개방의 효과를 볼 것인가 하는 제도정책의 성과목표와 관련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79) 각 장르별 포함가능성을 심의 후 다원예술 분과로 보낸다. 이러한 합리적인 2단계를 마련하는 것은 다원예술 영역에 포함될 것을 명확하게 엄선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다원예술 분과에서도 각 장르에 소속될 수 있는 경우를 다시 장르로 돌려보낸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 다원예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배타적으로 정의하고, 광의보다는 협의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다. 호주는 다원예술을 새롭게 변화하고 부상하는 잠정적 현상으로 보는 반면, 캐나다는 3가지 필수조건을 통해 다원예술이 현대예술의 지배적 현상을 통해 확보한 기성제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2005-2006

2004-2005



<그림 5 - 호주예술위원회 장르별 지원 현황 (AUD million기준) >

(5) 운영 중인 기금의 종류와 성격

지원자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공적서비스(official service)를 마련한다는 게 호주 지원체계의 특징이다. 즉 전화상담을 통해 적합한 지원인지를 조언한 후, 지원 신청 할 해당 위원회를 추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800단어 미만의 한 장짜리 기획서를 심사한 후, 2주 안에 적합한 지원신청 위원회를 추천하게 된다. 기존 장르 위원회 심사가 어려운 건의 경우, 다원예술 사무국에서 심사하게 된다.

○ Hybrid art: Program

hybrid art의 리서치, 개발, 창의적 개발, 프러덕션 지원

기존 장르 형식 위원회의 펀딩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 작업을 포함(과정적 작업의 특성을 감안) 프로젝트의 기간은 12개월 이상일 수 있다.⁸⁰⁾

○ Hybrid art: Fellowship

hybrid art의 영역에서 눈에 띄는 업적이나 잠재력을 보인 아티스트의 연구, 실험, 프로페셔널 개발을 지원. 개인만 지원 가능. 2년 동안 \$45000(한화 약 3180만원) 지원.

○ Hybrid Art: Residency

복합장르 아티스트를 위한 선택된 국내외 레지던스 기관에 체류할 경우. 자체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계획했을 경우, 프로그램 분야에서 심사받는다.

뉴미디어 아티스트의 경우, 시각예술 위원회에서 제공한 스튜디오 레지던스 리스트 안에서 선택해야 한다. 2006년에는 2개의 국내 기관과 1개의 국외 기관이 선정되어 참가를 원하는 아티스트의 접수를 받고 있다.⁸¹⁾

80) 프로젝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나 다년간 사업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81)호주에서 해외의 관련기관으로(out-bound)로 단체연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내 기관 사례는

○ Hybrid Art: Key Organisations Triennial

하이브리드 아트와 뉴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예술을 위한 창의적인 인프라 개발.⁸²⁾

○ Initiative: Run_WAY 2006

복합장르 예술과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높이기 위한 목적사업. 이는 30세 이하의 젊은 신진 예술가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수혜 대상이다.⁸³⁾ 국내외 여행(포럼, 워크숍, 회의, 발표 외 자발적인 거주와 멘토십 프로그램 등 목적 다양할 수 있다), 공부, 새로운 방법론 개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금은 최고 \$5,000(한화 13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1회의 기금 수혜만 가능하다.

○ Synapse: Enabling collaboration between Art and Science⁸⁴⁾

‘접합’이라는 어원을 가진 프로그램답게 과학자와 예술가의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협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과 과학의 공동 작업은 양 쪽에 득이 될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과정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지원, 레지던스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 Time_Space_Space

약 2주간 진행되는 다원예술분야 퍼포먼스 워크숍으로 호주 내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호주 국내를 돌며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호주 예술위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네트워크와 협업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 SymbioticA

호주 문화부는 산업과 예술과의 접목, 과학과 예술과의 접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퍼스대학교의 해부학 및 생물학과의 실험실에서 예술가가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⁸⁵⁾

SymbioticA Residency(예술과 과학의 접목을 연구하고 있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연구 기관으로 6개월의 레지던스 과정을 운영)와 ABC Radio National Radiophonic Residency(소리설치, 청각퍼포먼스 등을 시도하며, 예술과 교육의 관계를 탐구하는 국영방송)가 있다. 국외 사례로 Canada의 Media and Visual Arts Thematic Residency Program이 있다.

82) 인프라 개발의 목적에 맞게 3년간 지원하는 등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한다.

83) 캐나다가 일반인에 대한 다원예술 보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호주의 이 목적사업은 젊은 아티스트가 미디어와 복합장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목표를 갖는다고 하겠다. 아직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이 분야를 이해하고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창작과정에 접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도록 미리 공부시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중반에 이러한 탐구를 하기 힘든 교육적, 사회적 여건이다. 30세가 넘어 자신의 분야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경우 35세를 그 기준으로 할 필요성이 크다.

84) 현대미학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다루어온 예술과 기술(technology)의 관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실제 과학과 예술의 학제간 연구라든지, 기술분야가 참여한 실험적 예술프로젝트의 대두 같은 방식으로 예술현장 부근에서 두드러졌다. 이에 대한 제도적 진흥활동이라고 하겠다.

2) 캐나다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사무국

(1) 캐나다 다원예술 정책의 역사

이주민 국가인 캐나다 안에서 서양 문화가 아닌 문화다양성(diversity)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예술의 영역에서 두드러져 특히 신진예술가와 비서구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예술 분류 기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의 예술에 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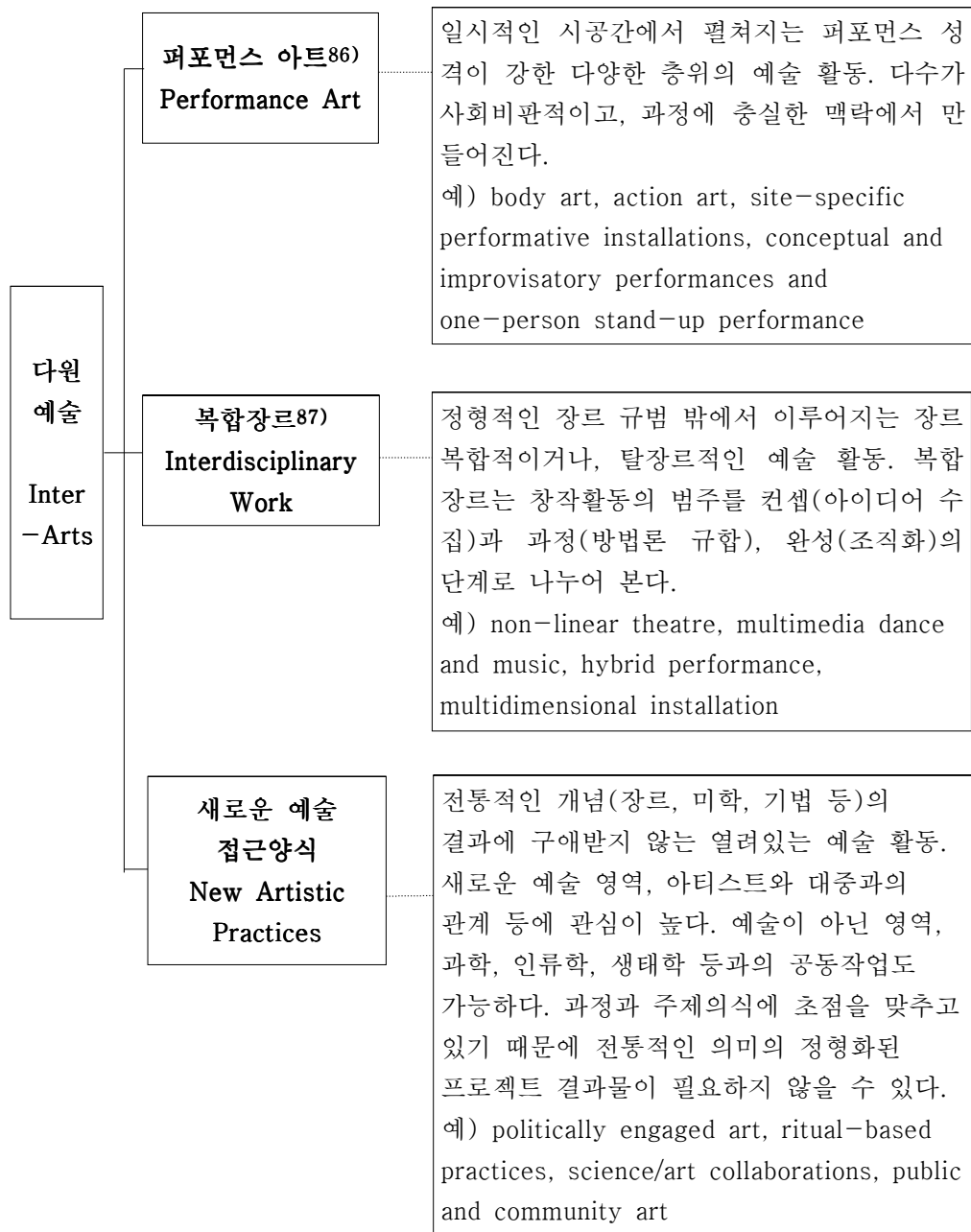
캐나다예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1971년에 처음으로 ‘예술상(Arts Award Service)’ 제도 안에 복합장르(interdisciplinary)라는 섹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 1977년부터 복합장르와 퍼포먼스 아트 프로그램(the Interdisciplinary Work and Performance Art Program)이 운영되었다.

2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을 해 오던 캐나다예술위원회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이 영역의 예술이 가진 개방성과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힘들고,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999년, 캐나다 다원예술의 현황과 정책 비전에 대한 심층 연구 보고서를 전문가그룹에 요청한다.

1999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연구에 참여한 다원예술 자문위원 8명은 200여명의 아티스트 인터뷰와 전문가그룹 심층면접을 통해 다원예술의 새로운 정의와 다원예술 사무국(Inter-Arts Office)의 지원방향성을 제안한다. 연구보고서 <Review of the Interdisciplinary Work and Performance Art Program – Final Report (1999)>는 1999년, 가을에 발족한 캐나다예술위원회 안의 다원예술 사무국(Inter-Arts Office)의 근거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다원예술 사무국은 2000년에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캐나다예술위원회는 2004년에 다시 한 번 <The Inter-Arts office: A Four-Year Overview Report-19999-2003>을 발표해 현재, 다원예술 사무국의 다양한 정책 지원 프로젝트의 근거로 삼고 있다.

85) 한국사회의 경우, 산업과 예술의 만남은 2000년 이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로 2004년을 전후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화콘텐츠산업과 다른 차원에서 예술산업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문화산업 차원에서 예술이 원자재 및 중간재로 활용되는 프로젝트라든지, 예술이 특정한 산업의 지원을 받아 산업과 예술이 만나는 프로젝트 등 예술진흥기구에 의해 개척되어야 할 중간영역은 많다. 그리고 예술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업이 다루는 사업의 주제 및 상품의 특성과 연결된 예술표현을 취하는 등, 예술메세나 활동 차원을 넘어선 기업과 예술의 만남 등이 고려될 만하나, 이는 대체로 민간기구 및 특정 대학연구기관, 유능한 예술가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표 3 - 캐나다 다원예술정책 범주 >

86) 공연예술(performing arts)가 아니라, 이벤트(event), 해프닝(happening art), 행위예술 등의 전통을 잇는 퍼포먼스 실험(performing art)를 지칭함. 예술이 생활 속에 참여하고, 사회문제를 각인시키는 일상속의 효과를 주는 소통의 시도를 주로 지향한다.

87) 호주의 Multi-Art(장르복합, 융합장르 시도)보다는 Hybrid Art(예술이 이질적인 분야들과 실험적으로 결합하는 프로젝트과정을 뜻하는)에 가깝거나, 그 둘을 포함한다.

(2)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와 지원 영역

캐나다의 다원예술은 ① 퍼포먼스 아트, ② 복합장르, ③ 새로운 예술 접근 방식으로 정의한다. 아티스트와 커뮤니티의 공동작업도 이 안에 포함된다.⁸⁸⁾

다원예술의 대상자들은 기존 장르 예술가들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고 어떤 경우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기도 한다고 밝힌다.⁸⁹⁾ 어떤 예술가들은 잠시 실험해본 뒤, 다시 기존 장르 영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계속해서 다원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다원예술 아티스트는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⁹⁰⁾

다원예술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아티스트와 다원예술 종사자 그룹의 다양한 관점과 시점에 따라 진행정보와 요구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3) 다원예술 사무국의 운영 원리

캐나다 다원예술 사무국은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다원예술, 탈장르 예술, 사회비판적이고 탐구적인 관점의 예술 창작, 연구, 제작, 향수에 대한 지원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다.⁹¹⁾

- ① 복합장르와 신진예술가들의 창작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존 장르 예술위원회와 협력한다.
- ② 예술가의 새로운 역할, 예술의 새로운 목적,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도록 그 탐구를 권장한다.
- ③ 퍼포먼스 아트, 복합장르, 새로운 예술적 접근에 대한 연구와 비판적 담론 형성에 힘쓴다.
- ④ 캐나다예술위원회 내 다원예술 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에 힘쓴다.⁹²⁾

88) 호주는 장르적 개념이 크다면 캐나다는 장르를 벗어나는 경향이 크다. 또, 호주의 다원예술이 매체와 기술적 차원에 중점을 두는 예술형식의 관점을 갖는다면, 캐나다는 예술의 사회적 실천의 의미를 고려하는 휴머니스트 관점이 좀더 강하다.

89) 캐나다예술위원회에서 1999년에 발표한 ‘퍼포먼스 아트와 다원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

90) 대부분 우리가 취하는 예술에 대한 장르적 인식은 정학적 관점(Statics)이라고 부른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운 예술이 대두되며 기존의 장르 개념을 깨는 매체융복합과 예술의 생활화, 인식전환, 제작방식의 보급확대 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언제든지 예술의 개념과 영역이 변화할 수 있다는 동학적 관점(Dynamics)에 해당한다. 예술의 개념이 변해야 한다면 장르 지원 이상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며,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새로운 예술현상의 지원 및 예술진흥의 제도에 수용하려는 탄력적 대응일 수 있다. 다원예술 역시 확정될 수 없는 개념규정이며, 향후 다원예술의 범위설정과 지원방식이 다시 변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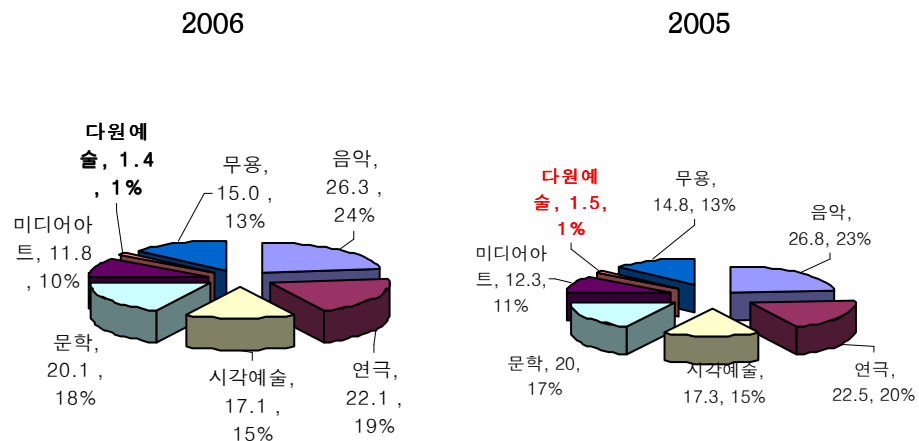
91) 호주의 경우 주로 미디어의 융합과 실험에 초점에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의 경우는 예술의 새로운 미학적 정의, 사회적 역할 등을 탐구하고, 인류학 및 사회과학의 비판적 분석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와 소수자문화를 기록, 연구하기를 요청하는 등 상대적으로 인문학적, 실천적 접근에 연계된 지향점을 갖는다.

92) 2000년, 설립 당시, 다원예술 사무국의 연간 지원 예산은 백만 캐나다 달러,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약 8억 5천만원이었다.

- ⑤ 국내외 다원예술 아티스트,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 ⑥ 도시 외곽, 원주민 거주지 등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다원예술 확장에 힘쓴다.⁹³⁾
- ⑦ 다원예술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새로운 관객 개발에 대한 전략과 프로젝트를 개발한다.⁹⁴⁾

(4) 지원 현황

캐나다 예술위원회의 2005-2006 연감에 따르면, 1억 2천 3십만 캐나다달러(120.3m, 한화로 96억 6천 4백 5십만원) 총액의 지원금을 운용했으며, 5,780개의 프로젝트와 아티스트가 기금을 수혜 받았다. 그 중, 다원예술은 1백 4십만 캐나다달러(한화로 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림 6 - 캐나다예술위원회 장르별 지원 현황 (CAD million기준) >

2004년과 2005년에는 150 개인 아티스트와 단체가 캐나다 다원예술 사무국의 기금 지원을 받았다. 서커스, 미디어 아티스트, 새로운 오페라 형식의 개발(Opera innovator), 퍼포먼스 아티스트, 원주민 가면 만들기 전수자, 복합장르 아티스트, 지역 예술 단체, 사회 운동 단체 등이 수혜 대상이었다. 최신의 새로운 현대 공연 예술과 다양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복합장르 형태의 축제들도 지원되었다.

별도 사업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실행된 Off the Radar는 웹사이트를 통해 31개의 다원예술 지원 사업이 일반에게 소개되었고, 전문/일반 다원예술 평론가들이 쓴 에세이들이 공개되어 일반의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⁹⁵⁾ 지원받

93) 문화소외지역의 향수확대가 아니라, 소수자 문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소자 및 소수자 문화가 자신의 공동체 문제와 메시지를 발신하는 비판적이고 문화실천적 시도에 중점을 둔다.

94) 다원예술의 새로운 동향을 기정사실로 보므로, 새로운 예술경향을 일반인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만한 예술의 발전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다원예술 분야의 실험과 창작에 대한 지원 만큼 이의 유통과 향유가 중요한 지원사업의 범주가 되는 것이다.

95) Initiatives in Critical Thinking - 31 funded project and essays. 다원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

있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원주민 문화 예술가들이 접근하는 복합장르의 이해
- 사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예술 워크숍
- 거리극 교류 프로젝트
- 테크놀로지와 신체 관계에 대한 토론회

(5) 운영 중인 기금의 종류와 성격

정기 공모와 계기성 수시 공모를 통해, 지원서를 심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 Creation/Production Grants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다원예술에 종사하는 개인 아티스트와 예술기관의 창작과 발표를 지원

○ Annual and Multi-year Grants to Organizations

다원예술 창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예술 기관의 활동은 연간/다년간 지원

○ Dissemination Grants (for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일반인 대상으로 다원예술의 이해와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과 기관의 프로젝트 지원

○ Multidisciplinary Festivals projects Grants

다원예술의 한 영역인 복합장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 지원

○ The Flying Squid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다원예술 복합 지원 프로그램

프로페셔널 예술 기관 지원 사업. 기관이 위치한 지역 내에 있는 개별 아티스트의 능력, 네트워크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1) 기관 리서치 및 계획 수립, 2) 멘토십 프로그램, 3) 공동작업, 4) 전문적인 개발, 4단계로 나뉜다. 96)

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특히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31개의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일반인들이 일반인과 전문평론가가 쓴 프로젝트 비평을 읽을 수 있게 한 이러한 홍보-정보보급 사업은 한편으로 지원사업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마련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전문가모니터링/시민모니터링 제도와 초점이 약간 다를 수 있다.

- 96) Flying Squid는 기관 및 지역에 대한 다년간의 집중육성 사업 성격을 갖는다. 지원받은 기관은 지역 아티스트의 분포와 요구조사를 하기도 하며, 지역의 아티스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담과 지원, 협동사업을 추진한다. 전문적인 개발 차원에서 지역예술촌을 집중적으로 다년간 육성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한다.

3) 영국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영국은 지방 자치 행정이 발달한 국가로, 예술의 경우에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외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각각의 예술위원회가 독자적인 정책과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예술위원회의 경우, 호주와 캐나다처럼 다원예술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성(Diversity)이라는 큰 주제 아래, 혼성예술(Combined arts)과 다원예술(Interdisciplinary arts)을, 기존 장르들과 구분해 별도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예술위원회가 내부에서 별도의 사무국 설치 없이 다원예술을 목적과 기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화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했던 것은 외부 파트너 기관인 'Live Art'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Live Art'는 기성 예술의 경계를 넘어 실험적인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문화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비영리 민간 문화예술 단체로 설립되었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 특히, 신진 예술가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출발한 예술가들을 단체의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⁹⁷⁾ 여기에서 용어, 'Live Art'는 예술가와 관객의 경험과 기대가 미술, 공연, 연극, 무용, 문학, 디지털, 영상 등을 넘나들며, 혹은,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평가와 고도의 지적 활동으로 정의된다.⁹⁸⁾ 'Live Art'는 리서치, 분야 아티스트의 전문성과 커리어 개발, 목적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영국예술위원회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다. 'Live Art'를 대표적으로, 영국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은 어느 장르보다 외부 단체와의 공조 체제에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와 지원 영역

영국예술위원회는 복합장르를 의미하는 혼성예술(Combined arts)과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학제 간 협력 예술(Interdisciplinary arts)로 크게 나누고 있다.

혼성예술이란, 예술 장르 간의 접합, 실험, 교류를 통해 예술적 성취를 높이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는 총체적인 예술 활동이다. 콘텐츠는 복합장르(Multidisciplinary arts)이며, 이를 담는 그릇은 축제, 카니발, 복합 문화예술 공간, 프로듀서, 지역 내 투어 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합장르를 실현하는 수단들은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적인 기획으로 아티스트의 새로운 예술에 대한 접근과 관객의 다양한 예술 경험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젊은 신진 예술가 육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꼽고 있다.

복합장르를 통한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 외에 영국의 혼성예술 개념에서 강

97) http://www.thisisliveart.co.uk/about_us/index.html

98) http://www.thisisliveart.co.uk/about_us/why_we_are.html

조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관객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특히, 도시와 달리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예술 창작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 공동체에 속한 작은 예술 단체들이 예술을 통해 이루어낸 변화들을 사례 모음집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이 영향력을 타 지역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투어 서킷을 만들어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는 예술단체의 지방 순회공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제 간 협력 예술(Interdisciplinary arts)이란, 예술과 다른 분야와의 만남과 실험을 통해 표현 양식 측면과 사회와 접점을 늘리는 공공의 가치 측면에서 예술의 영역을 확대시킨 예술을 가리킨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이를 위해 새로운 예술 양식에 대한 적합한 정의와 리서치, 정책 개발, 논의와 비평, 지식 교환 공간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운영 중인 기금의 종류와 성격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창조산업과 예술

예술가가 한시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예술가 스스로 사회 체계 안에서 예술가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순수예술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산업적 맥락의 현장 리서치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창조적인 아카이브 활용

BBC 및 영국의 방송국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그들을 활용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자유롭게 재창조하는 프로젝트. 정보가 자산을 의미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카이브가 사유화, 유료화 되고, 상업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목적하의 창조적인 활용을 허락하자는 목적으로 BBC를 비롯한 방송국 아카이브 일부를 일반에게 개방하는 웹사이트를 개설. 초기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두 명의 예술가를 선별해 한 명은 전체 아카이브를, 다른 한 명은 일반에게 공개한 아카이브의 접근과 재사용을 허락해 새로운 형태의 작품 제작을 의뢰했음.

○ 예술과 우주과학

4개월 동안 UC 버클리 대학의 캘리포니아 우주과학 연구소에 체류하면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과학자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예술과 우주과학 사이의 연구와 실험, 창작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 예술과 법

저작권에 대한 예술가, 관객, 정책입안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저작권 공유운동(Creative Commons)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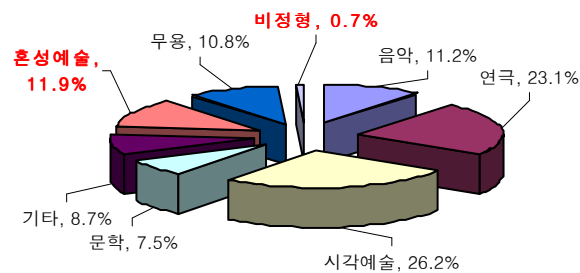
○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동창작과 소유권

○ 예술과 생태학

○ 법과 경영 등 전문 영역과 관련한 예술가 컨설팅

(3) 지원현황

다원예술 범주의 혼성예술과 비정형(Non-specific)으로 분류된 장르 지원액은 총 8,514,290 파운드였다. 한국의 원으로 환산하면, 약 155억 원에 달한다. 두 나라 예술위원회의 총 예산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원예술 분야에 10%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영국예술위원회의 미래를 선도할 예술에 대한 선견지명과 추진력을 볼 수 있어 인상적인 대목이다.



<그림 7 - 영국예술위원회 장르별 지원 현황/ 2004-2005>

부록5. 다원예술분야 활동가들이 바라는 지원제도 개선의 모습

- 지원영역과 개선사항을 묻는 델파이조사 결과

1. 다원예술 활동가 대상 델파이조사 결과 요약⁹⁹⁾

1) 다원예술 분야에서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대안¹⁰⁰⁾

① 소통부재의 문제점

-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지역 및 해외사례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이 다원예술 활동을 질적으로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임
- 정보, 홍보의 부족 등 소통부재의 문제는 비단 다원예술 활동가들과 관람객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예술활동 현장에서 예술가들과 기획자 및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으로 드러남
- 1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언론, 소식지, 온라인 등의 매체 및 다원예술 전용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위 주체들 간에 보다 활발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기대는 2차 설문조사에서 강화되어 나타났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소통의 문제가 곧 네트워크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② 심사선정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

- 보편타당성과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함
- 다원예술분야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모호한 심사선정 기준은 아직 시기적으로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장기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가치와 예술적 성취도 등에 대한 평가가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차후 몇 년간 자료들이 쌓이다보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보편타당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료축적 차원에서 지원사업 사례집을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주체 및 다양한 포럼 참가자들의 사후평가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다원예술을 잘 이해하는 전문 비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남

③ 인프라 부재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의 문제점

99) 본 델파이조사는 2006년 12월, 문화리서치·컨설팅 전문업체인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에서 진행하였음. 다원예술 현장 활동 전문가들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구원들의 중복추천을 받은 17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짐. 예술활동과 기획 작업을 병행하는 활동가의 비율이 높은 다원예술 분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응답자들 중에 순수 기획자와 기획 및 예술활동을 병행하는 활동가의 비율은 4:6으로 조사됨

- 1차 조사 결과, 창작 및 실험공간이 없어서 다원예술 활동가들의 예술활동들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원예술 활동들이 질적으로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나, 관객 수입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창작 실험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요한 지적이었음
- 2차 조사에서는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지역에 활용도가 낮게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다원예술 활동가들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다원예술분야 활동가들이 작업실을 싸게 임대할 수 있는 예술센터 개념의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제안사항들이 조사됨
-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영향을 주고받거나, 다원예술 활동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들까지도 아우르는 등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됨
- 또한 활동연차에 따른 재교육시스템, 연금지급 등의 제도 개선폰 제안은 다원예술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획자 및 예술가의 양성에 격려가 될 요인으로 조사됨
- 다원예술분야 현장 활동가들을 모아들이는 기획, 축제, 컨퍼런스 등에 대한 지원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④ 사업의 지속성 부재 문제점

- 다원예술 활동들의 많은 부분이 대중성과는 괴리가 있으며, 오랜 비주류 문화예술 활동 결과 다원예술 활동가들은 재원조성과 수익창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1차 조사 결과 드러났음
- 다원예술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과,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어느 응답자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 및 수익사업을 마련을 위한 컨설팅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재단을 역할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조사됨
- 인력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및 평가결과가 좋은 작품을 실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작가들이 연합하여 수평적인 구조로 공동응모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유도하는 등 다원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차적인 지원 초점을 두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조사됨
- 마지막으로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사회 환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예술가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도 주목할 만한 제안사항으로 드러남

100) 다원예술분야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대안은 1~2차 델파이 조사 모두에 걸쳐서 진행되었음. 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 5차에 걸쳐 진행했던 공개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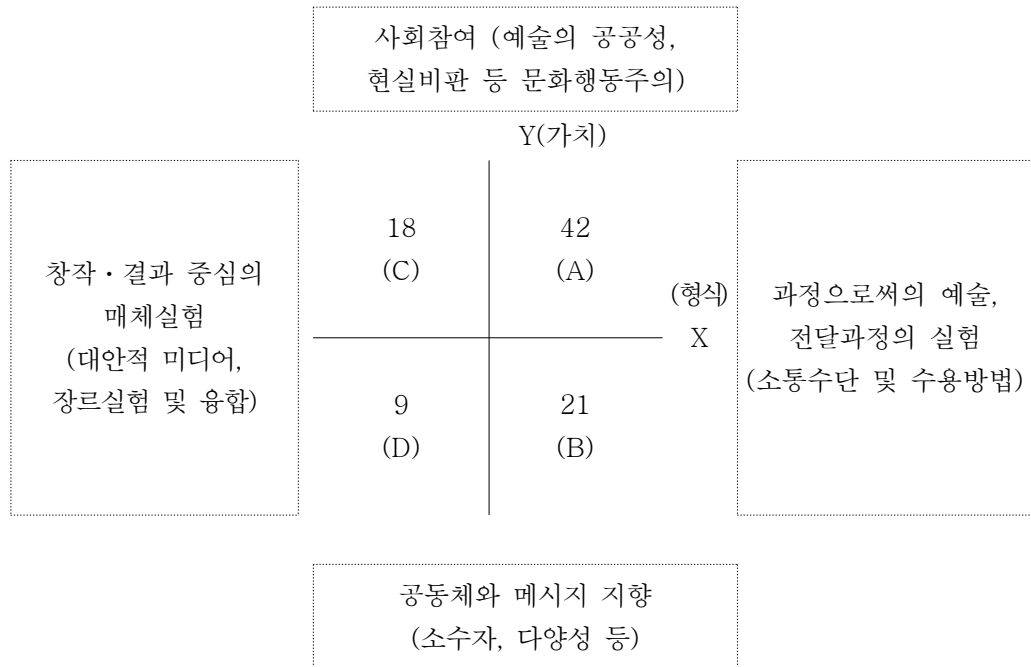
2) 현재 ‘다원예술’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의견¹⁰¹⁾

- ① 기존 명칭의 사용에 동의하는 의견(응답자의 50%가 동의함)
- 다원예술이 충분한 표현은 아닌 반면, 우리의 다원예술분야 현실을 총칭할 적절한 개념을 찾기 또한 이르다 의견이 있었음
 - 다원이란, 사전적 의미로 '요소나 근원이 여러 갈래, 또는 많은 근원'을 뜻함. 다원예술 역시 실험적이라든가 대안적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
 - 예술적 실험에는 내용 및 형식적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원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체계와 형식체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넓게 열려 있음
 - 다원예술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되, 사회변화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다듬어 가야 함
 -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은 일부 권력 엘리트가 진행하는 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항의와 예술적 실험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만, 이 다양한 예술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느냐가 과제임
- ② 다른 명칭 사용의 제안¹⁰²⁾
- 실험예술: 기존 예술형식을 새롭게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확장작업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은 세월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재생산 될 것임
 - 독립예술: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 이후 컨템퍼러리 예술이 당위로 인식되어 주류예술가들도 다원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예술이 지원받아야 하는 환경이 되었음
 - 뉴장르공공예술: 낙후된 지역을 찾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밀어 붙이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문화예술의 진정성과 당위성은 다양한 소수의 문화예술이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
 - ‘새개념예술’의 사용 제안과, 다원예술 분야 활동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바탕으로 명칭에 대한 ‘의미화 과정’ 및 ‘새롭게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도 조사되었음

럼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어려움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응답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제시하였음.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조사하였음

101)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합의, 혹은 보다 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지를 제시하였음. 2차 조사지에는 1차 조사를 통해서 수합된 양자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이 안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본인이 지지하는 의견에 대한 지지 사유가 질문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기타 의견란에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명칭의 사용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명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다원예술의 개념 설정¹⁰³⁾



- 응답자들은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의 A영역(‘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의 실험’과 ‘사회참여에 대한 가치’)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였음
- 비주류 예술 활동의 새로운 형식에는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형식실험과 메시지의 지향은 같이 가야함
 - 가치에 대한 구분이야 말로 다원예술이 무엇을 지향하는 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깊이 고민되어야 함
 - 활발한 다원예술 활동의 해외사례 및 해외 네트워킹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치와 형식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함
 - 위와 같은 도식이 나온 예술적, 정책적 문맥 및 개별 카테고리에 가장 부합되는 현장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102) 위에 제시된 명칭은 각각 1명의 응답자가 제안하였으며, 실험예술의 사용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1명 조사되었음

103) 형식과 가치요소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설계된 도식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설계된 문항임. 1차 조사에서 얻은 도식에 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2차 결과에서 정리하여 제시한 후에, 그에 따른 동의 및 자유로운 의견을 구하는 심화조사를 통해서 다원예술 개념설정에 중요한 요소를 확인함. 위 그래프는 X축이 형식을, Y축이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차 심화조사 응답자 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표 안의 숫자는 X축과 Y축 응답률을 기준으로 비중을 표기하기 위한 참고 수치임

4) 다원예술의 지원영역과 범주¹⁰⁴⁾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원예술의 지원범주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영역 안에서 강조가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골라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음
- 7명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형식의 실험, 독립예술 및 언더그라운드 예술,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등의 항목을 선택함
- 매체의 실험,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등은 6명이 응답함
-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 소수문화,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 관행에서 소외된 예술 활동, 프로젝트 중심 예술, 새로운 매체환경과 결합된 예술, 예술가들의 연구기회 제공 등의 항목에는 5명이 응답함

5) 다원예술 지원방식¹⁰⁵⁾

- 1차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어진 다원예술 지원방식 6문항을 제시한 후,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다원예술 지원방식항목을 제한 없이 선택하도록 설계하였음
- 10명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다년간(장기적) 지원 사업’, ‘자생성과 재생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항목을 선택함
- ‘연구사업 및 전문가 육성과 네트워킹 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특화분야 할당·집중 지원’, ‘예술가 및 지역사업 중심 지원’ 등에 7명이 응답함
- ‘시대적 주제와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 활동 소개 및 매개과정 조직’에는 6명이 응답함

104) 다원예술의 지원영역과 범주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1차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는 30개 이상의 항목이 주어진 표 안에서 다원예술의 지원범주에 맞지 않는 항목을 분류해내도록 하였음. 다원예술의 지원영역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에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은 기타 의견란에 추천하도록 설계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음. 유효 응답률의 기준은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105) 다원예술 지원방식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1차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개최한 5차 포럼 참가자들이 지원방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제시하였음.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다원예술 지원방식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답변 시에 참조가 되도록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기본취지 및 현대예술의 변화 양상을 기록한 표를 첨부하였음. 6가지 공통적인 항목의 조사결과와 함께 우선순위에 관한 개별 조사 결과도 얻었으나, 우선순위는 각 항목의 응답수치에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됨

6)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¹⁰⁶⁾

-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수렴된 6가지 의견을 제시한 후,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개선방향 항목을 제한 없이 선택하도록 설계하였음
- 10명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속적인 지원책 개발’ 항목을 선택함
-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 개발’, ‘공공성의 의미와 정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탕으로 ‘작한 것’만이 공공성인지 제고해야 함’ 등의 항목에 8명이 응답함
- ‘특화영역의 전략적 지원(해외교류, 공간재구성 사회화 프로젝트, 주체성 있는 신진작가 등)’, ‘현장예술가와 전문가의 지원심사 자문 및 참여과정 개발’ 등에는 7명이 응답함

106) 다원예술의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1차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걱정된 지원 및 선정기준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6가지 공통적인 항목의 조사결과를 얻음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 현재 국내의 다원예술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

현재 국내의 다원예술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소통 및 네트워크의 부재와 인프라 및 지원사업 심사선정 기준의 부재,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미담보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축적, 정보교류, 비평 등을 통해 다원예술 활동이 내·외부에 활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다원예술분야 심사와 비평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 및 폭넓은 문화적 관심과 연대를 이어갈 사회 네트워크가 부족함. 또한 다원예술분야 창작 및 실험무대 등의 인프라 부재로 인해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 홍대 인근의 상업화 등의 현상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음. 이와 맞물려 예술활동의 질적 저하가 야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다원예술의 정체성이 합의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심사선정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예술가들의 혼돈이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과 획일화 된 지원경향 때문에 다원예술 영역의 활동들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중심의 기획지원, 일회성 지원, 인건비 지원 제약, 기획과정의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서 다원예술 분야 활동의 자생성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름

위와 같이 다원예술적인 예술활동 분야에서 당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대안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 소통부재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원예술의 현황 및 사례, 작가의 변, 비평 등의 자료 축적과 그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됨.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통을 위해 언론, 소식지, 온라인, 전용공간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됨. 네트워크의 부재문제는 다원예술 활동과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과정 및 예술가들의 모임과 확장된 교류활동 지원을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평적 모니터링 과정과 활동가 재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서 창작활동의 재생산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인프라의 부재는 창작 및 발표를 위한 전용공간들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됨. 심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성, 지속성 등의 주요한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 지원책 개발 등 다원예술분야의 연구사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실험적인 창작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호교류를 촉발시키는 기획과정 및 현장실사에 기반을 둔 장기육성사업 선정 지원, 비평 등의 다원예술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내용으로 드러남

2) "다원예술"의 명칭

현재 "다원예술"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2명의 응답자 가운데 6명이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나머지 6명이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확한 비율로 양분되었음

"다원예술"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활동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절한 명칭이되, <실험, 대안> 등의 개념 보다는 <총체적 활동, 다양한 장르의 결합> 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드러났음. 예술가로서 지원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다원예술"이 명확하게 인지되었다는 답변도 참고할 만한 의견임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독립예술, 실험예술, 뉴장르 공공예술, 새개념예술 등의 명칭을 제안한 것 외에도 '새로운 명칭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사됨.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독립예술"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현재는 주류작가들도 유행처럼 다원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인디예술을 지향하는 독립예술 작가들이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남. "실험예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답변은 '현재 다원예술이라고 인정되는 예술활동들은 기존 예술형식을 새롭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확장작업이므로 다원예술이라는 어휘로 표현하기에는 과하기 때문에 예술을 위한 예술(예술의 형식 실험) 뿐 아니라 삶과도 관통하는(삶 자체도 실험, 공공성) 다양한 시도들로써 세월이 지나도 지속될 실험예술로 축소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뉴장르 공공예술"을 제안한 답변은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새롭고 실험적이며, 소수이지만 소중한 젊은 하위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시간이 지나도 새롭게 발생하는 소수의 하위 문화예술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남. "새개념예술"을 제안한 답변은 '다원예술적 활동들은 혁신적인 현상이므로 새개념 예술로 인식해야 하며,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활동들이 병존하므로 개념 사용에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특정한 명칭은 제안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명칭을 도출해야 한다는 답변은 '고급예술과 다원예술영역을 별도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매체 및 향유자 중심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 공동체, 다양성, 실험성 등이 내포 되도록 해야 한다.'와 '다원예술적 활동들의 비평적 분석을 통해 의미화 과정을 거치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드러남

3) "다원예술"의 개념

형식적 실험과 대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의하는 개방형 질문에 답변한 11명의 응답자들은 '유형구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기 어렵지만, 개념접근을 위해서 굳이 필요하다면 형식적 실험과 대안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 동의한다.'와 '적절한 유형구분 기준이다'라는 응답과 함께 별도의 언급이 없거나, 보완사항을 언급한 경우가 전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유형구분 항목에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기존 예술제도에 대한 저항성이 포함 되어야 한다.', '형식면의 매체실험은 매체의 내재적 실험과 다원적 매체실험이 동시에 내포되어야 한다.',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예술형식 실험도 다원예술 개념에 포함 되어야 한다.', '공동체 지향성 및 작가 개인의 사상 지향성이 공통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전업 예술활동 및 동호인적 아마추어 예

술활동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다원적 예술활동의 가치와 형식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 '새로운 형식의 추구는 예술의 근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다원예술의 개념을 "대안"이라는 요소로 구분 짓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음

창작·결과 중심의 매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u>3</u>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u>7</u>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u>6</u>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u>3</u>

가 치 \ 형 식	창작·결과 중심의 매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3 × 6	6 × 7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3 × 3	3 × 7

유형구분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을 2개로 제한해서 복수 응답하는 질문에 '창작·결과 중심의 매체실험'과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요소에 각각 3명이, '사회참여' 요소에는 6명, 그리고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요소에는 7명이 응답하였음. 응답자들은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의할 때, 가치 면에서는 '사회참여'를, 형식면에서는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을 가장 강조되어야 할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남

4) "다원예술"의 지원영역과 범주

다원예술의 지원영역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①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쪽 지원으로 지역축제는 관련 기관 지원으로 해야 함
- ②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예-미술관 벗어난 미술
- ③ 프로젝트 중심 예술(결과물보다 과정의 예술 ⑬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 ④ 매체의 실험(대안적 미디어)
- ⑤ 형식의 실험(장르의 융합, 탈장르)

이 문항은 12명의 응답자가 제한을 두지 않고 복수응답을 하도록 했으며, 유효 응답률의 기준을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설정하였음. 아래 표에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다원예술의 지원영역에 들어야 한다고 조사된 항목임

① 매체의 실험(대안적 미디어)	① 전통문화에 대한 실험
② 형식의 실험(장르의 융합, 탈장르)	② 공예디자인 등 실용적인 문화예술
③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예-미술관 벗어난 미술)	③ 일상속, 체험 등 예술 수용자 환경의 변화 모색
④ 시민과의 소통 (시민참여형 예술활동)	④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관행에서 소외된 예술활동(예-장르내 주류적 형식에서 벗어난 실험적 예술활동, 마당극, 현장미술 등)
⑤ 도시, 지역, 동네의 문화환경 변화(능동적 향수활동 지원, 공공미술 포함)	⑤ 프로젝트 중심 예술 (결과물보다 과정의 예술)
⑥ 소수문화 (예-외국인노동자, 성적소수자)	⑥ 기존 예술장르의 신진예술가 (장르중심실험)
⑦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에 예술 활용(인류학과 문화운동의 만남)	⑦ 새로운 매체환경과 결합된 예술(과학과 예술의 만남, 첨단기술 활용작품)
⑧ 지역 및 주민 공동체 기반의 예술	⑧ 예술의 탈물질화
⑨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문화행동주의)	⑨ 장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실험
⑩ 독립예술, 언더그라운드 예술	⑩ 아마추어 예술가와 동아리의 실험 지원
⑪ 하위문화 공동체의 예술적 자기 표현	⑪ 이미 활동 중인 현장 발굴
⑫ 예술의 공공적 가치 (예술을 통한 시민운동)	⑫ 예술가들의 연구기회 제공
⑬ 순수예술을 넘어서는 대중예술	⑬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⑭ 실험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⑭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⑮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문화교육	⑮ 기타(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⑯ 자생적 지역문화와 결합한 축제	
⑰ 기성 예술관습에 대한 문제제기 (제도화된 작품유통, 창작과 향수의 이분법적 구도 등)	

5) 효과적인 다원예술 지원방식의 제안

다원예술 지원환경의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제안사항을 조사한 결과, ‘발굴지원, 집중지원, 다년지원, 연구지원, 인프라지원, 기획단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정 영역 할당지원, 전문가육성, 중장기전망수립, 지역중심 사고 존중, 주변 분야 전문가 참여유도, 자생성 확보 및 재생산구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조사됨

6)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원적 예술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지원책으로 평가지표, 다년지원, 지속지원 등이 반복적으로 거론 됨. 명확한 심사 선정기준이 되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지원작에 대한 당선 및 낙선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그 뒤를 이음. 지원방향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간 재구성 사회화 프로젝트 등의 전략적 기획지원, 공동체와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의미의 확장이 반영된 지원 등이 있었음. 또한 지원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작 심사에 현장예술가와 전문가들의 자문 및 참여과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및 장르예술과 다원예술의 이분법적 구분 경계 등의 의견이 조사됨. 신진작가 발굴 및 선별지원 등의 지원방법과 해외교류 공모 마련과 같은 기타 의견도 있었음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 현재 다원예술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¹⁰⁷⁾

(1) 소통부재의 문제점

소통부재의 문제는 비단 다원예술 활동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예술활동 현장에서 예술가들 간에, 그리고 예술가들과 기획자 및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드러남. 1차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언론, 소식지, 온라인 등의 매체 및 전용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보다 활발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기대는 2차 설문조사에서 강화되어 나타났으며,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수집되는 결과를 얻었음. 그리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소통의 문제가 곧 네트워크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체를 활용한 소통과 지역 및 해외사례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소통이 다원예술 활동을 질적으로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심사선정의 기준이 모호한 문제점

2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다원예술분야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모호한 심사선정 기준은 아직 시기적으로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차후 몇 년간 자료들이 쌓이다보면 모두가 만족할만한 보편타당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원 사업 사례집을 자료축적 차원에서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주체 및 다양한 포럼 참가자들의 사후평가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다원예술을 잘 이해하는 전문 비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편타당성을 지닌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가치와 예술적 성취도 등에 대한 평가가 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3) 인프라 부재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의 문제점

1차 조사 결과, 창작 및 실험공간이 없어서 다원예술 활동가들의 예술활동들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다원예술 활동들이 질적으로도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에 대한 평가나, 관객 수입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창작 실험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요한 지적이었음. 2차 조사에서는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일환으로 지역에 활용도가 낮게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다원예술

107) 1차 조사에 응했던 12명의 응답자 가운데 2명은 1차 조사에서 필요한 언급을 마쳤으므로 2차 조사에 새로운 의견이 없다는 전갈을 보내옴으로써, 최종적으로 10명의 현장 활동가 및 기획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함

활동가들에게 무상 임대하거나, 다원예술분야 활동가들이 작업실을 싸게 임대할 수 있는 예술센터 개념의 전용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음.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영향을 주고받거나, 다원예술 활동이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활동들까지도 아우르는 등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됨. 또한 활동연차에 따른 재교육시스템(해외연수, 재교육연수프로그램 등), 연금(20년 활동가 20만원) 등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원예술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획자 및 예술가의 양성에 격려가 될 요인으로 조사됨. 활동가들을 모아들이는 기획, 축제, 컨퍼런스 등에 대한 지원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4) 사업의 지속성 부재 문제점

다원예술 활동들의 많은 부분이 대중성과는 괴리가 있으며, 오랜 비주류 문화 예술 활동 결과 다원예술 활동가들은 재원조성과 수익창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1차 조사 결과 드러났음. 다원예술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과,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어느 응답자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 및 수익사업을 마련을 위한 컨설팅 활동을 하는 아름다운 재단을 역할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조사됨. 인력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및 평가결과가 좋은 작품을 실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작가들이 연합하여 수평적인 구조로 공동응모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유도하는 등 다원예술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차적인 지원 초점을 두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조사됨. 마지막으로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사회 환원이 계열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예술가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도 주목할 만한 제안사항으로 드러남

2) "다원예술" 명칭 사용에 관한 의견¹⁰⁸⁾

(1) 다원예술 명칭 사용에 동의하는 의견

- ① 지금까지 제시된 다른 명칭들도 현재 한국의 다양한 예술경향을 포괄할 수 없음
- ② 다원예술이 충분한 표현은 아닌 반면, 우리의 다원예술분야 현실을 총칭할 적절한 개념을 찾기 또한 이르다는 지적이 있음
- ③ 예술적 실험에는 내용 및 형식적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원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체계와 형식체계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
- ④ 다원예술로 묶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른 명칭이나 개념보다 넓고 열려 있음
- ⑤ 다원이란, 사전적 의미로 '요소나 근원이 여러 갈래, 또는 많은 근원'를 뜻함. 다원예술 역시 실험적이라든가 대안적이라기보다, 총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
- ⑥ 예술가로서 지원 신청시에 다원예술분야를 선택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음

- “다원예술”이라는 기존 명칭의 사용에 동의하는 2차 조사 응답자들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위 6가지로 도출된 다원예술 명칭 사용에 관한 근거 의견 들 사이에서 ②, ⑤ > ①, ④ > ③ 번 순서로 지지를 보냈음
- “예술적 실험에는 내용 및 형식적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원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체계와 형식체계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이라는 철학적인 의견과 “예술가로서 지원 신청시에 다원예술분야를 선택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음”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의 사용에 대한 근거의견으로 강조되지는 못했음
- 또 다른 응답자는 “문예진흥원에서 ‘독립예술’로 처음 지원을 시작했던 것이 현재는 다원예술이라 지칭되면서 독립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따라 명칭은 조금씩 바뀔 것”으로 판단하는 응답이 있었음
- 이 응답자는 다원예술의 명칭을 현재와 같이 사용하되,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꾸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다듬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마지막 의견은 한국 사회 전반에 이어 예술 분야에서 나타난 좌우 대립 현상이 일부 권력 엘리트가 진행하는 예술활동 전반에 대한 항의와 예술적 실험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적하였음
- 다만, 중요한 것은 다원예술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하였음

108) 현재 "다원예술"이라고 통용되고 있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0명의 응답자 가운데 4명이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나머지 5명이 새로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의견이 없었음

(2) 다른 명칭의 사용을 제안한 의견

-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에 대한 대안으로 “실험예술”을 지지하는 응답은 두 가지로 조사되었음
 - 모든 예술장르를 포함하여 실험적인 성향이 강한 예술표현 활동을 통칭하여 실험예술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한 응답자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다원예술분야 전업 작가와 아마추어 예술활동가의 구분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예로 들어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이 지닌 포괄성과 애매모호함을 지적하였음
 - 실험예술이라는 명칭을 지지한 또 다른 응답자는 명칭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1차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나온 실험예술에 대한 의견 및 다원예술 분야 활동들의 비평적 분석을 통해서 명칭에 대한 ‘의미화 과정’과 ‘새롭게’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독립예술”이라는 명칭을 지지한 응답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 이후 컨템퍼러리 예술이 당위화 되어 주류예술가들도 다원적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므로, 오히려 독립예술이 지원 받아야 하는 환경이라는 1차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나온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뉴장르공공예술”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낙후된 지역을 찾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사업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소수의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양성하고, 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문화예술의 진정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음
- “새개념 예술”을 제안한 기타 의견도 조사되었음

3) "다원예술"의 개념¹⁰⁹⁾

- (1)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이 제시한 도식을 이용하여 다원예술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이러한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었던 예술적, 정책적 문맥 및 개별 카테고리에 가장 부합되는 현장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2) 응답자 10명 중 설문지에서 제시한 도식에 수정 사항을 제안한 응답자는 3명이었으며, 비주류의 새로운 형식에는 소통되지 못했던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형식 실험과 메시지의 지향은 같이 가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3) 또한 설문지에서 제시한 형식과 가치의 구분 중에서 가치면의 카테고리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치에 대한 구분이야 말로 다원예술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깊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4) 또 다른 응답자는 국내 사정과 달리 외국에서는 활발한 활동의 사례와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치와 형식을 더 구체적으로 세

109) 형식과 가치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도식에 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얻고, 그에 따른 의견을 구하는 심화조사 과정을 통해 다원예술의 개념을 설정하는 문항임

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사되었음

- (5) 아마추어와 전업예술가의 구분을 허물어야 한다는 1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원예술 분야 전업예술가들의 분투를 이해하지 못한 의견이라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예술의 탄생은 저항이 아니라 창조적인 표현의 모색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써 창조적인 표현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원예술 현장의 예술가임을 지적하였음

4)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영역과 범주¹¹⁰⁾

- (1) 반드시 지원범주에 들어가야 할 항목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응답

내 용	응답률	내 용	응답률
매체의 실험(대안적 미디어)	6	전통문화에 대한 실험	2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예-미술관 벗어난 미술)	5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관행에서 소외된 예술활동 (예-장르내 주류적 형식에서 벗어난 실험적 예술 활동, 마당극, 현장미술 등)	5
소수문화 (예-외국인노동자, 성적소수자)	5	프로젝트 중심 예술 (결과물보다 과정의 예술)	5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문화행동주의)	5	새로운 매체환경과 결합된 예술 (과학과 예술의 만남, 첨단기술 활용작품)	5

내 용	응답률	내 용	응답률
독립예술, 언더그라운드 예술	7	예술의 탈물질화	3
하위문화 공동체의 예술적 자기표현	3	장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실험	3
형식의 실험(장르의 융합, 탈장르)	7	이미 활동 중인 현장 발굴	2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6	예술가들의 연구기회 제공	5
예술의 공공적 가치 (예술을 통한 시민운동)	4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7

110)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국내 다원예술 분야 활동가들의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0개 이상의 항목이 주어진 표 안에서 다원예술의 지원범주에 맞지 않는 항목을 분류해내도록 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 중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추천하도록 설계하였음.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원예술의 지원범주에 해당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표를 제시하고, 각각의 영역 안에서 강조가 필요한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심층조사로 진행되었음. 2차 조사 결과는 제한을 두지 않고 복수응답을 하도록 한 문항에 10명의 설문 대상자들이 응답이며, 유효 응답률의 기준은 3명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것으로 설정하였음

○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들이 강조한 비율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음

- a. 형식의 실험, 독립예술 및 언더그라운드 예술,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 b. 매체의 실험,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 c.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 소수문화,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관행에서 소외된 예술활동, 프로젝트 중심 예술, 새로운 매체환경과 결합된 예술, 예술가들의 연구기회 제공
- d. 예술의 공공적 가치
- e. 하위문화 공동체의 예술적 자기표현, 예술의 탈물질화, 장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실험
- f. 전통문화에 대한 실험, 이미 활동 중인 현장 발굴

a번 그룹은 7명, b번 그룹은 6명의 순서로 응답률이 조사되어 마지막으로 f번 그룹은 2명의 응답을 기록한 결과임. 이 항목에 대해 응답한 인원 전체가 다원예술 분야에서 지원해야 하는 영역으로 동의한 항목은 “형식의 실험, 독립예술 및 언더그라운드 예술,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으로 조사되었음. 반면에, “전통문화에 대한 실험, 이미 활동 중인 현장 발굴” 항목은 유효 기준 이하의 응답을 기록하였음

(2) 반드시 지원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 응답

내 용	응답	내 용	응답
시민과의 소통 (시민참여형 예술활동)	3	공예디자인 등 실용적인 문화예술	7
도시, 지역, 동네의 문화환경 변화 (능동적 향수활동 지원, 공공미술 포함)	2	일상속, 체험 등 예술 수용자 환경의 변화 모색	1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에 예술 활용 (인류학과 문화운동의 만남)	1	기존 예술장르의 신진예술가 (장르중심실험)	4
지역 및 주민 공동체 기반의 예술	3	아마추어 예술가와 동아리의 실험 지원	6
순수예술을 넘어서는 대중예술	4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문화 교육	5
실험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3	자생적 지역문화와 결합한 축제	3
기성 예술관습에 대한 문제제기 (제도화된 작품유통, 창작과 향수의 이분 법적 구도 등)	2		

○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응답자들이 강조한 비율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음

- a. 공예디자인 등 실용적인 문화예술
- b. 아마추어 예술가와 동아리의 실험 지원
- c.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문화교육
- d. 순수예술을 넘어서는 대중예술, 기존 예술장르의 신진예술가
- e. 시민과의 소통, 지역 및 주민 공동체 기반의 예술, 실험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자생적 지역문화와 결합한 축제
- f. 도시, 지역, 동네의 문화환경 변화, 기성 예술관습에 대한 문제제기
- g.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에 예술 활용, 일상속·체험 등 예술 수용자 환경의 변화 모색

a번 그룹은 7명, b번 그룹은 6명의 순서로 응답률이 조사되어 마지막으로 g번 그룹은 1명의 응답을 기록한 결과임. 이 항목에 대해 응답한 인원 전체가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동의한 항목은 “공예디자인 등 실용적인 문화예술”로 드러남, 유효 응답률 기준을 3명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한 항목으로 삼은 결과, e번 그룹에 속하는 항목까지는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5) "다원예술"의 지원방식

(1) 다원예술 지원방식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아래 표와 같이 6가지로 수렴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는 이들 지원방식 사이에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음. 조사 결과 ‘다년간(장기적) 지원 사업’과 ‘자생성과 재생산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전체 응답자 10명 모두의 지지를 받는 지원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사업 및 전문가 육성과 네트워킹 사업’, ‘프로젝트 발굴 및 특화분야 할당 및 집중 지원’, ‘예술가 및 지역사업 중심 지원’이 각각 7명의 지지를 받았음. ‘시대적 주제와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활동 소개 및 매체 과정 조직’이 가장 낮은 지지를 얻어 6명이 응답하였음

전체 응답자: 10명

내 용	응답률
① 다년간(장기적) 지원 사업	10
② 연구사업 및 전문가 육성과 네트워킹 사업	7
③ 프로젝트 발굴 및 특화분야 할당, 집중 지원	7
④ 자생성과 재생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10
⑤ 예술가 및 지역사업 중심 지원	7
⑥ 시대적 주제와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활동 소개 및 매체 과정 조직	6

한 응답자는 위의 항목들이 모두 중요하다는 인정과 함께, 현장에는 각각의 항목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음을 강조하는 있었음.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표현일수록 전문성이 더 중요하며, 최소한 자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할 때에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 다른 응답자는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사후지원 형태가 도입되면 연구사업을 하는 전문가의 육성 및 새로운 프로젝트의 발굴도 가능할거라는 기대와 함께,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프라도 구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2) 다원예술 지원방식 도입의 우선순위

다원예술 지원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근소한 차이로 ④ > ① > ③ > ⑤ > ②, ⑥ 의 순위가 조사되었으며, “자생성과 재생산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지원방식으로 조사됨

6) "다원예술"분야 지원제도 개선

2차 델파이 조사결과, 다원예술분야의 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응답자 10명의 의견 중 가장 두드러지게 지지를 받는 개선방향은 '지속적인 지원책 개발'로 드러남. 이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수렴된 6가지 의견 중에서 응답자 전원이 공통적으로 지지한 유일한 문항으로써, 다원예술분야 지원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때에 고려해야할 1순위 대상임이 확인됨. 그 뒤를 이어 ①과 ⑤가 지원제도 개선방향으로 각각 8명의 지지를 받았으며, ③과 ④가 각각 7명의 지지를 받았음. 1차 조사에서 드러났던 '기존 예술 장르와 다원예술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심화된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들의 동의를 고르게 얻는 의견으로 수렴되지 못했음. 한 응답자는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모두가 다원예술이나 실험예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철학에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는 작업이나 프로그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일회성이나 기회주의적인 무책임함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1차 조사 결과로 반영된 “작한예술”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후지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의견도 조사되었음

전체 응답자: 10명

내 용	응답률
①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 개발	8
② 지속적인 지원책 개발	10
③ 특화영역의 전략적 지원 (해외교류, 공간재구성 사회화 프로젝트, 주체성 있는 신진작가 등)	7

④ 현장예술가와 전문가의 지원심사 자문 및 참여과정 개발	7
⑤ 공공성의 의미와 정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탕으로, “착한 것”만이 공공성인지 제고해야 함	8
⑥ 기존 예술 장르와 다원예술을 구분하지 말아야 함	1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일무들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문화에 활력과 다양성을 전파하실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조사지의 각 문항별로 빠짐없이 소중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고지연
기분좋은 트렌드 하우스 Q TEL: (02) 792-5351 / FAX: (02) 796-8617
e-mail: givenzone.qx@naver.com

안녕하십니까.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에서는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다원예술”의 개념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다원예술 지원의 범주와 영역을 선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예술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예술적, 미학적 관점에서의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실행의 목적의 논의임을 선례로 합니다.

■ 연구배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05년 11월 처음 구성된 다원예술수위원회에서는 그간 5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기존 예술정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예술 활동들에 대한 지원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헌신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공감대 속에서 다원예술의 개념정의와 범주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 조사방법

정성적인 조사방법에 의한 이번 설문조사는 통해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화된 설문과정을 2-3회 반복하는 델파이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생산적으로 통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본 조사를 거쳐 분석된 결과는 추후 개념적으로 선명해 드리겠습니다.

2.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그 동안 공공영역의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정책에 있어 다원예술은 개념적, 정책적 정의나 의미와 과정이 부재하여 독립(연대), 비주류, 소수자, 대중, 아 마추어 등 주류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개념 시업의 지원을 위한 범주로서 지 극히 기능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 통용되는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이 기존 예술정책의 범주에 들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대안적 예술 활동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 중 해당하는 답변을 고르시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합한 명칭이 무엇인지에 관한 제언도 부탁드립니다.

구 분	이 유
예 () 아니오 ()	
명칭 제언	

1. 다원예술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대안

- 전문 비평에 대한 필요성(한국실험예술제, 김백기)
- 다원예술에 대한 관련 비평의 중요성(시온포럼저널페스티벌, 오성화)
-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다원예술수위원회, 김소연)
- 실험적인 작업은 해나가는 예술가들 간에 상호 교류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예술가, 김세업)

어상은 현재 다원예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영역의 정책적 활동가들이 언급한 다원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제 점	
대 안	

3. 다원예술의 개념설정

다원예술수위원회는 지난 1년간 “현장과의 소통과 새로운 지원정책의 마련”을 목표로 5회 간의 공개포럼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원예술분야 지원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①형식적 실험성 ②가치의 공공성 ③문화의 다양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 왔습니다.

- 1) 형식적 실험과 대안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의 어떠한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부탁드립니다.

<div> <div></div> <div>형식</div> </div>		<div> <div>장각·결과 중심의 대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div> </div>	<div> <div>과정으로서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div> </div>
가치	<div> <div>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div> </div>		
	<div> <div>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div> </div>		

- 2) 다원예술 지원사업 3년이 된 지금, 귀하께서는 아래 유형 구분에서 어느 부문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해서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각·결과 중심의 대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4. 다원예술 지원의 영역과 범주

캐나다의 사례는 미디어아트 작품은 목표로 하여 선연적으로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펼쳐왔으며, 호주의 사례는 상대적으로 장르 및 다문화주의 편향을 지향하는 다원예술 지원정책은 이같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로 문화다원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 이상의 배경에 따라 다원예술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국내 문화예술계 활동가들이 다원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다원예술은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원과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체의 실현(대안적 미디어)	① 전통문화에 대한 실현
② 형식의 실험(장르의 융합, 탈장르)	② 공예디자인 등 실용적인 문화예술
③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예-미술관 벗어난 미술)	③ 일상속, 체험 등 예술 수용과 환경의 변화 모색
④ 시민과의 소통(시민참여형 예술활동)	④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예술활동 (예-장르내 주류적 형식에서 벗어난 실험적 예술활동, 마당극, 현장미술 등)
⑤ 도시, 지역, 동네의 문화환경 변화 (공동적 항주활동 지원, 공공미술 포함)	⑤ 프로젝트 중심 예술 (결과들보다 과정의 예술)
⑥ 소수문화 (예-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	⑥ 기존 예술장르의 신진예술가 (장르중심 실험)
⑦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에 예술 활용 (인류학과 문화운동의 만남)	⑦ 새로운 매체환경과 결합된 예술(과학과 예술의 만남, 첨단기술 활용작품)
⑧ 지역 및 주민 공동체 기반의 예술	⑧ 예술의 탈물질화
⑨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문화행동주의)	⑨ 장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실험
⑩ 독립예술, 언더그라운드 예술	⑩ 아이작이 예술가와 동아리의 실험 지원
⑪ 하위문화 공동체의 예술적 자기표현	⑪ 이미 활동 중인 현장 발굴
⑫ 예술의 공공적 가치 (예술을 통한 시민운동)	⑫ 예술가들의 연구기회 제공
⑬ 순수예술을 넘어서는 대중예술	⑬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가·기록
⑭ 실험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⑭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⑮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문화교육	⑮ 기타(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⑯ 자생적 지역문화와 결합한 축제	:
⑰ 기성 예술관습에 대한 문제제기(제도화된 작품유통, 창작과 향수의 이분법적 구도 등)	

6. 다원예술분야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 및 선정기준과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1차 설문조사는 설문지의 성격상 상당한 속고를 필요로 하는 내용의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정성껏 답변해 주신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와 함께 질문에 응답해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은 잘 정리하여 2차 설문과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원예술분야와 관련한 전문가 15인 이상의 의견이 수렴된 결과를 확인하시고, 2차 설문을 통해 기존에 답변하신 내용을 첨가하거나 수정하면서 합의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은 12월 5일(화)까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한 문의는 givenzone_qx@naver.com(고지연 리서처)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2차 설문조사에도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2) 위 표 안에 첨부되거나 강조되어야 할 항목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원예술 지원방식

- 지원사업의 시작시점 해소를 위해서 예술가 및 예술작품 발굴에도 일정한 할당이 필요함
- 다원예술분야에 소양을 가진 스카우터 개념의 전문 기획자 양성이 필요함
-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연구사업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예술가들이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장은 마련해야 함
-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 실행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따른다면, 이후의 지원신청에서는 더욱 방향성이 뚜렷해 질 것임

이상은 2006년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개최한 5차 소집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원예술 지원환경이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다원예술의 지원방식은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필요하시다면, 아래 표에 있는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기본원칙 및 현대예술의 변화 양상을 참조하세요.

기본원칙	현대예술의 변화양상
문화의 다양성	예술의 다문화주의
예술의 공공성	공동체 기반의 예술
대안적 매체, 소통의 실험성	예술의 탈물질화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본 설문조사는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활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실행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려 입문들로 바쁘시겠지만 우리 문화에 활력과 다양성은 전속시킬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 조사지의 각 문항별과 빠짐없이 신중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고지인
TEL. (02) 792-5051 / FAX. (02) 796-8617
e-mail. givenzone_gx@naver.com

※ 지난 1차 델파이조사에서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12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다원예술분야에서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원예술분야가 알고 있는 문제점	대안
<p>A. 소통부재 (정보, 홍보, 커뮤니케이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 - 대인예술분야에 있어 일반 관객들과의 소통 창구 부재 - 자료, 정보, 비평 부족으로 다원예술 현상에 비해 소문이 없음 - 다원예술 활동정보, 전문인력, 비평가, 사회 등의 네트워크부재 -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폭넓은 문화적 관심과 연대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다원예술 활동의 사례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및 공간이 필요함 - 다원예술지원 사업의 평가 및 활동의 흐름이나 내용에 대한 비평 등 객관적인 반응을 해줄 수 있는 매체나 단체가 필요함 - 작가 실력 및 평판의 분석이 조화된 결과물의 온라인 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대인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 세션 마련 필요 - 홈페이지나 통합 소식지 등을 통해 일반 관객들과 만나는 창구 개설 - 비평적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비평가 풀 운영) - 다원예술 비평매체의 개발 및 지원(계간, 무크지) - 다원예술 아카데미 개설 및 신진비평가 육성 및 지원 (대인적 교육)

<p>D. 사업의 지속성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회적인 지원으로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함 - 사업 중심 기획 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제약으로 인한 자생성 확보 어려움 -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험적 탐색과정으로 키워-업하는 기획과정에 대한 배려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와 전시, 출판 외에 다원예술에 대한 연구도 지원해야 함 - 한장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육성 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는 사업을 발탁해서 지원 - 문화활동가 재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에게 힘을 얻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배워나갈 수 있어야 지속적 활동이 가능함
--	---

1.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해 오신 현장 전문가로서 A~D 각 항목의 문제점들을 풀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나 제안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A.

B.

C.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적 활동 예술가들 간의 (창의적) 워크숍, (공동)프로젝트 참여 - 매개자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 (ex. 활동가 모임, 활동워크숍, 풀앗이 파티 등)
<p>B. 심사선정의 모호한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데서 발생하는 다원예술의 질적 저하 -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예술가들의 혼돈 - 착한 예술만을 지원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았던 다원예술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새로운 방향의 모색과 정의 - "지역성, 공공성, 생태성, 지속성"이 반영된 다원예술 평가지표 개발 및 중-장기적인 지원 - 좀 더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p>C 인프라 부재(열악한 작업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활동을 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용공간이 없다 보니 창작 환경이 매우 열악함 - 다원예술로 불리워질 수 있는 예술 작업들의 교집합이 뚜렷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양쪽으로 중가해야 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문제임 - 예술가들의 실험무대가 되는 현장(예컨대 홍익대 앞)이 지나치게 상업적인 - 예술가들의 창작실현(또는 행사)이 행사장이나 무대 등지에서 벌어짐으로써 작업에 제한이 생기거나, 의도와는 달리 상업활동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음 -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이 무엇인가 개념을 설정할 수 있으면, 일단 주류 예술에서 보이지 않지 않은 다양성을 지닌 예술활동들이 충분히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 교집합을 이루낼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교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기획이나 교류의 장으로써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 - 예술가 커뮤니티 공간 발굴 및 지원 (역사적인 사례: 실롱, 카페테, 플테르, 카페) - 지속적인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실험예술 전용공간 필요 - 도심의 슬럼지역이나 낙후지역들에 예술인들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공간을 지원하여 일상적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실험적인 예술발표의 장소를 개발할 필요

2.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 통용되는 "다원예술"이라는 명칭이 기존 예술 장르의 범주에 들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실험적, 대안적 예술 활동을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1차 델파이조사 결과입니다.

A. 다원예술이 적합한 명칭이다.	B. 다원예술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p>① 지금까지 제시된 다른 명칭들도 현재 한국의 다양한 예술경향을 포괄할 수 없음</p> <p>② 다원예술이 충분한 표현은 아닌 반면, 우리의 다원예술분야 현상은 총칭할 적절한 개념은 찾기 보한 이름</p> <p>③ 예술적 실험에는 내용 및 형식적 실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원 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체제와 형식체제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p> <p>④ 다원예술로 묶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른 명칭이나 개념보다 넓고 얇고 있음</p> <p>⑤ 다원이란 사전적 의미로 '요소나 원인이 여러 살데, 또는 많은 단위를 포함' 다원예술 역시 실험적이라는 대안적이라기보다, 총체적인 활동과 다양한 장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p> <p>⑥ 예술가로서 지원 선정시에 다원예술 분야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음</p> <p>⑦ 기타 의견 ()</p>	<p>① 독립예술, 포스트모더니즘의 내부 이후, 컨템퍼러리 예술이 당회화 되어 주류예술가들도 다원적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오히려 독립예술이 지원 받아야 하는 환경임</p> <p>② 실험예술: 기존 예술장르의 범주에 들지 않는 새로운 형식이라면, 내부로 실험적인 예술이라고 보는 게 명확한 기준임. 실험예술은 모든 장르로 포괄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예술의 형식 실험) 뿐 아니라, 실험과 전통하느(새) 자체도 실험, 공공성) 다양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음</p> <p>③ 다원예술영역: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는 않. 큰 장르나 매체별로 구분해서 그 안에 공동체, 다양성, 실험성 등이 포함되거나, 또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의 구분별과 공공성과 실험성은 분산해야 함</p> <p>④ '다원' 공공예술: '새롭고 실험적이며, 소수이지만 소중한 젊은 하위 문화예술의 성' 이라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리 한 소수 하위문화에 제한해야 함</p> <p>⑤ 새 개념 예술: 시기적으로 완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므로 단계적인 진개가 필요함</p> <p>⑥ 다원예술 분야 활동등의 비평적 분석은 통해 '의미화 과정'을 거치서 '생태계' 도출 및 합의해야 함</p> <p>⑦ 기타 의견 ()</p>

- 1) 위에서 “A. 다원예술이 적합한 명칭이다.” 항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응답해주세요.
 ⇨ 위 표의 A항목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골라 V표 해주시고, 첨언하실 기타 의견은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

- 2) 위에서 “B. 다원예술이란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항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응답해주세요.
 ⇨ 위 표의 B항목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골라 V표 해주시고, 첨언하실 기타 의견은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

3. 다원예술의 개념설정을 위해 작성된 표를 보고 전문가들이 응답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일부입니다.

① 아래와 같은 유형/구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② 굳이 유형/분류는 해서 다원예술분야의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형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③ 이러한 틀에 왜곡되지 말고, 형식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흐름을 조장해야 하는 시기임(에디터먼트, 연주, 기획 등) ④ 예술가라는 전입적 인식과 아마추어라는 동호인적 구분은 없고, 예술가에 대한 넓은 수용 폭을 가져야 함 ⑤ 새로운 경향의 예술은 반드시 기존예술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마련이므로 '기존 예술제도'에의 저항성이 추가되어야 함 ⑥ 다원예술의 개념을 고려한 시에는 저가의 사상도 중요시 되어야 함 ⑦ 다원예술 지원사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2가지를 고르는 문항에 대한 응답률	
창작·결과 중심의 대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6	3

- 2) 1차 조사 결과에서 ‘다원예술은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에 맞는다’고 선택된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면 원래 V표 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① 대체의 실험(대안적 미디어)	① 전통문화에 대한 실험
② 형식의 실험(장르의 융합, 탈장르)	④ 기존 장르 중심의 예술 지원관행에서 소외된 예술활동 (예 장르내 주류적 형식에서 벗어난 실험적 예술활동, 다장르, 현장미술 등)
③ 소통방식의 실험, 문화수용환경의 변화모색(예-미술관 벗어난 미술)	⑤ 프로젝트 중심 예술 (결과물보다 과정의 예술)
⑥ 소수문화 (예-외국인노동자, 성적소수자)	⑦ 새로운 대체환경과 결합된 예술(과학과 예술의 만남, 첨단기술을 활용작품)
⑧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개입(문화행동주의)	⑧ 예술의 탈물질화
⑨ 독립예술, 언더그라운드 예술	⑨ 장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실험
⑩ 예술의 공공적 가치 (예술을 통한 시민운동)	⑩ 예술가들의 연구기획 제공
<div>< 이 유: ></div>	⑪ 다원예술에 대한 모니터링·평론·기록
	⑫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5. 다원예술 지원방식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응답 결과입니다.

① 다년간(장기적) 지원 사업	_____
② 연구사업 및 전문가 육성과 네트워크 사업	_____
③ 프로젝트 발굴 및 문화분야 할당, 집중 지원	_____
④ 자생성과 재생산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_____
⑤ 예술가 및 지역사업 중심 지원	_____
⑥ 시대적 주제와 가치에 주목하는 예술활동 소개 및 매개 과정 조직	_____

- 1) 위 조사결과를 보고서 귀하의 답변이 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가 다원예술의 개념 정리를 위한 요소들은 모두 포괄하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과 함께, 첨삭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 빈 칸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치	형 식	창작·결과 중심의 대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과정으로써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4. 국내 문화예술계 활동가들이 다원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1차 델파이조사 질문사항을 통해서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를 구분한 결과입니다.

- 1) 1차 조사 결과에서 ‘다원예술은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에 맞지 않는다’고 선택된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영역과 범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으면 V표 해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④ 시민과의 소통(시민참여형 예술활동)	② 공예디자인 등 실용적인 문화예술
⑤ 도시, 지역, 동네의 문화환경 변화 (농동적 향수활동 지원, 공공미술 포함)	③ 일상속, 체험 등 예술 수용자 환경의 변화 모색
⑦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에 예술 활용 (인류학과 문화운동의 만남)	⑥ 기존 예술장르의 신진예술가 (장르중심실험)
⑧ 지역 및 주민 공동체 기반의 예술	⑩ 아마추어 예술가와 동아리의 실험 지원
⑪ 하위문화 공동체의 예술적 자기표현	⑪ 이미 활동 중인 현장 발굴
⑬ 순수예술을 넘어서는 대중예술	< 이 유: >
⑬ 실험적인 문화예술 교육활동	
⑮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시민 문화교육	
⑮ 자생적 지역문화와 결합한 축제	
⑰ 가정 예술단속에 대한 문제제기(제도화된 작품수용, 창작과 향수의 이분법적 구도 등)	

- 1) 위 항목에서 귀하가 동의하시는 다원예술 지원방식은 모두 원래 V표 해주시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다원예술의 지원방식이 위에서 빠져 있다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

- 2) 위 표에서 ①~⑮의 항목 중에 다원예술 지원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우선순위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원주부터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아래 빈 칸에 기록해 주세요.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6.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과 합리성을 전제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에 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① 명확한 기준을 가진 평가지표 개발	_____
② 지속적인 지원책 개발	_____
③ 특화영역의 전략적 지원 (해외교류, 공간재구성 사회와 프로젝트, 주체성 있는 신진작가 등)	_____
④ 현장예술가와 전문가의 지원심사 자문 및 참여과정 개발	_____
⑤ 공공성의 의미와 정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탕으로, “확한 것”만이 공공성인지 재고해야 함	_____
⑥ 기존 예술 장르와 다원예술을 구분하지 말아야 함	_____

- 위 항목에서 귀하가 동의하시는 다원예술 지원제도 개선안을 모두 원래 V표 해주시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위에서 빠져 있다면 아래 빈 칸에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

부록6. 지원제도의 주요 쟁점과 몇가지 개선방안

1. 다원예술의 쟁점과 과제

지원제도에서 다원예술 분야의 쟁점은 크게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 다원예술 지원 대상, 기존 장르 영역에 대한 수정, 현 지원제도의 장르 중심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1) 다원예술에 대한 명칭과 정의

(1) 다원예술, 형성되고 있는 지원영역

- 명칭과 정의의 모호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 지원제도에서 다원예술이 하나의 지원영역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상업적 대중예술지원’(90년대 중반), ‘실험예술지원’(1997년), ‘독립예술지원’(2001), ‘다원적 예술지원’(2002), ‘다원예술지원’(2006)으로 변화되어 왔음
- 이는 사회적 예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예술활동(예술현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 장르 중심 지원제도가 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영역을 지원제도로 포괄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과정적 특징으로 인해 ‘다원예술’의 정의와 명칭 지원대상의 모호함이 지적되어 왔음. 그러나 ‘새로운 지원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합의에 비해 이 영역의 정의와 명칭의 모호함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는 것은 과연 공적 지원제도에서 포괄해야 하는 ‘새로운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2) ‘다원예술’ 명칭에 대한 옹호와 반대

- 개념의 개방성이나 축적된 비평개념이 아닌 데에서 비롯되는 혼란이나

- 이 때문에 다원예술에 대해 실험예술, 독립예술, 뉴장르공공예술, 새개념예술 등 예술비평에서 축적된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즉 ‘다원예술’은 그 자체로 명료하게 현실에서 배타성을 갖는 예술현상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조합된 개념으로 정책목표 등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자체로 지원영역 지원대상을 명시하지 못하는 한계 지적되어 옴. 그러나 실험예술, 독립예술에 대한 관행적 관습적 이해가 이 영역의 지원 정책 목표와 충돌하거나 혹은 정책 목표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다양하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이 벌어지는 현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또 현대예술의 다양한 양상이 ‘실험’ ‘독립’ ‘대안’ 등 어떤 양상, 가치를 중심으로 수렴되지 않은 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 더불어 현대예술에서 예술

과 예술 아닌 것의 경계가 약화되는 경향 등 예술창조활동을 매개로 한 총체적 활동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의 개방적 개념이 유효하다는 입장도 존재함. 그러나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다원예술’은 그 명칭 자체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한편 다원예술이 지원제도 지원영역으로 기입되는 데에 예술계에 존재하는 실체로서 독립예술제(이후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활동이 큰 영역을 미침. 현재 다원예술 지원에서 가장 주도적인 예술활동이 ‘실험예술’과 ‘독립예술’이라는 점도 독립예술제(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
- 다원예술에 동의하는 입장이건 혹은 새로운 명칭과 정의를 제안하는 입장이건 이 영역의 명칭은 제도의 시행을 통해 의미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제1기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정의

- ‘소외된 영역의 포괄적 지칭을 위한 집합적 용어’로부터 ‘예술현장의 새로운 변화양상을 정책대상에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개념 정립’
- 2006년에 활동한 제1기 다원예술소위원회는 다원예술 정의 및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함.(□□소위원회별 사업 혁신 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비전 수립TF), 2006.1)
 - 독립예술, 실험예술, 대안예술, 비상업 대중예술 등 기존 지원체계에서 배제된 개별 사업의 지원을 위한 범주로 다원예술 지원이 유지되어 왔다.
 -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적 정책적 정의나 의미화 과정이 부재하다.
 - 따라서 다원예술이 현실 및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기존의 구조화된 장르와 정책 범주로 환원될 수 없는 “불명확한 실체”로 필요에 따라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이해되었다.(129-130쪽)
- 다원예술소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술현장의 새로운 변화양상을 정책대상에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장르에 대한 실험적 시도’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을 다원예술의 정의로 제시함¹¹¹⁾
-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원예술지원의 가치 비전을 “실험성(장르적 실험성), 다양성(예술주체의 다양성), 공공성(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으로 제시하고 있음

(4) 남겨진 문제

- 명칭에서
 - 다원예술이 지원제도에서 형성 중의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영역의 정책적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다원예술’은 명칭으로 적절함
 - 앞의 입장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원예술’의 명칭이 장르적 조어로 이해됨으로

111) “다원예술이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한다.”

정책적 개방성을 명칭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원적 예술활동’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이 더 적절함

- ‘실험예술’, ‘독립예술’, ‘새장르예술’과 같이 예술현장 예술비평에서 축적된 개념을 근거로 할 때 이 영역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정책적 개방성은 지원제도 운용의 문제이다. 제도 운용을 통해 이 영역의 정책적 개방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예술활동의 정책적 기입’이라는 정책의 개방성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용어의 관습적 관용적 이해와 실천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의에서

- 명칭의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이 영역의 정의 문제 역시 정책 목표와 예술현장의 접측면을 얼마나 넓게 가질 수 있는가에 따름(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예술현장 존재, 정책 목표의 설득력 등)
- 지원 정책의 목표와 지원을 요구하는 예술현장과와의 간극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제1기다원예술소위의 정의에서도 이러한 간극이 드러남.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이라는 지원 정책 목표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예시된 예술활동 범주가 “실험적 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로 실험성의 예술활동 범주가 강조되고 있음
- 다원예술 지원 정책의 가치 비전을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의 범주에서는 실험예술의 비중이 높음. 이러한 간극은 다양성, 공공성 범주의 활동에 비해 실험예술 범주의 활동이 지원영역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에서 비롯됨.(다양성, 공공성 범주의 예술활동은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낮은 데 비해 예술실험 범주의 활동에서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이러한 현실은 정책의 수립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예술가들이 대체로 실험예술 범부의 예술가들로 순환 고리를 이루며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
- 지원제도에의 노출만이 아니라 지원제도의 운용에서 심의 및 평가 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비평의 영역(즉 평론의 형성)에서 예술의 ‘실험성’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축적이 있는 반면 ‘다양성’ ‘공공성’의 범주에서는 그 축적이 미미함. 즉 ‘다양성’ ‘공공성’ 범주의 사회적 가치를 예술적 가치로 확장하고 심화하는 비평 담론의 형성이 지극히 미미함
- ‘다양성’ ‘공공성’ 범주의 비평이 미흡함은 지원 제도의 운용에서 ‘다양성’ ‘공공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예술현장에서 설득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특히 ‘새로운 예술현상’을 정책 대상에 능동적으로 수용한다고 할 때 ‘새로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다원예술’은 장르적 개념(형식)인가 기능적 개념(가치)인가에 대한 혼란. ‘다원예술’의 조어성격, 그리고 현재 ‘다원소위’가 장르소위로 편제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정책적 개방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장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영역임에도 지원 정책에서 장르적 유형을 따르는 이해 혹은 경향이 있음. 형식과 가치가 중첩된 지원 영역으로서의 독자성, 공적 지원 제도에서 형식과 가치의 중첩을 설득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필요함

2) 다원예술 지원 영역 (지원 대상)

- 국내다원예술현황(이하 현황)의 분류와 분석에 따르면 이 영역의 몇 가지 주목되는 양상이 드러남
 - 실험성과 공공성 다양성이 직접 연계되지 않음
 - 신청현황에서 종합예술제가 많은 반면 선정경향에서 가치지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척됨
 - 현재 다원예술지원대상의 과반수 가량이 장르실험, 복합예술(매체적 측면), 예술가치중심(가치적 측면)인 것으로 드러남
 - 지원 결과의 전반적 추이에서 실험성, 공공성, 사회성 증대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임
 - 사회참여, 시민문화체험 등의 공공성 가치 범주에서 매체적 측면의 경우 종합예술제와 대중예술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르실험, 복합장르는 저조함
 - 그러나 신청현황에서 장르실험에서 공동체예술 가치가, 복합장르에서는 독립예술이, 대중예술은 사회참여가 장르 중심에서 예술가치중심이 압도적이지만 사회참여와 시민문화체험에서도 의미 있는 수치가 발견됨
 - 전반적으로 선정 경향에서 '종합예술제'에 대한 배척이 보임. 그러나 사회참여, 시민문화체험 영역에서 종합예술제 유형 사업이 다수인 것은 예술현장에서 다양성, 공공성이 종합예술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르중심, 종합예술제에서 예술가치 중심은 전혀 선정되지 못함. 실험성 혹은 공공성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배제됨
 - 이러한 양상은 '실험성'이 '다양성' '공공성'과 직접 연계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임.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다양성, 공공성 (가치) 범주에서 실험성 (매체) 범주가 저조한 것은 공공성에서 대중적 소통을 위해 관습적 관행적 예술형식 예술경향을 띠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조정 필요
- 다원예술영역의 오피니언 리더 혹은 전문가 그룹의 경우 새로운 영역의 발굴보다는 기존 활동의 전문성 제고가 문제의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이는 때로 주류 활동토대를 갖추고 있는 예술가에 대한 배타적 의식이 읽혀지기도 하며 아마추어 활동에 대한 경계도 높음. 이러한 경향성이 새로운 영역의 발굴, 가치 중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현장의 반발 혹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1) 장르중심, 장르실험, 복합장르 등 매체 및 예술방법론 예술개념에 대한 실험

- 기존 장르 지원 영역과의 겹침과 벗어남
- 장르 중심 지원 구조를 인정할 것인가 장르 중심 지원 구조를 해체할 것인가
- 기존의 장르 지원 체계가 '진흥'의 관점에서 '수월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관습적 관행적 예술매체, 예술방법, 예술개념에 저항하는 실험적 예술활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임. 사회 및 예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예술활동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이 범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예술계 내의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함
- 그러나 예술계 내의 광범위한 합의란 곧 기존 장르에서도 유의미한 지원 영역인 것으로 따라서 기존 장르 지원 영역과 겹치는 범주이기도 함. 즉 장르실험, 장르 중심 그리고 복합장르의 몇몇 경우에서도 장르 개념의 변화 속에서 수용되고 있거나 수용될 가능성이 큰 활동임. 이 때문에 실험예술에 대해서는 장르 지원 영역에서 쿼터제 등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음(신진예술가들의 실험적 경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 있음)
- 정책적으로 기존 장르 지원 영역으로 수렴하는 것을 장기적 비전으로 제안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원 제도 운용에서 전략적 방법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함. 다원예술 영역을 통해 실험성의 성취도를 높이고 일정한 성장을 이룬 예술활동의 경우 기존 장르 영역에서 포괄하게 함. 다원예술 지원의 장기비전을 이렇게 둘 경우 다원예술의 실험예술 범주는 끊임없이 실험의 전위성 전복성을 주목하고 발굴해야 함. 이는 끊임없이 다원예술을 주변적 임의적 영역으로 제한하게 되는 위험이 있음
- 한편 예술지원 구조의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장르 중심 구조의 해체에 둔다고 할 때 실험적 예술활동에서 예술적 성취도나 사회적 반향, 대중적 호응 등에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예술활동을 다원예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다원예술 영역의 확장과 심화를 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장르 중심의 지원 구조는 (예술계 내의 관습적 관행적 사고, 기득권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활동에서 숙련성 수월성 등은 실험성 못지 않은 주요한 가치인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장르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경향의 발굴을 공존시키는 방식이 더 유효한 전략일 수 있음
- 전체 예술지원제도의 변화 방향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그러나 어떠한 전략을 취하든 새로운 예술의 흐름에 탄력적인 지원구조라는 정책목표를 생각할 때 다원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술계의 합의와 구조화가 필요함

(2) 새로운 예술주체

- 예술의 종 다양성을 위해 예술주체의 형성과정을 주목함
- 새로운 예술현상을 포괄하기 위해 예술주체의 문제를 지원대상의 범주로 특화함
- ‘다원예술’의 정책적 개방성은 ‘새로운 예술주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함
- ‘새로운 예술주체’는 예술의 종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 범주임
- 이러한 정책목표를 지원제도로 구체화 할 때 예술주체의 ‘새로움’에 대한 (합의 가능한, 혹은 설득 가능한) 규정 혹은 범주화가 필요함

- ① 신진-예술계에 막 입문하는 새로운 주체
 - ② 기존 제도교육의 장 밖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주체
 - ③ 프로/아마추어의 이분법을 벗어난 새로운 주체
 - ④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의 이분법을 벗어난 새로운 예술활동의 주체
(좀더 명정한 양상을 지칭할 수 있는 서술로 교체 요망)¹¹²⁾
- ①, ②의 경우는 기존 예술개념으로 수렴될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주체라면 ③ ④의 경우는 기존의 예술개념을 탈주하는 새로운 예술 주체라 할 수 있음. ① ②의 경우는 예술계(혹은 사회적) 합의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범주이면서도 예술계 진입장벽으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반면 ③ ④의 경우는 기존 예술개념을 탈주하는 새로운 예술주체라는 점에서 예술계(또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설득과정이 필요함. 그러나 예술의 종 다양성의 정책 목표를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③ ④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 현재 예술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술가 교육(예술가 재생산구조)이 제도교육에 거의 포섭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까지도 연극에서 신진 작가 연출가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대학연극반 등 제도교육 밖에서 진입하는 예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연극관련학과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무용에서 ‘독립무용’을 표방하는 그룹들의 경우 기존의 무용계의 관습적인 인맥 학맥에서의 ‘독립’의 의미가 크며 제도무용교육 출신들이 다수를 이룬다.) 그런 점에서 ①의 경우 신진예술가가 곧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예술경향이라는 이 영역의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범주가 아닐 수도 있음.¹¹³⁾(실험 예술의 경우처럼 기존 장르 영역과 겹치는 범주임) 새로운 예술주체에서 제도교육의 장 밖에서 새로운 예술주체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영역임
- 텔파이 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예술주체에 대한 지원은 ‘텔파이조사 대상자’들의 경우 다원예술지원영역으로 주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음
- 이는 ‘텔파이조사’자들의 경우 다원예술 영역의 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주요한 문제의식이 놓여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따라서 현장의 오피니언리더그룹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예술주체 발굴’이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수도 있음
- (3)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 -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공공성의 연계점
-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에 따라 문화다원주의와 공공성의 연계점이 다름

112) 새로운 예술은 반예술 운동 뿐 아니라 비예술을 부상하는 예술활동으로 수용해야 한다. 향수자, 창조자가 아닌 제3의 그룹, 아마추어 아티스트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아마추어 커뮤니티는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창작의 기층인 동시에 창작자 자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다원예술 분야가 인정할 때, 아마추어 동아리, 창조적 활동에 결합하는 향유자, 아티스트 없이 공동체 예술활동을 창출해가는 지역주민 등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13) 다원예술1차포럼, 드라마고 발제문.

- ① 중 다양성의 기반으로서의 문화다원주의
 - ② 다민족 사회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로서의 문화다원주의(이러한 이해를 배경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에 따른 다양한 미적 취향 등을 인정하고 진작하는 문화다원주의)
 - ③ 기존의 예술 개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예술활동의 근거로서의 다문화주의
- ①의 경우 문화다원주의는 예술 중 다양성의 근거로서 ‘다양성’ 그 자체를 목적으로 지원 대상을 포괄할 수 있음. 따라서 개별 대상 하나 하나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집합적으로 ‘다양성’을 충족함으로써 공공성을 충족하게 됨
- ②은 좀더 적극적으로 계층별 계급별 취향별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예술활동을 지원대상으로 하게 됨. 예를 들어 계층적 소수자문화에 주목이라든가 노동연극, 노동가요 등 기존예술제도(고급예술이건 대중예술이건)에 포괄되지 않는 미적소수자 문화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이해의 경우 공공성은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드러남. 사회통합(현재의 정착용어로서는 문화 양극화 해소) 같은 사회의 공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함. 반면 전자는 문화의 획일화에 대한 극복
- ③은 기존의 준거틀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지향. 이에 따라 예술을 미적 준거로부터 문화, 이데올로기, 민족, 성 등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이해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삶과 예술, 사회와 예술의 관계, 미적 범주와 미적 경험에 대한 관습과 편견에서의 탈주를 시도함. 이러한 범주는 기존의 관행적 관습적 예술개념에 대한 저항, 특히 삶과 분리된 예술개념에 대한 저항 활동을 주목함으로써 공공성을 충족함
- ②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예술활동 전반에 걸쳐 관철될 때 ③의 양상과 겹치거나 전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즉 그 양상 혹은결과가 ③과 같이 예술개념 방법에서 전복적 양상을 띠 수도 있지만 차이를 인식하고 드러내는 방식에서 관습적이고 관행적일 양상을 띠 수도 있음
- 따라서 ②의 차이에 대한 이해라는 공공적 가치 추구를 위해 관습적이고 관행적인 예술활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반면, ③은 저항성을 주목하는 것으로 새로운 예술개념의 제시될 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3) 장르 중심의 지원 체계

- 목표지향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장르’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지원체계
 - 다원영역의 모호함은 ‘장르’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함
- (1) 목표지향적 지원체계로의 전환
- 최근 문예위 지원구조는 2002년 <문예진흥기금 중장기 비전과 발전계획> 중 ‘기금사업의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혁신’이 설정되어 기존의 장르별 사업별 지원에서 기존의 장르별 사업별 지원에서 목표지향적 전략지원체계로 전환되었

으며 이에 따라 4대 지원목표와 14개 핵심역량사업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함

○ 4대 지원목표와 핵심역량사업은 다음과 같음

2002년		2003년 이후	
지원목표	지원유형	지원목표	지원유형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	1. 창의적 예술지원	예술창작진흥	1. 창의적 예술활동지원
	2.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2. 창작공연활성화지원
	3. 다원적 예술 지원		3. 다원적 예술지원
	4. 신진예술가 지원		4. 신진예술가지원
예술의 접촉기회 확대	5. 관객개발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	5. 관객개발지원
	6. 찾아가는 예술지원		6.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7. 참여하는 예술지원		7. 예술체험·참여활동지원
	8. 예술자료·정보 보급지원		8.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9. 지역문화활성화지원
예술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	9.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예술의 보존과 계승	10.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10. 전통예술 발표·전승		11. 예술자료정보화 및 보존·보급지원
			12. 전통예술 발표·전승 보급지원
문화적 조화를 위한 예술의 역할 증진	11.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12.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13.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13. 통일민족문화교류지원
	14.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14. 문화예술해외교류지원

- 2003년 2004년은 지원목표와 지원유형이 같음
-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유형이 공모방식에 따라 세분화됨
- 2006년부터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목표의 지원유형에서 문화예술교육분야가 제외됨
- 2006년 지원목표가 조정됨.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 삭제되고 ‘지역문화활성화 지원’과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가 설정됨

(2) 목표지향 지원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온존하는 장르 중심 지원구조

- 지원목표의 조정에 따라 지원유형별 사업의 지원 목표가 조정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 변화, 사업평가의 변화 그에 따른 사업 결과의 변화 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음
- ‘예술의 보존과 계승’ 목표에서 ‘예술창조역량 강화’ 목표로 조정됨
 - ‘예술의 보존 조사 연구 지원’은 ‘문화예술 매개활동지원’으로 지원목표가 조정됨
 - ‘무대예술인재교육지원’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조성’ ‘마로니에미술관기획전시’ ‘예술극장기획공연’은 ‘예술 창조 역량 강화’에서 ‘문화예술 매개활동 지원’으로

조정됨

-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는 ‘예술 창조역량강화’에서 ‘지역문화활성화’로 조정됨
- ‘문화예술’ 발간, ‘문예연감발간’은 ‘예술의 보존과 계승’에서 ‘문화예술 매개활동 지원’으로 조정됨

○ ‘문화예술매개활동’ 지원목표 설정에 따라 신설된 지원유형은

- 전국문학관 활성화지원(정기공모 및 지정 사업)
- 문화예술매개활동지원-사이버문학광장 활성화지원(비공모 자체추진 사업)

○ 지원목표와 별개로 장르가 명시된 사업이 많음. 특히 별도, 지정, 비공모 자체추진 사업에서 많음

- 예술창조역량 강화 : 공연예술창작전원단체집중육성지원, 문예지게재 우수문학작품선정지원,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
- 문화예술매개활동지원-전국문학관 활성화지원에서 문학관의 문학프로그램으로 지원사업이 한정되어 있음. 대학로복합문화공간조성, 사이버문학광장 활성화 지원(문학)
-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참가지원(시각예술),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 및 전시(시각예술), 해외 한국문학자원 기초 조사(문학),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의 경우 미국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과 독일베타니엔스튜디오 프로그램 등 각각 문학 시각예술분야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음¹¹⁴⁾

○ 심의위원이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심의분야를 ‘창작’과 ‘향수 교류’로 세분화했다고 하나 장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장르 중심 지원체계가 완강하게 고수되고 있음

○ 지원목표가 달라졌음에도 같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표에 따른 성과관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국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사업들을 성과목표체계로 재배치한 것으로 성과목표에 따른 심의 선정 지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장르를 중심으로 한 지원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명시된 지원구조는 성과목표별 지원이나 심의위원의 구성이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장르를 기반으로 구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목표에 대한 이해(理解)보다 장르에 대한 이해가 기저를 이루고 있는 구조임

114) 장르별 특성화, 장르별 발전단계의 차이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 예술장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지원의 총량적 파악, 소위원회 구성이 장르 중심이라는 점 등을 들어 목표중심의 사업 편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문예위 내부 문건) 장르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 사업범주 구분이 이루어질 경우, 각 장르별로 예술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지원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다분히 편의적 발성이라 할 수 있다.

(3) 장르중심 지원구조에서의 ‘다원예술’

- 현재 예술위의 소위원회 구성이 장르소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역시 장르를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 ‘다원예술’에 대해 지적되는 모호함은 이러한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기인함
- 현재 다원 소위는 장르소위원회로 편재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다원예술을 새로운 ‘장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이 때문에 다원예술에 대한 모호함은 기존 장르의 정의나 규정 영역의 체계를 따르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함
- 그러나 다원예술을 ‘장르’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강하게 존재함
- 새로운 예술의 발굴이라는 정책적 개방성으로 인해 ‘다원예술’ ‘다원예술소위원회’의 영역을 ‘지역문화’ ‘지역문화소위원회’ 등과 같은 가치, 기능 소위로 이해하는 경향도 존재함
-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 ‘다원예술’은 새로운 예술가치와 더불어 새로운 예술방법에 대한 발굴이라는 점에서 ‘장르소위’에 편재되는 것이 적절함
- 그렇다 하더라도 ‘다원예술’을 기존 장르와 같은 체계로 규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지원 사업의 구조화에서도 새로운 예술가치와 새로운 예술방법을 동시에 교차 주목하면서 기존 장르와 같은 체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함
- 2002년 목표지향 전략지원체계로의 전환 이후 ‘예술창조역량 강화 목표’에 대한 지원 사업 유형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

2002	2003	2004	2005	2006
창의적 예술지원	창의적 예술활동지원	창의적 예술지원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 조성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창작공연활성화 지원	창작공연활성화 지원(연중접수, 별도심의)		전통예술활성화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다원적 예술활동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다원적 예술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 2005년까지 ‘예술창조역량 강화’ 목표에서 ‘다원적 예술지원’ ‘다원적 예술활동지원’은 별도의 사업유형이었으나 2006년에는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 조성’으로 편재됨. 2007년에는 다시 별도의 사업유형으로 편재됨
- 창의적 예술지원, 창의적 예술활동지원,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 조

성 등의 사업유형은 결국 각 장르별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다원예술’은 기존의 장르별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음. 2006년 장르별 창작지원활동과 같이 편제되었던 것이 2007년 다시 별도로 편제됨

- 사업유형에도 기존 장르와는 별도로 편제되는 것이 ‘다원예술’이 예술창조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기존 장르 체계 장르 규정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생각됨

4) 결과 중심 지원 관행

- 가시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관습
- 심의와 평가의 객관화 정책이 실적 중심의 지원구조를 강화함
- 일반 예술현장의 예술가들에게 가장 넓게 열려있는 부분은 예술창작 지원 및 기반 조성 목표의 연례정기 공모이다. 정기공모 다원예술분야 지원대상은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의 창작활동, 세미나, 워크숍 등 연구 연수 및 평론 활동, 자료의 발간 제작 및 보급활동, 이 분야 예술 기반조성사업임
- 워크숍과 세미나 등의 연구 연수 및 평론활동이 제시되고 있지만 창작활동은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완성된 창작물이 지원의 주대상임
- 심의와 평가의 객관화 정책이 계량적인 실적 중심의 지원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지원신청서’를 살펴보면 ‘계량적인 결과 예측’의 경우 ‘창작/보존되는 작품 수’, ‘공연회수’, ‘세미나/강좌 등 행사 수’, ‘발간물’, ‘예상 관객(독자) 수’ 등이다. 이외에도 ‘활동실적’ 등 심의에서 완성된 결과물이 기준이 되고 완성된 결과물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
- ‘공연예술창작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 등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 작품에 한정되어 있음
- 별도 지정 공모, 자체 사업의 경우 ‘올해의 예술상’ ‘문예지계재 우수작품’ ‘시각 예술기획사업’ ‘전문공연장 지원’ 등 지원대상이 다변화되어 있지만 지원 사업이 특화되어 있어 새로운 기획, 활동이 포함되는 데에 문턱이 높음
- 따라서 일반 예술현장에서는 예술창작 지원의 연례정기공모의 완성된 작품위주 지원만이 열려있는 셈임
- 사후지원의 경우 ‘재공연’ 등 완성된 창작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지원 내용 또한 완성된 창작물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 문진기금의 지원구조 자체가 완성된 결과에 대한 심의 지원 평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5) 지원방식의 협소함 - 결과 중심의 지원구조 자체가 지원방식을 협소하게 함

(1) 공모에 한정되어 있음

- 한편으로는 지원방식의 협소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계 내의 평론 등 예술활동을 두고 이루어지는 담론의 장이 협소함으로 인해 ‘공모’ 이외의 ‘발굴’ 등의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있지 못함

(2) 지원내용의 협소함

- 결과 중심의 지원구조는 다양한 지원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지원 내용의 다양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후지원의 경우 재공연 등 결과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재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6) 평가와 심의

(1) 심의

- 명시된 지원구조는 성과목표별 지원이나 심의위원의 구성은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장르 기반으로 구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각 목표에 대한 이해보다 장르에 대한 이해가 기저를 이루고 있는 구조임
- 인터뷰 심의가 도입되고 있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은 서류 심의로 진행됨
- 지원신청서 양식이 획일화되어 있어 분야별 특성이 심의에 반영되기 어려움
- 더불어 지원 심의 공통기준이 모호하여 명확한 심의 지표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 (사업의 예술적 수월성,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신청인, 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 계량화된 지표로 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심의 방법, 심의 내용이 협소해 짐
- 더욱이 계량화된 지표가 단순하여 더욱 협소함
- 다원예술의 경우 전문가 그룹의 형성이 부족하여 기존 장르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2) 평가

- 개별 지원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예술위 내부 자료 근거)

【 서면평가대상사업 평가 】

- ① 사업 계획 실현의 충실성
- ②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③ 종합평가

【 현장평가대상사업 평가 】

- ①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②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③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④ 향후 지원심의를 반영할 의견

【 심층평가대상사업 평가 】

- ① 대상 사업별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전체지원사업 - 국민만족도 평가 】

- ①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②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③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국민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문예위 홈페이지(www.kcaf.or.kr)에 기금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스럽게 게시하는 게시판 운영 수준인 것으로 보임
-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평가 보고서를 발간 배포(국내 주요 예술단체, 중앙 일간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국회, 감사원 등)하고 있으나 예술현장과의 환류가 원활하지 못함
- 다원예술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심의 기준 평가 기준이 부재하다. 그러한 교집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다양한 가치, 기준의 편재가 필요한가
- 평가사업이 예술현장과의 환류가 원활하지 못한 데에는 평가사업의 목표가 지원사업(지원체계 지원구조 지원심의 등의 합리성,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임. 좀더 적극적으로 예술현장에 대한 기록, 보존, 모니터링, 비평언어 개발, 비평영역의 형성 등의 다목적사업운영이 필요함

2. 지원방식의 개선안¹¹⁵⁾

과제명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이원화(지원영역의 변화양상 수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예술의 명칭, 정의, 지원대상, 심사기준, 평가기준 지원제도 전반에 걸쳐 모호함이 지적되는 근본적 이유는 이 영역이 지원제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임 이 때문에 지원 정책의 목표와 (지원 제도에 노출된) 예술현장의 불균형과 불일치, 명칭 정의 정책목표에 대한 추상적, 자의적 이해와 해석 등이 이 영역의 모호함을 낳음 따라서 ‘새로운 예술활동의 포괄’이라는 지원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점사업, 기획사업, 발굴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중점사업, 기획사업, 발굴사업 등은 정책목표의 이해와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대상의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① ‘장르실험, 복합예술, 비상업적 대중예술’ 등과 같이 일정하게 형성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다원예술 일반) ② 이와 별도로 2) ‘새로운 예술활동’의 발굴, 이해,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상(다원예술 중점사업) 예를 들어 2007년 중점사업은 다원예술의 ‘다양한 예술가치’ ‘공공성’ 등을 다원예술의 범주로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면서 이 범주의 발굴, 이해,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서의 제도 운영이라 할 수 있음

과제명	다원예술 일반의 공모 사업 진행, 심의, 평가에 대해(지원대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원예술에 대한 추상적 이해, 자의적 해석이 심의 평가기준을 모호하게 함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목표를 현재 존재하는, 실천되고 있는 예술현상, 예술양태와 연계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심의 및 평가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범주화 정도의 일정한 추상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정책 목표가 구체적인 예술활동으로 전개될 때 다양성 창조성 실험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임. 일정한 범주 내에서 각 예술활동에 대한 심의와 평가는 개별 심사자 평가자의 창조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함. 그러한 이해와 해석을 다시 정책목표 - 심의 및 평가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환류함으로써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구체성과 명료성을 지향하는 과정이 필요함 다원예술 일반 분야의 경우 이미 일정하게 형성된 지원 대상을 근거로 (새로운 예술활동의 제도 포괄을 위한 지원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표를

115) 본문 5장의 지원방식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p>투명한 범주화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에서 문화행동은 다양성 공공성 가치에서 비중있는 영역으로 주목되었으나 지원제도에의 노출 자체가 미미함. 따라서 중점사업, 기획사업, 발굴사업 등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실험성’과 ‘다양성’ ‘공공성’이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지원사업안내’ ‘심의기준’ ‘평가기준’에서 별도의 범주화가 필요함 공공성 영역은 광범위한 대중적 소통을 위해 관습적 예술형식이 차용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관습적 예술형식을 차용하더라도 (매체 실험성이 약하더라도) 공공성 추구, 중심/주변, 주류/비주류, 하위 등의 기존 예술관습 예술의 준거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있을 경우 다원예술 지원영역으로 포괄해야 함 독립예술 범주의 경우 이 영역의 제도기입 초기부터 주목되어온 범주이나 대중예술과 같이 상업적 산업적 장이 형성되어 있는 분야가 아닌 경우 ‘독립’이 의미하는 탈주하고자 하는 중심, 경계가 모호함. 기존의 예술관습에서의 탈주는 ‘실험예술’에 수렴되며, 제도에서의 탈주는 지원제도와 ‘독립’의 의미를 좀더 규명해야 하며, 상업영역에서의 탈주는 예술계 전반이 상업적 구조가 몰락해가는 문제에 직면에 있다는 점에서 쟁점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대안적 경향은 구체적인 범주화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비상업적 대중예술’을 명시적 범주로 두고 독립예술로 지칭되어 온 여타의 경향 지향 양상은 각각의 구체적 범주화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다원예술 아닌 것’이라는 배타적 인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다원예술’의 배타성을 강조할 것인가 ‘다원예술’의 정책 목표를 상위에 두고 그에 부합할 경우 (장르 지원과 겹친다하더라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필요 만약 배타적 방향이 아닌 포괄적 방향을 취한다고 할 때 기존예술경향에 따르는 사업이나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한 사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다원예술의 정책목표-실험성, 공공성, 다양성-을 투영하여 다원예술 지원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제도운용(혹은 전략)이 필요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 사업에서 이 영역의 지원 목표와 지원 사업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p><개선안> (사업개요)</p> <p>예술의 창조적 종 다양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예술방법과 새로운 예술가치를 확대 발굴하는 창작 및 기획 활동</p> <p>(지원신청 자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술단체 및 예술인 ② 시민사회단체(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공동작업을 권장함) ③ 3년 이상 활동해온 문화예술 동호회 <p>(지원대상 사업)</p>

	<p>① 장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실험적 예술활동, 복합장르 예술활동</p> <p>②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활동(문화행동 등)</p> <p>③ 과정 중심의 예술활동 (커뮤니티 아트 등)</p> <p>④ 학제간 통합적 예술활동 (과학과 예술의 만남,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p> <p>⑤ 소수자 문화예술활동</p> <p>◦ 지원서 양식 변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사업의 새로운 예술형식과 새로운 예술가치에 대한 기입 - 가치와 형식의 실험에 대한 기준 명기 - 예시 및 나열형의 요건 -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지향하는 지원정책의 주요특징 및 평가기준 명시 <p>◦ 심의기준과 평가체제의 확립, 이의 전달과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심의위원, 평가자들이 일치된 다원예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	--

과제명	중점사업(기획사업과 발굴사업)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이 기금배분을 넘어서 정책적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기획사업, 발굴사업의 도입이 확대되어야 함 ◦ 추진목표에 맞는 전략적 특화사업을 진행함. 전체 지원금 예산의 20% 이상을 중점 기획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재원을 예술위 외부에서 확보하려는 노력 역시 다원예술 소위 및 기획위의 역할이 되어야 함 ◦ 중점사업의 내용은 현황파악과 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한 과정(포럼, 세미나, 공청회, 리서치 등)을 거쳐 구체화되고 확정되어야 함. (지원형평성, 사업 타당성 등을 사업기획 단계의 의견수렴 구조를 통해 확보함) ◦ 기획사업은 허브공간 등 인프라 지원 도입, 유통방안 연구 등. 개별 사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지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획사업은 서구의 사례에서 잘 나타남. 기획사업은 다원예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에 대한 적응에 필수적임. 특히 다원예술의 경우 변화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사업을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개별사업, 단체 등 보다 기반사업의 필요성이 큼 ◦ 다원예술의 명칭, 정의, 대상의 모호함은 다원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의 틀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그런 점에서 2007년도 다원예술 지원에는 “새장르공공예술프로젝트”가 중점사업으로 시행 다원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의 틀이 제시됨 ◦ 지원공모에서 “예술의 공공성, 다양성”이라는 이 영역의 정책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의 예시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예술 프로젝트,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하는 예술 프로젝트, 특정 장소나 사안에 개입하는 행동주의 예술 프로젝트, 특정 공간을 활성화 하는 예술 프로젝트”와 같이 지원대상, 지원목표, 지원유형

	<p>을 구체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실제적인 제도의 운용-지원공모, 심의, 지원결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계 합의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약한 정책 목표의 경우 ‘중점사업’ ‘기획사업’ ‘발굴사업’과 같은 특화된 영역을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p>예) “프로/아마추어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예술활동 발굴사업”, “기획사업-예술개념 확장을 위한 다문화주의”,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다원적 예술활동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이 영역의 정책 목표 방향 구체적 사업 유형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필요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전후의 프로세스를 가짐. 이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사업(기획사업, 발굴사업) 주제 선정 - 중점사업 주제에 대한 워크숍 개최(개방형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프리젠테이션 발표, 상호비평, 전문가비평 등의 워크숍 개최) - 중점사업 공모 - 선정 사업에 대한 기록, 보존, 모니터링, 비평언어 개발, 비평 토대 구축을 위한 평가사업 진행 - 전체 사업 진행에 대한 (워크숍-공모-평가사업) 보고서 작성 및 개별 사업들의 도큐먼트진 보고서(시각 자료를 겸비한 에세이) 발간 ◦ 토대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 기획자 교육, 워크숍 지원, 시민 교육 예술(예술교육과 구별) 등 다양한 목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무형의 인프라 구축 - 전용 공간 운영, 아카이브, 예술가교류 및 네트워킹 - 관객 개발 - 다원예술에 대한 인지, 이해, 향수 프로그램, 기타 관객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예술 프로그램 - 유통의 지원 - 다원예술의 유통, 예술가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원 - 기타 대안적 제작 지원

과제명	기존 지원제도의 유연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지원제도가 융통성을 갖는 동시에, 다원예술의 변화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가지 지원방식을 변화시킴 ◦ 이는 향후 2년간 지원제도 개선의 시급과제로 판단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의 개방성 지향) 기존의 공모 형식의 맹점을 보완하는 발굴 지원제도가 필요함 - 그러나 이 제안은 다음의 몇 가지에서 고민이 요구됨

	<p>① 누가 발굴, 추천할 것인가?(전문인력? 평단의 추천?)</p> <p>②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심사위원단의 구성? 자체 심사?)</p> <p>③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수시 발굴 및 지원? 분기별 지원? 경제적 지원?)</p> <p>- 한편, 이 지원제도는 다음의 부수적 효과를 끌어내는 작업이기도 함. 즉, 공모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지원자 스스로도 다원예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다원소위가 지향하는 다원예술의 개념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p> <p>◦ 사후 지원</p> <p>- 사후지원 내용의 다양화를 통한 적절한 다원예술 지원을 수행함</p> <p>- 심사 대상 작품의 재공연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작품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짐</p> <p>- 작품의 보급, 작업 기록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스칼라쉽, 펠로우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p> <p>-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 구성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p> <p>- 지원 내용을 범주화할 수도 있을 것.(스칼라쉽, 펠로우쉽 등은 재교육사업(프로그렘)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임</p> <p>- 이 부문의 지원은 신청 후 일년 간의 작업에 대한 결과로 사후 지원하며,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다만 수혜자는 지원금의 용도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특히 신진예술인(청년예술인)에게 알맞음. 기존 장르 안팎에서 개념 상 혁신적·실험적 작업을 하는 젊은 신진예술인들을 지원함</p> <p>◦ 수시 지원</p> <p>- 현행 정기공모가 허수의 기획서를 양산한다는 점, 심사내용이 기획의도 이상의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수시지원(상시지원)의 도입이 필요함.</p> <p>- 채용의 미비, 제도도입기의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하는 단계를 가질 필요가 있음</p> <p>◦ 신진예술가 지원</p> <p>- 이 부분 중 장르 안에서의 혁신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각 장르의 신진 예술가지원 부문에서 가져가야 하지만, 아직 많은 신진예술인들이 장르적 지원 제도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신진예술가들에 대한 대안적 지원이 필요함.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 혹은 각 장르 군에서 "새 개념"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대 심화된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p> <p>◦ 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p> <p>- 플랫폼 역할,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평가 그룹 워크숍</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재교육-다원예술은 새롭게 형성되는 장르임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교육으로는 전문성, 수월성, 숙련성을 쌓을 수 없다. 따라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이 필요함 ①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② 재교육 사업의 지원 ③ 개별 예술가들의 재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 혹은 다원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링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결과가 아닌 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물(작품) 중심의 지원이 아닌 활동의 기록, 접촉(유통, 관계망 형성, 모임)의 다양화, 워크숍 등의 지원. 다원예술이 결과물과 향수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방식의 예술이 아니라는 전제에 근거를 둠 ◦ 단체보다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부문이 발생, 성장기임을 생각할 때 집중지원보다는 다건의 작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함 - 프로젝트-과정에 대한 지원 등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 예술가 혹은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제도화를 위해 심의 방법, 평가방법 등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함) ② 과정에 대한 지원 : 하나의 완성된 사업(작품)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예술가 교류, 워크숍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③ 허브공간에 대한 지원 등이 이러한 지원 목표를 포괄할 수 있음 ◦ 매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기존의 생산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매개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마켓의 형성 및 활성화, 유통, 홍보, 배급의 활성화, 기획자 양성을 포함 - 매개자 양성, 매개자 교육-문화예술 매개가 지원목표로 명시되어 있으나 고정된 특정 사업을 위한 목표로 기능하고 있음 - 새로운 예술영역을 개척하는 데 개별 창작자의 작업과 더불어 매개자의 역할이 더욱 크다. 특히 다원예술 영역의 매개자는 제도화된 장르예술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원예술 영역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교육을 추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향유자그룹 지원(예술활동의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향수자에 해당하는 참여자그룹의 지원 문제임 - 다원 예술은 수동적인 향수자 개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제작-참여함으로써, 누구나 예술로 사고하고 표현함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이 점에는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 구분의 모호성 문제, 커뮤니티 씨어터 및 행동주의 작업, 시민예술
--	---

	<p>활동 등의 영역 및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캐나다 호주의 프로젝트 사례- 커뮤니티 지원이자 향유자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객개발-다원예술이 새로운 예술로서의 정책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적 목표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원예술의 향유층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① 다원예술 향유자층 개발은 축제 개발 및 적절한 민간축제 지원 ② 아마추어 커뮤니티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예술가 향유자의 이분법을 떠나 커뮤니티 예술화물에 대한 지원(예술창작과 향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예술가/향유자로 분리하지 않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심의 방법, 평가방법 등의 개발 필요) ③ 시민모니터링 제 통해 향수자 비평활동 격려
--	---

과제명	기록, 비평, 연구 활성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은 새롭게 형성되는 영역으로 예술현장에 대한 기록과 비평 연구는 그 자체로 다원예술 영역의 지원임 ◦ 또한 다원예술 영역의 역동성을 제도가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 대한 기록 비평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에 대한 기록과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영역에서 기록 보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만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기록 보존 사업이 병행되어야 함 - 신청현황, 지원현황과 같은 현재 지원사업에서 축적되는 문서부터 기록으로 재가공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 매해 지원사업에 대한 연례보고서 발간. 아카이브구축의 토대 마련 - 장기적으로 아카이브구축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다원예술 비평토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전문가 그룹의 형성이 필요함 - 다원예술 활동에 대한 비평이 매우 취약함. 또한 아직 적극적인 비평그룹의 형성도 발견되지 않음 - 다원예술 중점사업의 경우 예술위 일반의 평가 프로세스와 별도의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 비평토대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창작자들의 사업보고서를 에세이 형태로 받음으로써 분석 비평의 축적이 필요함 - 더불어 중점사업의 경우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개조식 평가가 아니라 에세이 등의 형식을 취함함으로써 분석 비평의 축적을 꾀함 ◦ 지속적인 연구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이 새롭게 발굴되는 영역이라 할 때 현황에 대한 추적과 새로운 예술 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 발굴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사업 추진이 필요함

부록7. 지원제도 운영모델

- 자생력과 활동장 개념, 자원관리를 중심으로

1. 자생력 확보의 목표

○ 다원예술의 자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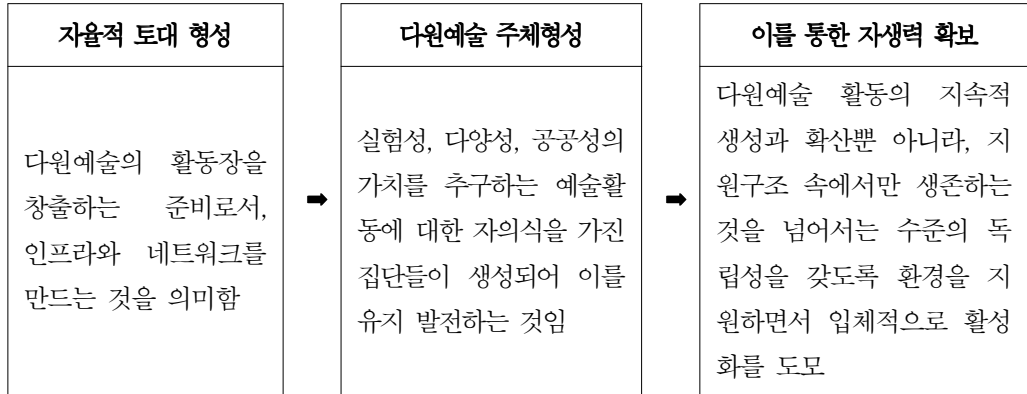
- 공적 지원, 직접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다원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함
- 자생력은 공공지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존함을 의미하거나, 경제적 차원에서 자기 충족적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자급자족과는 다른 의미임
- 자생력은 다원예술 발전의 자기 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 자원 및 재원의 확보를 통한 주도적 발전 등이 가능한 활동장의 생성능력을 의미함
- 다원예술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원예술 작가와 단체, 매개자 등이 창조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야 함. 즉 다원예술 작가와 단체, 매개자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생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자생력의 발전단계

단계	활동수준	설명
자발성 단계	자연발생 (spontaneousness)	기존의 예술환경에서 자생(indegeneous) 상태로, 다원예술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 초기의 연대들이 창출되기 시작하는 단계. 홍대앞 클럽연대, 독립예술제 등이 만들어지던 1990년대 후반에 해당함
	자발성 (voluntariness)	
자율성 단계	자의식형성 (self-consciousness)	실험예술, 독립예술, 다원예술, 실험예술 등의 표현이 나오는 데서 나아가 자구적, 자조적(self-help) 노력이 일어남. 독립성 유지와 공적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으로 나누어지고 일종의 준 활동장으로 자율성(antonomy)을 형성하는 현재의 단계. 자의식형성을 바탕으로 지금 지원제도에서는 다원예술의 주체형성과 자율적 토대의 마련을 전망과 목표로 삼게 됨
	자율성 (self-regulation)	
자생성 단계	자생력 (self-generation)	자생력(autogeny)이란 기반이 되는 유무형 인프라, 정보지원과 홍보 등 확산활동, 창작환경 마련을 통해 자가발전과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독립적이고 자주적(independent) 단계임. 지원제도가 목표로 삼는 자생력 확보단계는 직접지원 제도와 경제적 지원 차원을 넘어선 생성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임

	자급자족 (self-sufficiency)	예술활동의 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자기충족적 조건을 의미하며, 다원예술 지원제도에서 언급하는 자생력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	---

○ 자생력 확보의 세 과정은 다음과 같음



○ 자생력 확보방안

-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성장가능한 수준의 환경조성임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처럼, 다원예술의 독자성과 실험적이면서도 자구적 활동이 훼손되거나 영향 받지 않으면서도 성장가능한 수준의 지원지속이 가능할 것임¹¹⁶⁾

주요 방안	내용
연구, 평론 등 장기적 관점 지원	- 독자적 생존이 아니라 지속적, 생성적인 지원환경을 만든다는 자생력의 개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와 평론 등이 직접지원보다 중요하게 됨. 연구와 평론 등을 통해 다원예술 활동장이 자체적으로 창출되고, 자가발전을 통해 성장과 내용의 심화가 일어나도록 조성해야 함
인프라, 네트워크 등 기반조성	- 기반확보 사업이 자생력 확보의 기본방안 중 하나임. 인프라 조성 외에도, 상호교류가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식 네트워크, 아티스트와 스폰서의 연결지원 등을 통해 일차적인 자율적 성장의 토대를 형성함

116) 다원예술 정책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자생력 확보이지만, 예술활동이 순수한 자급자족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보편적 여건임. 따라서 자생력을 갖는 예술을 위해서는 창작, 유통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직접지원보다 홍보와 발표 등 대중화와 확산의 기초를 만드는 간접지원이 선결과제임

<p>교육, 교류사업</p>	<p>- 적극적인 주체형성 사업, 즉 다원예술의 여러 주체들이 고민을 나누도록 하는 워크숍과 교육, 교류를 통해 연결망을 만들거나 정 보연대 및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중 요함</p>
<p>자구적, 지속적 활동의 사후지원</p>	<p>- 다원예술 중 특히 독립예술은 자구적 노력과 저예산의 제작방식 을 통해 활동하는 현상이고 주로 청년활동가 및 신진작가의 실험 적 프로젝트가 많으므로, 잠재력과 성장의 과급력을 가진 사례를 발굴하여 사후 지원하는 개념이 적합함</p>

2. 다원예술활동장의 형성

○ 다원예술 활동장

- 다원예술 활동장 개념은, 다원예술이 고정된 예술의 가치로 질서가 이루어지고 다원예술이라는 규정된 창조형식을 취하는 장르 활동장이 아님¹¹⁷⁾
- 다원예술 활동장은 새로운 예술활동의 발굴 통로, 발굴의 그릇 같은 기능으로, 새로운 예술적 가치와 형식, 사회 내에서 부상하는 비주류 예술창작, 비정형의 진보적인 예술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촉진하는 곳임¹¹⁸⁾
- 다원예술 활동장은 사회 및 예술의 환경 변화에 예술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장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리고 한발 앞서 실험적 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개척하는 공간, 영역을 의미함¹¹⁹⁾

○ 활동장의 두 가지 차원¹²⁰⁾

다원예술의 독자적인 활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genre)가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이고 느슨한 연결망을 가진 예술계(art circle)에 해당함 ◦ 이는 다원예술의 양상과 매체양식을 규정하여 고정된 장르영역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님¹²¹⁾ ◦ 모든 예술계는 인적 연계와 가치관 등으로 구성됨. 장르로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도 자율적, 자구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자가발전하면서 생성적인 상태로 활성화 가능함
새로운 예술발굴의 지속적인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경향을 추적, 개척하는 기능 ◦ 단순히 부상하는 미학적 양식과 예술형식의 실험을 추적 발굴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한두 장르 혹은 양식에 묶이지 않는 다원적인 양상을 추세를 다루고 수용하여야 함

117) 장(場, field)은 하나의 예술계가 될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음. 다원예술 지원제도는 하나의 활동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장르를 대변하는 규범적인 계는 아님

118) 다원예술 활동장이란 다원예술을 기존의 장르와 같이 규범적이고 고정적인 예술계로 이해하는 경향을 경계하는 것으로 또 다른 장르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념과 영역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예술현상을 발굴하는 다원예술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임. 부상하는 신진 예술, 진보적 실험, 미래의 예술, 문화행동과 사회적 예술실천 등 기존의 기준으로는 예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수용하기 힘들었던 것을 흡수, 편입시켜 예술계 자체가 창의성과 다양성,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보와 역동성을 갖도록 하는 것임

119) 비예술, 반예술로 치부되어온 사회 문화 현상들이 예술적 실천과 만나고 흡수되는 곳으로 매체 융합, 장르복합과 더불어 일상, 사회, 예술적 실천이 이전의 예술양식과 다른 형태로 접점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함. 그러한 예로 시민운동과 예술의 만남, 과학기술과의 만남 등을 들 수 있음

120) 한 세대 이상을 공존하고 상호교류하면서 내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다원예술계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고유한 활동장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지원기능에 해당하는 활동장을 마련해야 함

121) 한편 다원예술의 주도적 활동가 그룹에 대한 텔파이 조사에서는 공공성, 다양성 등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술형식의 실험성에 대한 입장이 두드러짐. 실험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장르화해야 한다는 주장, 예술의 실험성을 추구하는 작가들에게 사회적 가치 등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다수 개진됨. 이는 예술형식과 매체, 양식 등을 중심으로 한 장르화에 대한 다원예술 분야 일부 구성원의 의식과 욕구를 드러내는 것임. 이는 현재 다원예술 지원분야에서 실험 예술 활동이 적지 않은 비중의 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실험예술 분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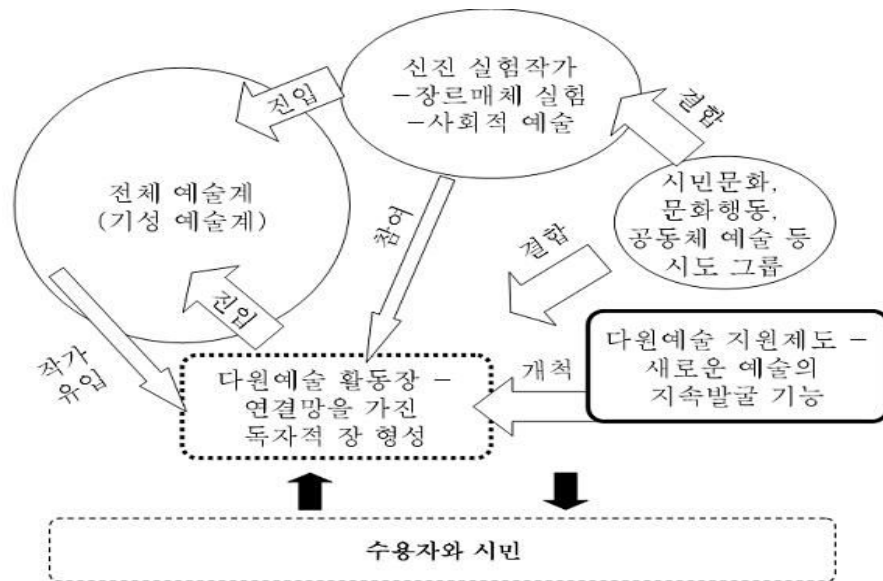
○ 다원예술 활동장과 자생력 확보의 목표¹²²⁾

- 다원예술 활동장은 장르 예술계를 설정하기보다 하나의 그릇으로서 다양한 예술형식이 순환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구. 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진보적 양식을 수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을 일반 예술계로 수용함으로써 예술계 전반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궁극의 목적에 부합함
- 지속적으로 예술의 실험영역을 개척하고, 문화의 사각지대와 부상하는 신진예술을 찾아내는 것이 다원예술의 몫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이 필요함
- 다원예술 소위원회는 다원예술 활동장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함
-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독자적인 활동장을 창출하도록 돕는 것은 자생력 획득의 기본목표에 부합함.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예술을 지속 발굴하는 활동장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함

활동장기능	창출 주체	구비조건
다원예술의 독자적인 활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활동장은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직접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다원예술 활동가 집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이를 위한 환경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국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과 발표, 공동작업이 가능한 유형인프라 등 기반구축 - 주체형성 및 연대를 위한 교육, 토론회 등 -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 무형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세미나, 워크숍, 포럼 지원 - 홍보지원 및 정보제공, 매개공간 마련
새로운 예술발굴의 지속적인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지원제도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고, 지원대상과 영역을 시대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설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르를 융합하거나 하나의 다원예술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고정되지 않은 새로운 예술을 개척하고 끊임없이 발굴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지속적 조사연구, 평론, 현장진단, 평가 등이 요청됨 - 다원예술 지원 및 새로운 예술 발굴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하는 다원예술의 개념과 영역을 연구, 발표하는 기능이 관건임

경우 기존 장르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장르와의 겹치는 현상이 커지고 있음
 122) 제1기 예술위 모토인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는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의 예술, 예술의 미래’에 대한 예술위 정책목표를 잘 드러냄(예술위 1주년 기념심포지움 “미래의 예술, 예술의 미래”) 그런 점에서 새로운 예술활동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다원예술은 특히 주목되는 영역임

○ 활동장의 개념도



○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세 가지 변화방안¹²³⁾

- 다음 세 가지 지원제도 중 하나를 선택함. ①포괄적인 영역 내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별도의 지원분야로 분리해내는 방안, ②일반지원 외에 주제를 정하여 기획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방안, ③현재처럼 단일한 지원제도 내에 공존하되 사회적 가치와 형식실험을 함께 충족하는 지원기준 강화방안 등
- 우선 ③을 채택하고 추후 ①혹은 ②의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함

변화방안	지원제도의 구성
① 다원 예술 일반과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실험예술 지원사업의 명시적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분야에서 다원예술 1, 다원예술 2를 나누는 방식. 다원예술의 애매한 구분들 속에서 포괄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분명해지는 양상에 따라 특정한 경향과 양상을 구분지원 - 일차적으로 매체장르의 실험성 부분이 고정된 장르처럼 지원이 집중되어감. 더구나 이러한 실험예술이 다원예술 분야가 추구하는 진보성, 다양성, 창의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경향이 증가함 - 따라서 실험예술과 다원예술 일반, 실험예술과 기존의 문화일반, 실험예술과 예술일반 등으로 지원분야를 나누는 것이 한 방안임
② 다원 예술 일반지원 외에 주제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혹은 새로운 예술의 풀을 설정하고 예술 경향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주제별 하위부문 지원프로젝트를 설정함 - 이는 기획지원 프로젝트로, 한시적이고 순환적인 체계임. 지원프로젝트

123) 현재의 지원제도는 다원예술의 포괄적 영역과 개념을 열어놓고 지원하되,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의 세 부문간 편중경향을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지 못 하였음. 다원예술 활동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원예술 경향과 창작양상을 평가하여 변화에 반영하고, 가치와 형식의 양 기준에 부합하는 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적절하게 변화하여야 함

<p>기획지원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다양성, 공공성 등을 지원</p>	<p>의 성과는 다음 해 사업지원의 부문 수정에 반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하위부문의 예술지원도 고정되거나 장르처럼 지속유지 되지 않으며, 포괄적인 다원예술 활동장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춤 - 지금까지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의 다원예술 세 부문 중에서 매체장르 실험과 독립예술이 지원의 주류를 이루었음. 의도적으로 공공성과 다양성 등 가치지향적 부문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매년 사업지원 주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p>③ 실험성과 다양성, 공공성을 한 지원제도 안에서 균형지원하고, 사회적 가치와 형식실험의 동시충족으로 지원요건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성, 공공성, 다양성 등 현재의 세 부문이 분리되지 않고 공존하며, 이들 간의 균형지원을 유지하도록 함 - 실험예술을 규정하여 별도의 지원제도로 만들고 나머지 분야와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실험예술 경향은 각 장르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임 - 공공성, 다양성 등 가치지향적 예술에 대해 예술위가 지원하는 이유는 소수자 및 공동체의 메시지, 사회참여의 문화행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창의성 때문임 - 따라서 가치지향적 활동과 형식적 실험의 두 기준을 다원예술 분야에 공존시켜야 하며, 나아가 가치와 형식의 두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지원요건을 부과함으로써 다원예술의 특성을 강화함

○ 다원예술 활동장 형성과정의 2단계 발전도

구분		2007 - 2008(2년)	2009 - 2011(3년)
지 원 제 도 와 소 위 원 회	다원예술 지원제도 기능	- 실험적인 청년예술가 및 독립예술 인들의 성장 및 이들의 예술계 충원 을 위한 과정을 마련하는 ‘사다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모색	- 새로운 예술을 시도하는 실험적인 공간 및 이러한 예술인간의 네트워 크로서의 ‘운동장’ 형성에 집중
	예술위 내의 다원예술 소위원회 역할	- 장르예술 내 실험적 창작시도 및 신진작가들을 위한 완충지대 - 제도권 예술로 진입하는 실험적인 청년예술인이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장르예술의 충원기능	- 완충지대와 충원기능이라는 잠정 적 활동을 하면서, 수년의 축적과 성장효과를 거두어 독자적인 다원예 술 활동장 조성
	다원예술 활동장의 개념	- 부상하는 주변부 예술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빈틈을 찾아내는 기능적 영역으로 적극적 개념화	- 장르로 규범화된 예술계가 아닌, 연결망과 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활동장을 자연스럽게 형성
지 원 기 준 및 원 칙	매체형식 의 실험에 대한 수용방식	- 각 장르에서 나오는 매체융합과 탈장르 실험을 수용하는 방침(청년 예술층의 참여기회 확대와 아티스트 의 사회 내 예술활동 참여시기를 앞 당기는 목적추구)	- 일반 장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 술활동은 배제하는 방침(다원예술 지원심의 후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일 반 장르로 보내도록 권고하는 프로 세스를 운영)
	공공성, 다양성 등 가치추구 지원부문	- 매체 및 장르실험을 별도영역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원예술 일반에서 함께 지원(다원예술에도 주류와 소 외된 분야가 존재하므로, 실험예술 외의 양상을 분석, 분류하는 연구를 병행함)	- 실험예술과 다원예술 일반을 구분 지원(다원예술 일반의 주요 지원요 건을 공공성, 다양성 등 가치추구적 문화예술 활동에 두거나, 별도의 기 획지원사업을 두어 공공성, 다양성 부문을 집중 지원함)
지 원 대 상 과 방 식	다원예술 지원의 범위	- 다원예술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포괄주의 정책(공공성, 다양성 등 가 치추구와 장르매체 실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됨)	- 다원예술의 질적 수준 고양을 위 한 배타주의 정책(매체형식의 실험 과 가치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사 업지원으로 국한함)
	모집과 심사방식	- 현재 제시된 실험성, 다양성, 공공 성의 가치체계에 따른 공모, 심사와 평가기준 확립(기본적으로 가치와 매체장르 실험의 2분 범주를 취함)	- 필요조건(자격요건)에 따른 선발방 식을 취함(예를 들어 5개의 요건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얻 고 이를 심사 채택하는 것과 같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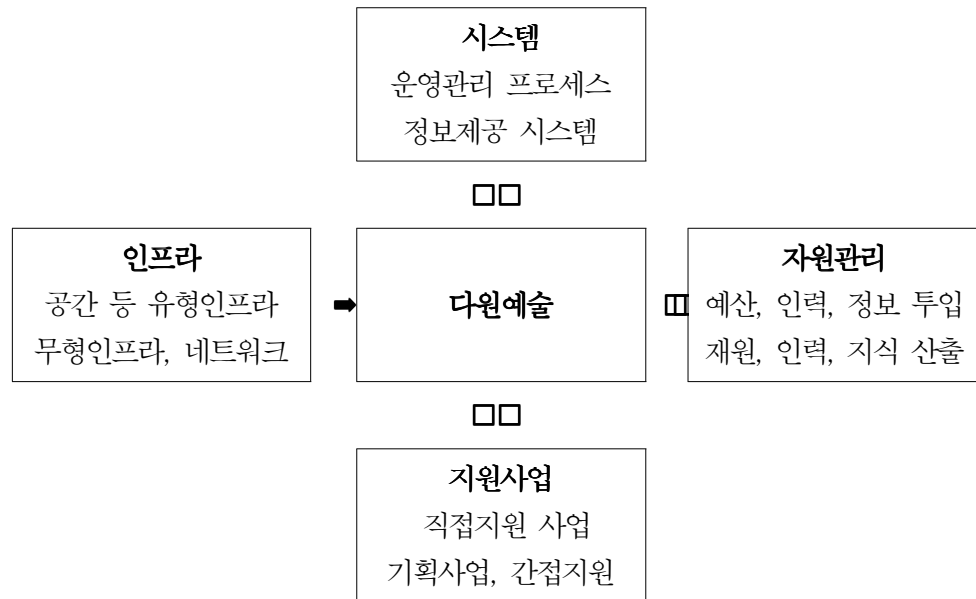
3. 운영시스템의 구축

○ 전체 지원시스템은 다음과 같음

구성	대항목		세항목
인프라	유형 인프라	하드웨어	- 창작 및 매개를 위한 공간(센터) - 시설장비
		소프트웨어	- 온라인 공간(홈페이지) - 서적, 미디어콘텐츠 등 텍스트(자료실 개념)
	무형 인프라	지식 자원	- 정보 네트워크
		사회적 자원	- 인적 네트워크(교류와 협력활동)
시스템	운영 시스템	프로세스	- 매뉴얼, 행동규범, 체크리스트, 피드백 등
		지식 콘텐츠	- 운영원칙, 심사기준, 평가척도, 목표전략체계
	정보생 성 시스템	정보제공	- 자료실, 정보지원 및 정보모집 - 정보생성을 위한 학습커뮤니티 운영 - 조사, 연구, 컨설팅을 통한 지식화
		홍보기능	- 홍보활동 - 발표, 행사, 출판, 시상 등 주요 촉진활동 - 기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원유 지 및 확보	인력	커뮤니티	- 아티스트와 기관의 교류협력 - 아티스트와 수용자간 접촉기회 마련 사업 - 활동가간 친교연대, 자발적 학습공동체 지원
		주체형성	- 아티스트 재교육, 연구기회 제공 - 매개자 양성, 시민향유자 교육기회 등 교육
	자금	스폰서	- 후원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펀드레이징	- 지원금 모금 및 기부사업
지원 프로그 램	지원 사업	공모사업	- 지원금 배분사업
		발굴사업	- 정책적 차원의 주제별 발굴사업 - 우수 프로그램의 자체 발굴
	기획 사업	기획사업	- 전략적 차원의 집중 프로젝트
		자체운영	-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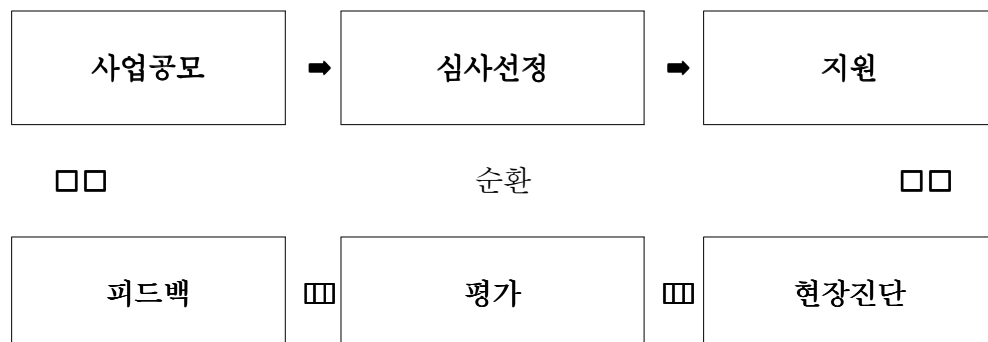
○ 지원시스템의 구성

- 지원시스템은 ①예산을 분배하여 진행되는 지원사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분됨. ②직접지원과 간접지원, 기획사업 등 지원과정과 그 운영을 뒷받침하는 운영시스템, ③지원사업 전후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는 동시에 자발적인 다원예술 활동이 일어나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인프라구성, 그리고 ④예산과 인력, 정보 등 투입되는 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자원, 인적네트워크, 재원확보 등 자원을 산출하여 지원사업에 재투입하도록 만드는 자원관리 등



○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본 프로세스

- 지원사업의 핵심은 심사선정으로부터 현장진단과 평가에 이른 후, 이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해의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영역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사업공모안의 내용과 심사원칙 등을 공지하는 것임



○ 지원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설정된 개선과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음

-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됨. ①비전과 다원예술 개념설정에 맞는 심사원칙과 선정기준 제시, ②이에 일치하는 평가체제의 마련, ③성과와 평가를 반영한 제도보완 및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등 일관된 기준과 피드백에 관한 것이 있음. 또, ④비전과 심사기준을 공모단계에서 명확히 제시, ⑤통일적인 현장진단 체제 마련 및 진단요원의 교육, ⑥조사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보완 및 전략적인 사업기획 등 의사소통과 기획력 보강에 관한 것이 있음
- 지원과정과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과제는 다음 세 가지임. ①작가개인과 작품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는 지원형태 채택, ②지원분배 방법의 개선, ③기획사업과 발굴사업 등 지원방법과 절차를 다변화

단계	주요과정	과제내용 ¹²⁴⁾
선정	사업공모	- 공모안의 비전, 모집요건, 심사기준 제시
	심사	- 비전과 개념설정에 맞는 심사원칙 마련
지원	지원사업 초점	- 작가 개인의 지원보다 공동작업과 소통과정의 지원 권장 - 작품제작 지원이 아닌 실험성 및 창조 역량강화 지원 - 작품의 지원에서 창작과정과 활동 자체의 지원으로 전환 - 단체의 지원에서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개선 - 작가의 지원과 매개자의 지원 간 균형
	분배방식	-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분배 - 향후 2년간 다원예술 확산, 홍보를 위한 소액다건제 유지 - 이후 선택적 집중과 모범사례 확보 위한 다액소건제 전환
	지원방법 및 절차	- 사전지원 대신 사후지원 방식 통해 우수사례 양성 - 계기성 공모선정, 수시제안 심사 등으로 지원기회 확대 - 아티스트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제도 및 연구지원 - 사회참여 예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모집 - 공모를 대체하여 다원예술위원회의 우수활동 발굴지원 - 중간점검을 위한 다년간 프로젝트 지원 - 우수사업 발표 및 시상제도, 후속프로그램 인센티브 강화
평가	현장진단	- 현장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일치된 행동규범 마련
	평가	- 비전과 심사기준에 일치하는 평가기준 마련
반영	피드백	- 지원사업 성과의 정보축적 및 홍보 - 평가를 통한 제도보완 및 사업기획 - 조사연구를 통한 제도보완 사업기획

124) 지금의 다원예술 지원체제의 문제와 쟁점으로부터 도출된 과제들을 기술한 것임

○ 목표설정에 따른 운영시스템의 주요사업

구분	부문	주요 사업내용	설정 목표
인프라	◦ 공간 및 시스템	- 창작공간 제공 및 매개공간 조성 - 온라인센터(연구 및 교육지원 시스템)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우선목표)
	◦ 정보화와 자료실	-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 웹 등을 통한 자료제공 서비스	
홍보	◦ 미디어홍보	- 온라인 홍보 및 미디어 제작 - 우수사례 및 활동가 발굴 홍보 - 인적정보 수집 및 관리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확산활동 (우선목표)
	◦ 홍보촉진 사업	- 축제 및 교류행사 마련 - 활동가 커뮤니티 지원(학습 및 정보교환) - 네트워킹 촉진(포럼, 워크숍, 세미나)	
지식 자원	◦ 지식축적	- 다원예술 평론가지원 - 다원예술 연구자지원 - 출판사업	다원예술의 자생력 확보 및 창조력 제고를 위한 자원전략 (기본목표) 125)
	◦ 연구	- 사례분석, 프로그램 연구개발 - 현장진단(민간 모니터링사업) - 정책개선, 마케팅방안 등 조사연구	
인적 자원	◦ 교육	- 예술가 재교육워크숍 -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 시민대상 다원예술 교육	
	◦ 인력양성	- 활동가 리프레쉬먼트 목적의 연구지원 - 비공모 기획발굴 사업 - 신진예술인 활동 후 지원제도 - 다년간지원 사례 집중개발	
지원 대상	◦ 영역의 탄력성 유지	- 개방적 개념에 따라 사례분석 - 상대적 개념에 따른 연구사업 - 전략적 개념에 맞는 기획사업 - 대안적 개념에 맞는 홍보활동	다원예술 개념과 범주 설정(향후 2년개선편 표)
	◦ 신정의 탄력성 확보	- 수시지원 - 사후지원 - 발굴지원	
지원 방식	◦ 프로세스	- 공모기준 변화 - 선정방식 확립 - 평가체계 개발 - 피드백의 강화	다원예술 지원의 운영시스템 마련(향후 2년개선편 표)
	◦ 지원정책	- 다원예술 확산목적의 지원(소액다건방식) - 선택적 집중사업(다액소건방식) - 스폰서십 및 매칭 사업(기부 모금사업)	

125) 지식 자원과 인적 자원의 축적 개념은 단순히 다원예술의 기반확보와 확산활동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섬. 인프라와 홍보 차원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다원예술 주체를 형성하고 다원예술 발전의 자율적 토대를 구축하는 등, 자생력 있는 활동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식 자원과 인적 자원의 축적과 성장이라는 관점이 중요함. 자원의 개념은 투여되면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다시 축적되는 등 다원예술의 자율적인 재생산을 정책화하기에 적합함

○ 연중 운영의 흐름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일정	1-3월	4-6월	7-9월	10-12월
정책개발, 사업기획	전년평가 반영 당해사업 기획	소위원회 월례포럼		전체사업 평가 중장기 발전계획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기획사업, 수시제안모집, 계기성 사업 발굴지원, 사후지원, 연구활동지원 등		사업공모 심사선정
현장진단, 평가사업	평가기준 확정 현장진단자 교육	현장진단		현장진단 워크숍 평가보고서
홍보사업, 촉진활동	온라인 홍보 우수사례 발굴	활동가 커뮤니티 네트워크 모임	축제 및 발표행사 언론대상 사례홍보	미디어제작 보급 시상
정보화, 자료실	인적 정보수집 출판	온라인 정보제공, 학습커뮤니티 지원 자료실 운영, 기록 및 상시 정보화		사업사례집 작성 웹 관리, 보완
인프라, 시스템	차년도 매뉴얼 프로세스 마련		소통공간 조성 시설장비 확충	
교육사업, 인력양성	신진예술인 사후지원 활동가 재활성화 및 연수지원		시민대상 교육 매개자양성 워크숍	예술가 재교육 활동가 세미나
조사연구, 평론조성	평론가 지원	연구자 지원	지원제도 관련조사 정책 및 사업개발 연구	

4. 자원관리

○ 자원관리를 중심으로 본 지원시스템¹²⁶⁾

자 원	관리 목적	개요
시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로 시간을 입체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 한정된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인력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단위 일회 직접지원의 한계 극복 - 간접지원 및 계기성 사업모집, 수시제안을 위한 연간 스케줄 마련 - 집중사업 및 발굴지원, 평가를 통한 연구 등에 별도의 인력배치를 통해 시간확보 - 기획사업, 전략도출 등 소위원회와 전문가의 일정확보 및 시간투여량 증대
공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 활동가 및 아티스트 간 소통증대 효과 ◦ 자발적인 연대와 학습을 통한 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유통, 보급 등 매개환경 구성 - 소통과 발표 등을 포함, 창작촉진의 기반이 되는 공간 마련 - 온라인공간 등 소통을 위한 인프라 마련 - 교류와 협력사업 - 축제 등 발표장의 마련
예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분배의 단순화를 극복하고 지원효과를 증대 ◦ 예산배분 외에 예산증대를 통한 활성화 관점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지원 중심의 예산분배를 다변화하는 기획사업, 자체운영 사업 등 - 모금과 기부, 매칭 스폰서십 등 예산분배를 넘어서는 예산확보 사업을 추진
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자료제공, 지식화, 피드백 등 정보 순환구조를 마련하여 다원예술 활성화 ◦ 정보화와 홍보를 통해 확산효과를, 지식축적을 통해 다원예술의 창조력 및 자생력 제고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촉진 등 사업내용 보급을 통한 대중화 -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설정, 사업개발, 수요조사, 마케팅전략 마련 - 지원사업 기록, 자료수집, 정보화를 통한 지식축적 - 평가 및 이의 피드백을 통한 후속사업의 기획력 제고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형성, 인력의 확산을 통해 다원예술의 발전에 기여 가능 ◦ 인력 운영비 투입과 교육을 통한 간접지원 비중을 높이는 것이 초기의 활성화에 효과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예술의 내부 범주설정, 지원기준 마련 등을 통한 다양한 주체형성 - 아티스트의 재교육과 재활력화, 시민의 이해증진, 다원예술 매개자 지원 등 다차원의 인력양성 - 아티스트간 자발적인 학습커뮤니티 및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네트워크 조성활동을 지원 - 다원예술 소위원회 및 전문가, 다원예술 활동가 등 기획사업, 실무운영, 평가연구 인력의 효과적인 투입

126) 자원(resources)은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지원사업의 가치를 보급하기 위해 동원, 활용될 수 있는 것들로 예산 외에 시간, 인력, 조성된 공간, 그리고 수집된 정보 등을 뜻함. 이러한 자원은 사업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 활용되기도 하는데, 재원, 정보, 인력 등이 그러함

○ 자원의 투입과 산출 프로세스

단계	투입	산출
초기 자원 투입	◦ 예산투입	◦ 직접사업 지원
		◦ 시간확보 ◦ 인력투입
자원의 전환	◦ 시간확보와 인력투입	◦ 사업지원 다각화 - 기획사업, 발굴지원, 상시지원 등 ◦ 간접지원 계획과 이의 추진체 구성 ◦ 자체운영 사업 - 현장진단, 평가
		◦ 인프라조성 - 공간, 온라인시스템 - 축제 및 연대행사 ◦ 정보제공 - 홈페이지 운영, 자료화, 정보화 - 홍보활동
기반 조성 및 확산	◦ 인프라 및 정보 운영	◦ 인력양성 프로그램 진행 - 교육, 워크숍 - 세미나, 포럼
		◦ 자체운영 사업 - 조사연구, 평론모집 및 이의 온라인화 - 자료수집, 기록, 출판 미디어화 - 홍보촉진, 마케팅, 스폰서십 사업 진행 ◦ 기획사업 및 발굴사업 진행
		◦ 직접사업의 결과 수집 - 다원예술 정보, 사업자료 및 기록물 - 인적 교류 및 학습활동 활성화
일차적 산출	◦ 양성인력 및 사업성과	◦ 다원예술 주체형성 및 인적 성장 - 아티스트, 매개인력 성장, 시민참여 -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무형인프라 조성 ◦ 지식체계 및 정보제공 - 기획전략, 프로그램 개발 등 지식확보 - 홍보자료 및 학습자료 확보
		◦ 재원확보 - 기부모금활동 - 후원협찬 사업
		◦ 사업평가 및 신규계획
자원 재투입	◦ 인적 자원과 지식자원 재투입	◦ 신규사업 생성 ◦ 다원예술 활성화 - 활동가확산, 시민참여촉진
재생산 단계	◦ 자생적인 추가사업 과 후속사업 생성	◦ 축적자원의 무형인프라화 - 정보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 이상을 통해, 다원예술 지원제도 및 소위원회 평가요소를 도출함¹²⁸⁾

구분	평가항목
기본목표	◦ 다원예술의 자생력을 확보하였는가(다원예술 분야의 자율적 토대 및 다양한 활동주체를 목표대로 형성해왔는가)
우선목표	◦ 기반조성, 확산활동 등에서 직접지원을 넘어선 활성화방안을 효과적 추구하였는가(인프라조성, 홍보 통한 확산목표의 달성 등)
지원사업 운영	◦ 지원시스템의 통합성(인프라 제공, 아이디어 발현, 창작과정, 발표, 확산 등 부문별 지원이 적절하고 균형적인가) ◦ 지원프로세스의 순환성(정보제공, 사업지원, 인력성장, 평가를 통한 기획 등의 피드백이 지속적이고 원활한가) ¹²⁷⁾ ◦ 지원대상 탄력성(개념과 지원영역 설정이 융통성 있는가) ◦ 지원방식 유연성(모집, 심사, 선정 등 효과적인 다각화)
자원의 관리	◦ 인적 자원과 지식자원을 축적했는가 ◦ 재원을 균형적인 동시에 사업목적에 효과적으로 분배했는가 ◦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가

127) 지원프로세스에 있어서 피드백이란 평가내용이 사업기획에 반영되는가를 주로 의미했지만, 자원의 투입산출에 따르면 피드백은 축적된 자원이 사업을 생성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재투자, 재생산을 의미하게 됨. 따라서 피드백의 평가는 ①진단평가 → 사업계획, ②자원축적 → 사업지속 의 두 가지가 존재함

128)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평가방식은 기본적으로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목표에 따르고 일치해야 함. 이는 ①사업조직 운영, ②프로덕트, ③프로세스의 평가로 나누어짐. 또 다원예술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역시 목표를 중심으로 일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크게는 ①목표의 설정, ②사업성과 및 사업효과, ③사업방법과 운영과정 등으로 평가를 나누어함. 이는 다시 목표설정을 적절하게 하였는가, 충분히 구체적 목표와 운영전략, 장기성장 계획을 준비하였는가, 그리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그 목표의 파급효과가 어느 범위인가 등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 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 행 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연구기관 | 기분좋은 트렌드하우스 QX

발 행 일 | 2006년 12월 30일